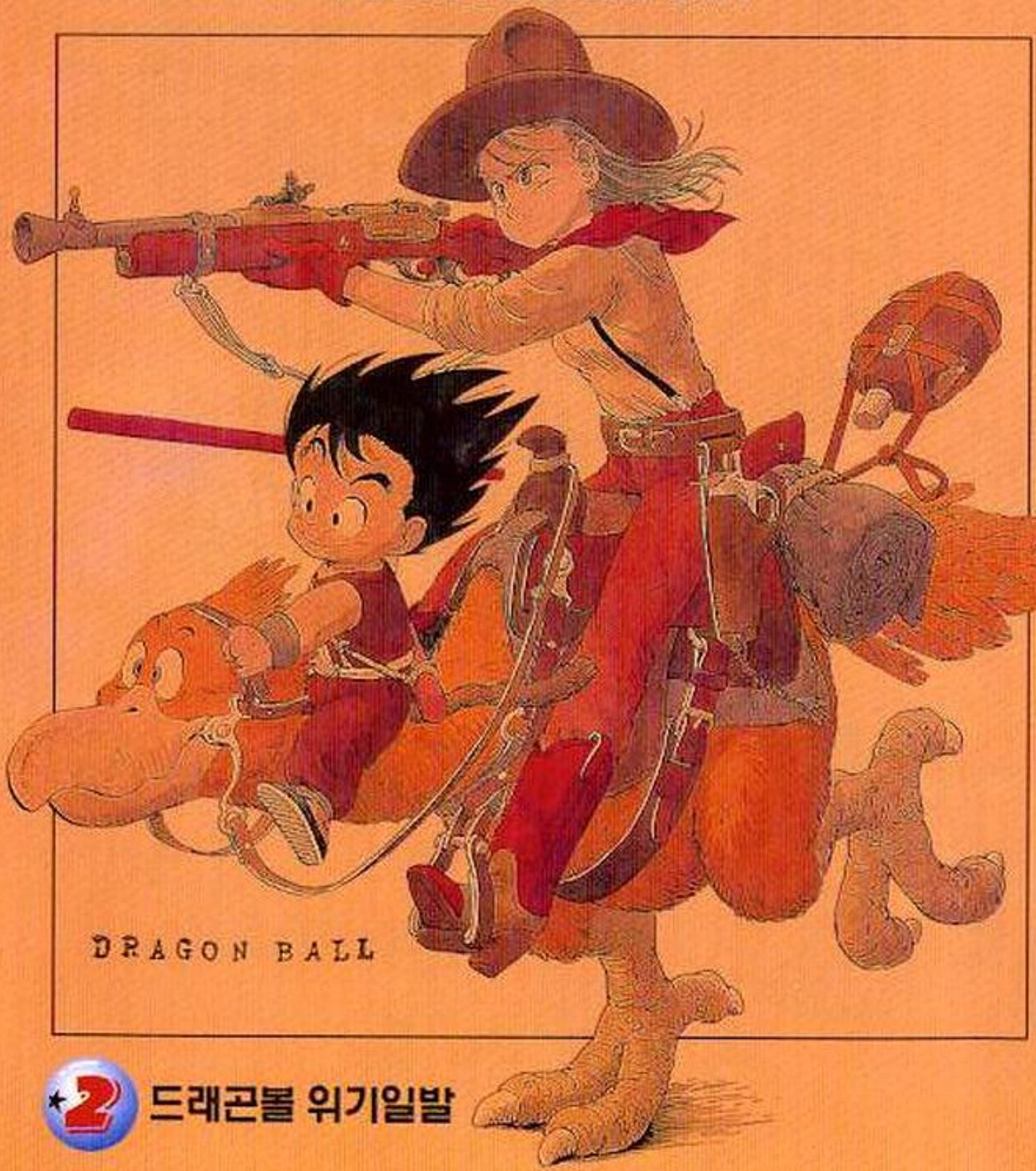
IQ JUMP COMICS

무수정 오리지널 한국어판

DRAGON BALL
드래곤볼

AKIRA TORIYAMA



2 드래곤볼 위기일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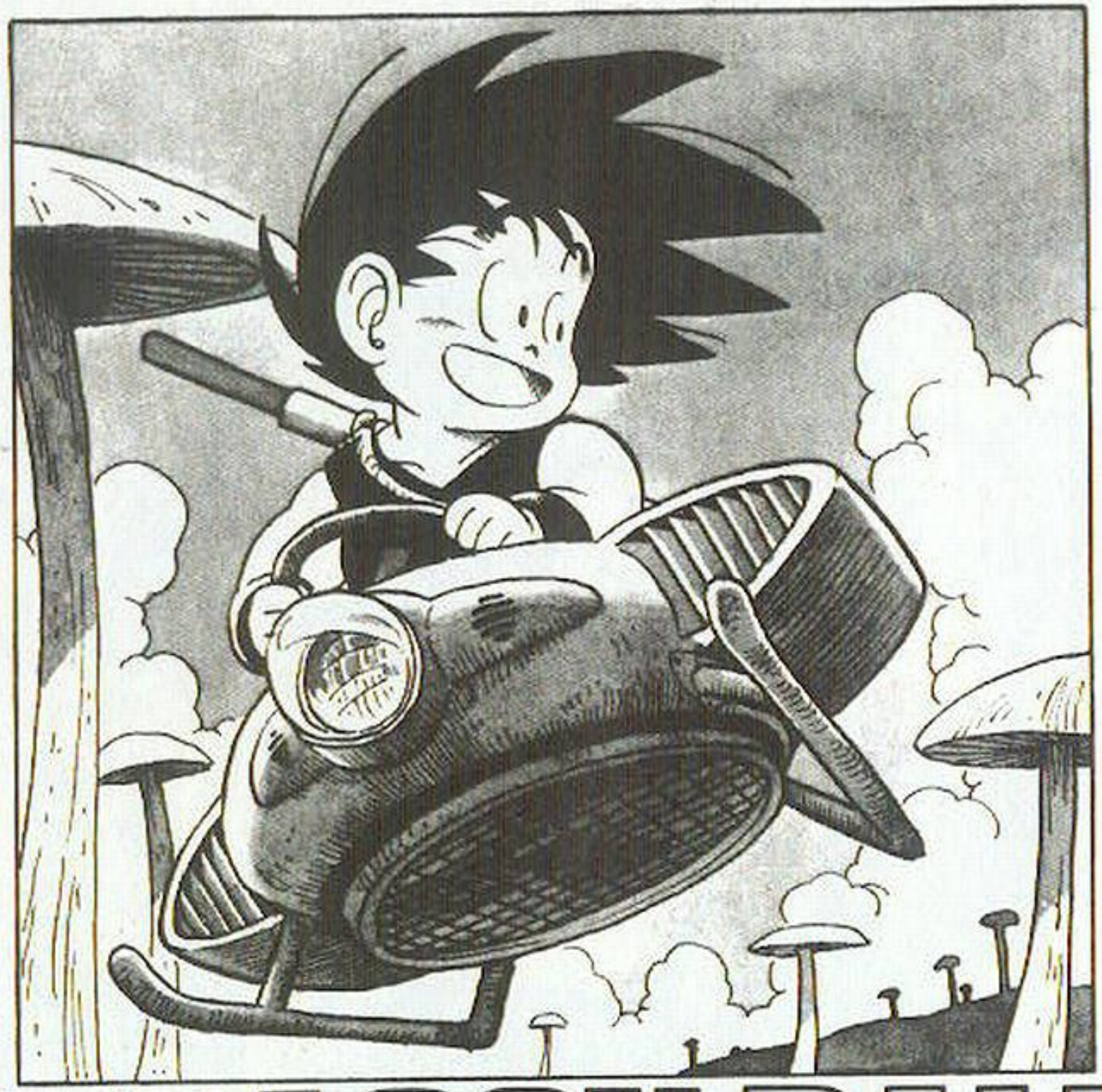
scanned by raprnb



AKIRA TORIYAMA
-토리야마 아키라-

새로운 한해를 맞이한 것을 축하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23살의 1월달에 만화계에 데뷔한 저도, 30살의 1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완벽한 만화가로 변신하게 되었죠. 아무튼 이 장사는 매우 힘이 들어서, 일이 있으면 자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고, 없으면 넋이 나가있다가 잠이나 잘 수밖에 없다..라는 상태. 바쁜 것은 아주 싫어하지만, 넋이 나가 있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anned by raprnb



DRAGON BALL

드래곤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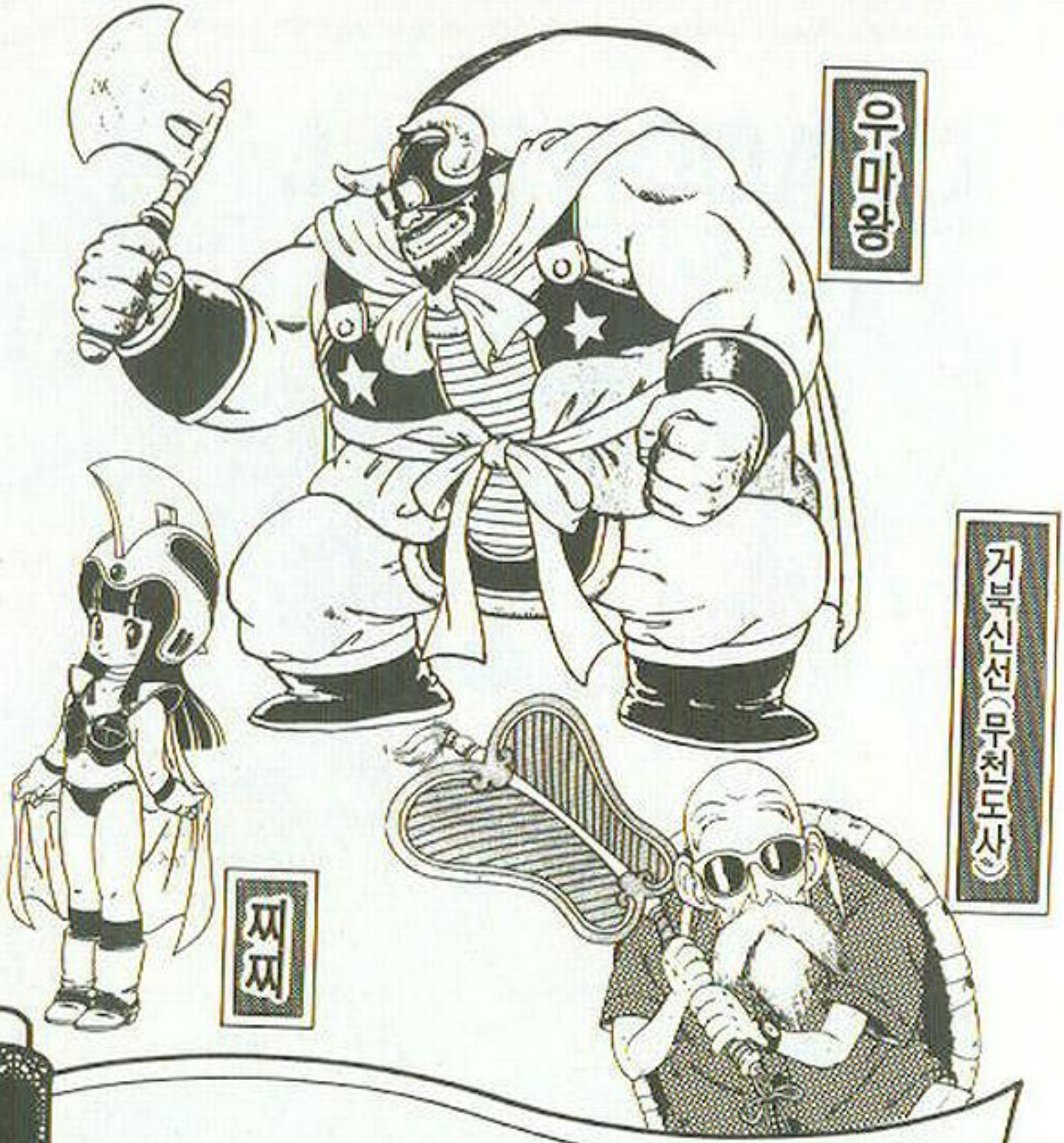
제2편 드래곤 볼 위기일발

AKIRA TORIYAMA

SC

등장인물소개





지난 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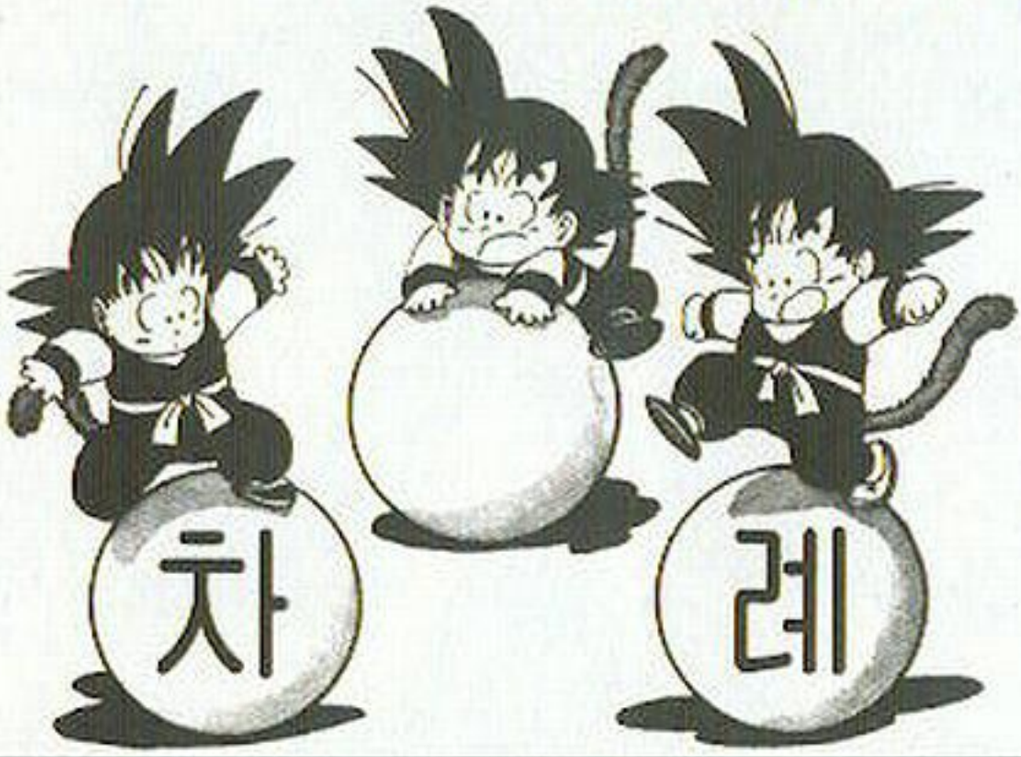
아주 먼 옛날. 어느 산속 깊은 곳에 사는 강하면서도 천진난만한 사내 아이 손오공은, 드래곤 볼을 찾아서 여행하는 부르마와 만났다. 드래곤 볼이란 7개가 모여지면 용신이 나타나서 한 가지 소원만을 들어준다는 신기한 구슬이다.

구슬이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드래곤 레이더에 의지하여 두 사람의 대모험이 시작되었다.

거북신선 할아버지와,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오공, 강하지만 여자한테 엄청 약한 황야의 악당 야무치와 푸알…. 여러 사람과의 만남과 해프닝이 연속되었지만, 어쨌든 오공과 일행은 5개의 드래곤 볼을 손에 넣었다. 그런데, 마지막 6개째의 드래곤 볼은 불타고 있는 후라이팬 산에 있다는데…!?

DRAGON BALL 2

드래곤 볼 위기일발



제12화 거북신선을 찾아서 7
제13화 거북신선의 파초선 22
제14화 거북신선의 에네르기파!! 34
제15화 칠성구 발견 47
제16화 토끼의 귀 62
제17화 두목의 주특기 76
제18화 드래곤 볼을 도둑맞다!! 90
제19화 마침내 용이 나타나다!! 104
제20화 용신에게 소원을!! 120
제21화 보름달 134
제22화 손오공의 대변신 148
제23화 드래곤 팀 해산 162
제24화 거북신선의 수업료 176

DRAGON BALL



제12화
거북신선을 찾아서

대충 알긴 이는데.

그,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무천도사? 거북나라 할아버질 얘기하는 거야?

악마의 제왕이라 불리는
우마왕은 손오공이 타고 있는
근두운이 거북나라의
무천도사에게 받은 것이란 사실을
알고는 돌연 태도가
바뀌어지는데….

이젠 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와!

으잉?

아니? 뭐라고?
너! 무천도사 님께서
어디에 살고 계신지
알고 있단 말야?

응!!

그렇다면 네 할아버지가 손오반이란 말이냐?

어떻게 알았어? 이건 우리 할아버지한테 받은 건데.

이건 여의봉 이잖아!

괴…, 굉장한 녀석이군요.

저, 저거 봐! 역시 저 꼬마랑 우마왕이 아는 사인가봐!

아찌, 우리 할아버지를 어떻게 알아?

아니, 이럴 수가!? 오반의 손자라구!?

그, 근데 그 밝힘증 할아버지가 그렇게 굉장한 사람이었어?

우와! 손오공이 강한 이유 알 만해!

그게 정말이요?

알고 말고! 무천도사 님의 첫 번째 제자가 네 할아버지였고, 두 번째 제자가 나였다구!

하~. 정말 그때가 그립다!

최근에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무천도사 님이 갖고 계신 파초선으로 부치면 저 산의 불을 끌 수가 있대.

원데?

탁

아, 참! 내 정신 좀 봐.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너에게 부탁 좀 해야겠다.

이런 거야.

드래곤 볼? 그거 원데?

성 안에 없어?

좋아. 그 대신 드래곤 볼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말야, 근두운을 타고 접싸게 날아가서 파초선을 좀 빌려다주지 않을래?

처음 본다…. 드래곤 볼이 저렇게 작은 거구나…?

배구공만한 줄 알았어….

와아!

불만 꺼준다면 그딴 거 그냥 줄 수 있지!

아—! 그러고 보니 본 적이 있어.

아! 잠깐만 기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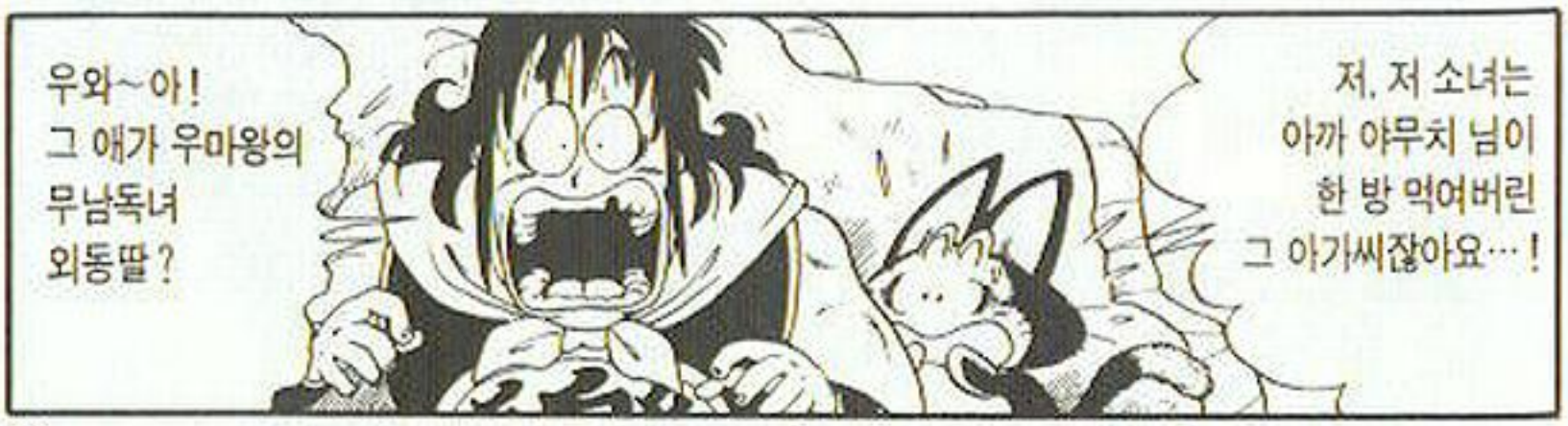
자, 그럼 총알같이 갔다 올게!


찌찌?
한참 가는 중일 거야.
그러니까 가다 만나면
찌찌도 같이
데려가줘라.
실은 이렇게 일이
잘 풀릴 줄 모르고,
어제 내 외동딸 찌찌한테
무천도사 님을
찾아보라고
심부름 시켰거든.


옳지!
이게 찌찌
사진이야.


푸훗!
시집?
겁은 많아도
내 귀염둥이야.
너라면 시집
보낼 테니까!


으잉?
야!
굉장한
미인인데!!??
개를 데려가면
되지?


우와~아!
그 애가 우마왕의
무남독녀
외동딸?
저, 저 소녀는
아까 야무치 님이
한 방 먹여버린
그 아가씨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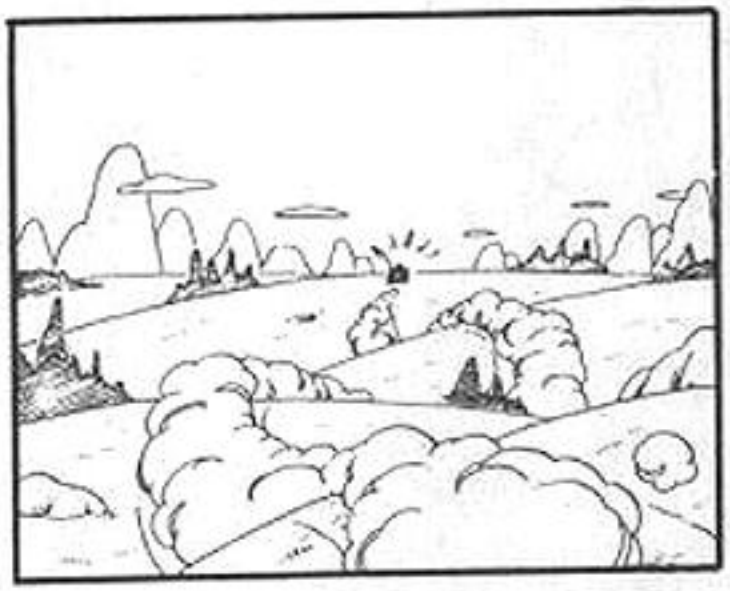

부릉부릉
크, 큰일났다! 이대로라면 나를 죽일지도 몰라. 빨리 무슨 수를 써야 해!
있다! 바로 저기야!
이봐요! 찌찌 씨!
정신 차리세요, 아가씨!!
끼이이익
파ㅅ
으…, 음….
휴.
우앗!


잠깐요, 찌찌 씨!
엥!?
어떻게 내 이름을….
그, 그런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보다도 아깐 폭력을 써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만….
예에엣? 나를 사… 사랑한단 말예요?
…에 그게….
그게 정말예요? 거짓말 아니죠…?
정말이구 말구요. 이 심각한 얼굴을 보세요.
어머나—! 이가 빠졌네…? 자세히 보니 웃기게 생겼다.
…! …!
야무치 님! 화가 나도 참으셔야 됩니다.

부릉부릉

크, 큰일났다!
이대로라면 나를
죽일지도 몰라.
빨리 무슨 수를
써야 해!

있다!
바로
저기야!



정신
차리세요,
아가씨!!

이봐요!
찌찌 씨!



휴.

우앗!

으…,
음….


어떻게
내 이름을….
엥!?


잠깐요,
찌찌 씨!
상


예에엣?
나를 사… 사랑한단
말예요?
…에
그게….


그보다도
아깐 폭력을
써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 그런 게
뭐 중요
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만….


정말이구
말구요.
이 심각한
얼굴을
보세요.
그게 정말예요?
거짓말
아니죠…?


어머나 —!
이가 빠졌네…?
자세히 보니
웃기게 생겼다.
…!
…!
아무치 님!
화가 나도
참으셔야
됩니다.


Hi
이?

맞아! 주간지에서 읽은 적이 있어.

사랑하면 두 사람은 데이트라는 걸 하고….

그리고 손을 잡고….

큰일났다! 놈이 오잖아!!

아니!

그치만 난…, 사랑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봐.

부우우웅

일단 후퇴다!

어머?

아잉, 몰라~.

부끄러워잉~.

엉?

아! 알았다. 저 사람도 부끄럼쟁이야.

어떻게 하지?

가버렸잖아!

오늘은 내 이름이 많이 불리는 날인가봐.

그… 그렇긴 한데…. 넌 누구니~?

이봐!

네가 찌찌 맞지?

엇?

?

?

아, 맞아!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

이봐! 네가 우마왕의 딸 맞아?

우리 아버질 어떻게 알고 있지?

부탁을 받았거든.

파초선이란 걸 빌리러 가는 데 도와 달라고 말야.

어머, 정말이니?

자, 근두운으로 데려다줄 테니까 빨리 타.

그 솜털구름 위에 타란 말야!

저기…, 근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탈 수 있어.

그건 염려 마. 수세식 변기처럼 깨끗하니까.


!!
꽉
빨리 타!
으랏차.
꽈당
어? 왜 그래?
아이고 힘없어
후줄근~...
탔다!
나도 잘 몰라!
어머나! 너 왜 꼬리가 달린 거야?
꼬리는 잡지 말아줘. 난 꼬릴 잡히면 힘이 없어져버리거든.
어떻게 된 거야?
아야야 ....
이기는 건 시간문제군요!
녀석의 약점은 바로 꼬리다!
후후훗, 뜻밖에 좋은 정보를 얻었다.

휘익—…

꽉 잡아!

엄마야!

있어

이거 굉장히 빠르지?

여기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

녀석들은 분명히 6개째의 드래곤 볼을 손에 넣을 거야.

이제 우린 어떻게 하죠?

그리고 7개 째의 볼을 찾아서 떠날 때 우린 다시 미행을 하면 돼.

이 몸이 낭아풍풍권으로 볼만 뺏어오면 돼.

후홋! 7개째의 드래곤 볼을 손에 넣는 순간….

히——유

야!
난 치과라면
딱 질색이야.

야무치 님!
시간 있을 때
치과에
한번 가봐요.

제길!
손오공
녀석 때문에….

!!

팡팡

……

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텅

왁!!

……

역시
고추가
없구나!

까아악!



아얏!!
퍽
꽈당
손오공이 내 딸을 잘 만났나 모르겠다.
에잇, 부러워. 내가 가야 하는 건데.
팡팡만 안 하면 좋겠는데 ….
앗따따!
…….
그렇게 화낼 것까진 없잖아!
네가 한 행동을 생각해봐.
화끈
손오공은 무심코 한 짓이지만…. 그러나 소녀는 생각했다. 이젠 이 소년에게 시집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자기…. 후훗!

바다가 너무 넓어 거북신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볼까?

여봐.

거북신선 할아버지네 집 아니?

산에서 보기 힘든 사람이네….

물론 알고 있지. 저쪽으로 조금 가보면 작은 섬에 살고 계셔.

화끈

에? 지금 한 말 무슨 뜻이야? 자기라니?

슈—슉

땡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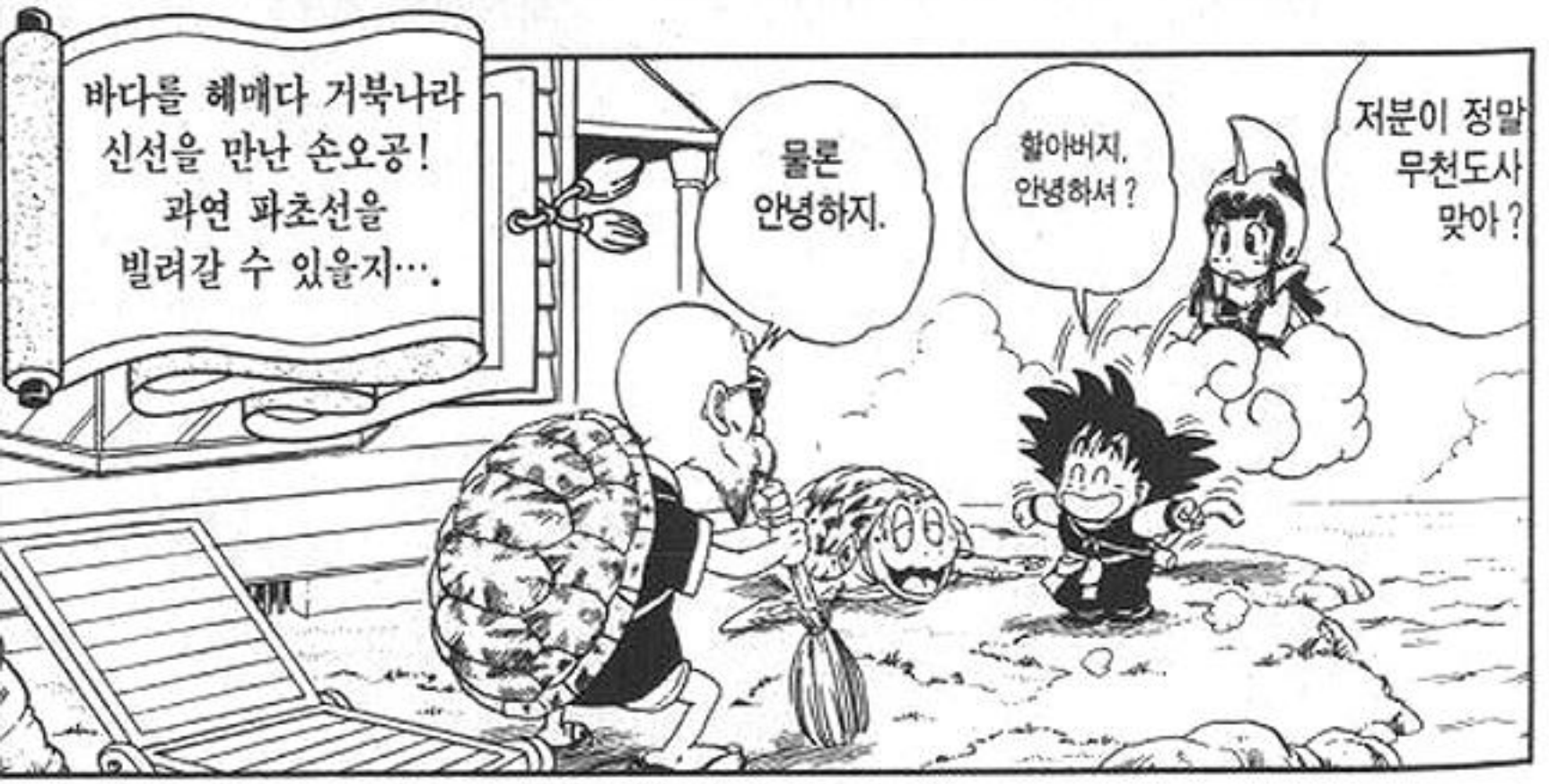
아, 맞아! 집이 보여!

저건 아닐까?









⬅ 다음은, 제13화 거북신선의 파초선

후라이팬 산의 불을 끌 수 있다는 파초선을 빌리기 위해
거북신선(무천도사)의 집에까지 오게 된 오공이지만,
과연 파초선을 빌릴 수 있을지….

암, 당연하지.
신에게 하사받은
멋진 구름이니까.

할아버지한테
받은 근두운은
잘 타고 다녀.

KAME HOUSE




꾸벅
찌찌라고 해.
뭐라고? 우마왕의 딸? 정말? 정말?
얘는 우마왕의 딸이거든!
아냐, 할아버지.
…!
그렇 대두.
얘! 저 할아버지 진짜 무천도사 맞아?
무슨 이름이 그러냐?
으~음!
진짜라면 멋지게 피할 수 있을 거야.
?
쳐면~ 저 소녀의 가슴에도 찌찌가 있단 말인가?
쩍
그래? 그렇담 확인해 봐야겠다.
엉?
휘익
얏!



휘
잉
꺾들
야
호~옷!!!
카아하…하.
쌕뚝…
부들부들…
카하핫!

이걸 어때?
괘…, 괜찮습니까?
으아아~ 앙!
이 사람은 무천도사가 아니잖아!

아니, 진짜잖아? 큰일났다.
이건 자동차 면허증이다. 이름 확인해봐.

그럼, 무천도사라는 증거를 보여줘요
야이 바보같은 꼬마야! 아무리 나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갑자기 피할 수가 있겠니!?

오공! 난 저 꼬마 싫다!
제가 좀 성질이 급해서….

욱!
꾸우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할아버지!
파초선이란 거 갖고 있지?

아, 참! 깜박했다!
무슨 용건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너희들….

한번 부치면 태풍을 일으키고,
두번 부치면 벼락을 일으키고,
세번 부치면 소나기를
부르는 굉장한 부채잖아!

뭐라꼬, 파초선?

금방 돌려드릴 테니 빌려주세요.
후라이팬 산의 불을 꺼야 돼요.
그걸 좀 빌려 주세요.
내가 갖고 있긴 하지. 근데 그 부채를 왜 찾는다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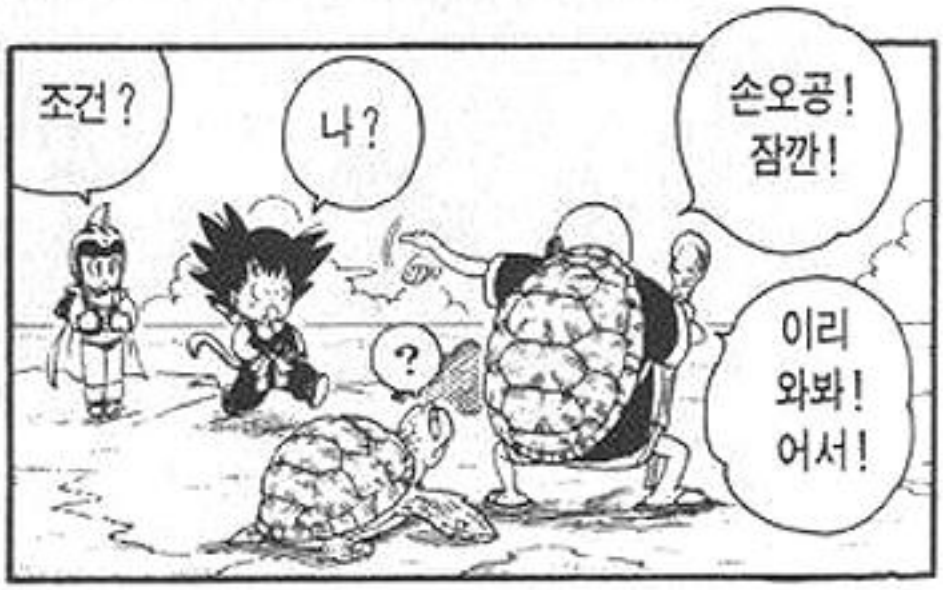
소문으로 들은 적은 있지. 그래, 그래. 파초선이라면 끌 수 있을 거야.
으~음. 후라이팬 산의 불을 꺼야 된단 말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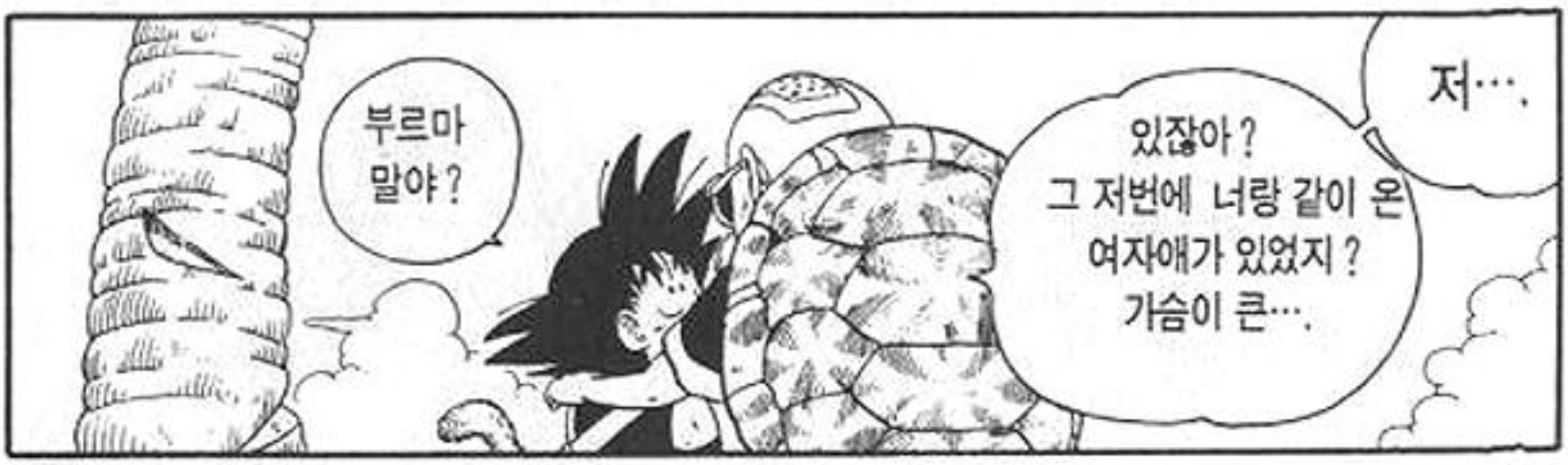

대체 뭘 맘설이는 거지?
빌려주시는 거죠?
부탁 해요
……


조건이 있어!
다만….


야아-. 할아버지 만세!
좋아! 빌려 주겠다!


파초선을 빌려줄 테니….
뭔데?


조건?
나?
손오공! 잠깐!
?
이리 와봐! 어서!


부르마 말야?
있잖아? 그 저번에 너랑 같이 온 여자애가 있었지? 가슴이 큰….
저….

그 조건이라는 게 말야.
부, 부, 부, 부르마의
가… 가슴을 조금….
괜찮겠지?

거 있잖아….
거….
말…이… 야….
말야…. 말야….
그러니까….

뭐 그리
까다로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곧 죽을 사람에게
선물하는
셈치고….

에이,
정말
한심한….

쉿!
쉿!

큰소릴
내면 다
듣잖아!

대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신선님,
그 조건은….

?

그거링
이게 무슨
상관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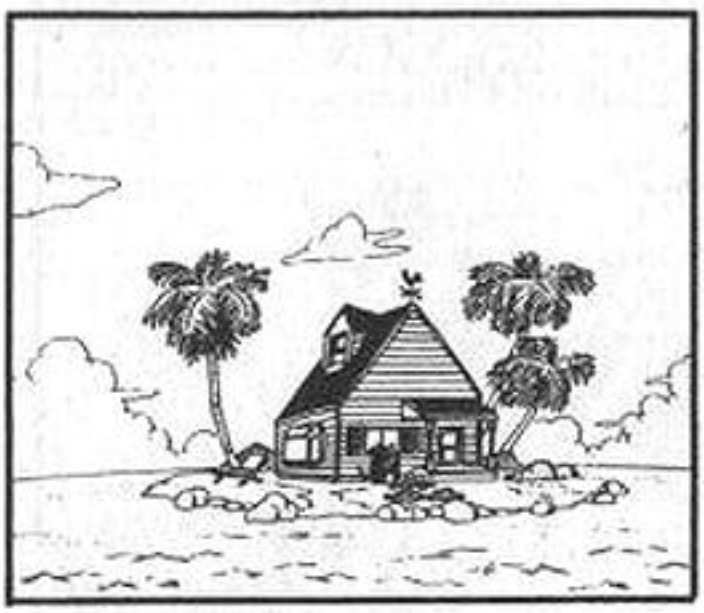
뭐가 곧 죽을 사람에게
선물예요?
신선께선 늙지도,
죽지도 않는 악을
드셨잖아요!

고맙다.
날 이해해
줘서.

부르마의
가슴 좀
만지는 게
뭐 어때서.


파초선을
갖고 오마.
그럼, 좋아.
찌께 기다려.


지금 한 말은 찌찌에겐
비밀이야, 옹?
우마왕이 알면
쪽팔리니까.
응,
알았어.
오호호--.




아, 됐어.
얘긴 벌써
끝났다구.
조건이란 게
뭐예요?
할아버진
이상해.


내…,
냄비
받침…?
계속
냄비 받침으로
써왔잖아요.
이상하네….
거북아, 파초선
어디다 뒀는지
몰라?


그건 찌개 국물이
넘쳐서 더러워져
버렸는걸!
그, 그게
파초선이었단
말야?
큰일났다!


드래곤 볼도 이젠 끝이다.
엉엉엉! 이젠 불은 다 껐어!
버렸어요?!!
에~엑!?
아니, 무슨 벌을 받으려고….
렇게 된 이상 가 직접 가서 라이팬 산의 불을 주겠다.
좋아!
그 대신 부르마한테 내 얘기 전하는 거 잊지 말아야 해? 알았지?
았어, 았다구!
KAM HOU
할아버지가 그런 것도 할 수 있어?
예~엣?
당연하지. 이 무천 도사에겐 불가능이란 없다.



아니, 뭐…. 그냥 예쁘게 보이려고….
뭐 하러 옷은 갈아 입은 거야?
좋았어!
자, 그럼 가자.
KAME HOUSE
새끼 거북!
나와랏!
핫핫핫! 난 도사다!
그치만 할아버진 근두운에 탈 수도 없잖아. 어떡하지?
텅
휘리——링
우후후!
앗!
도사님, 부르셨어요?
엉금 엉금

거북아!
집 잘 지켜!

알았어요.
제발 위엄있게
행동하세요.

예잇!

후라이팬
산으로
출발!

좋~아!
그럼
출발이다!

그럼 우린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휘—

휘—

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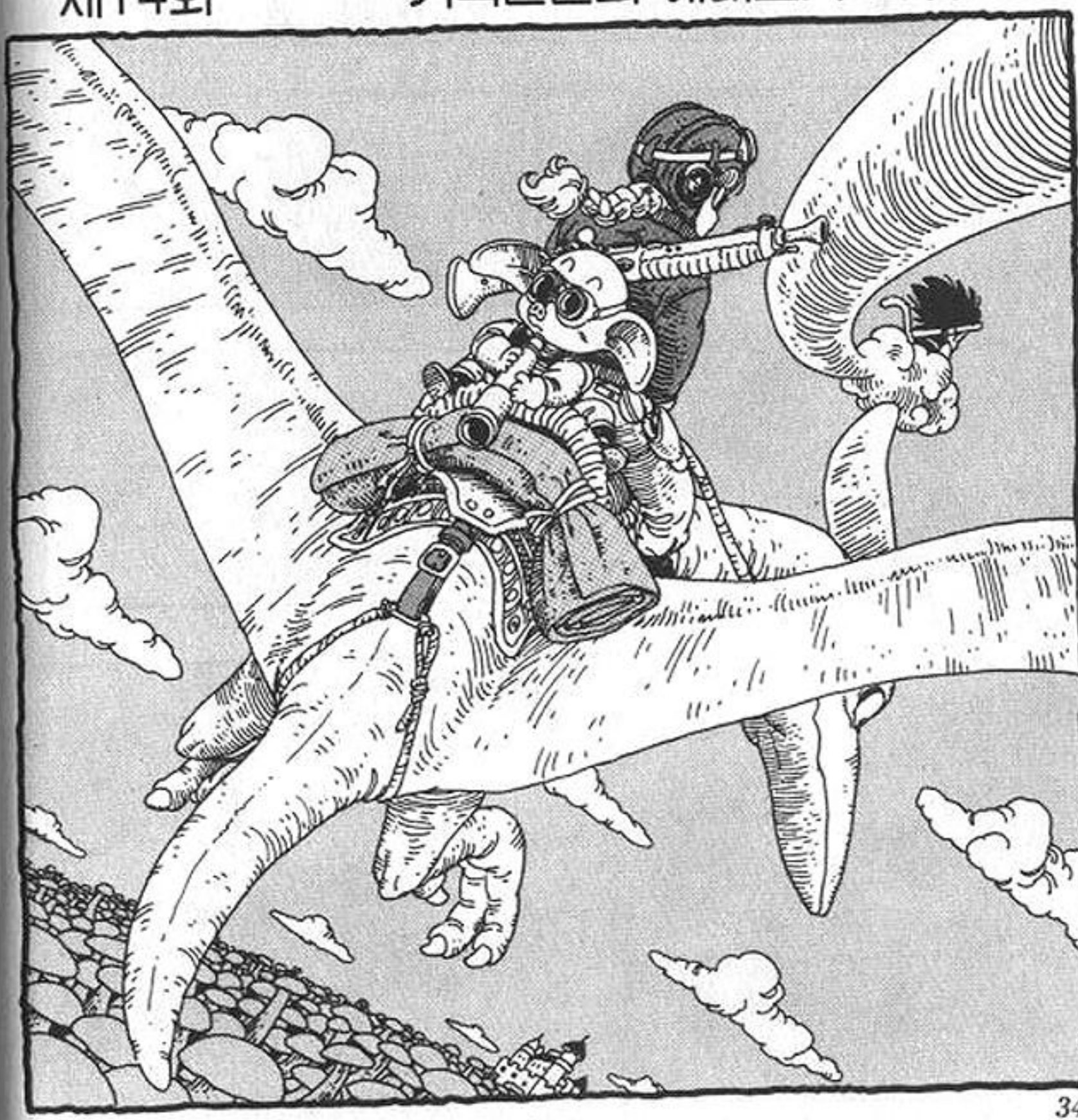


⬅ 다음은, 제14화 거북신선의 에네르기 파!!

ドラゴンボール

DRAGON BALL

제14화 거북신선의 에네르기 파!!



후라이팬 산불을
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파초선.
그러나 이를 없애버린
무천도사는 그 대신
자신이 불을 끌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단지 엉큼한
조건은 하나 있지만….

활활

우마왕!

이것 봐.

예?
사부님,
왜 그러세요?

으음….
이곳이 후라이팬
산이란 말이지?
굉장한걸….

할아버지!
정말 저 불을
끌 수가
있어?


옛?
예…. 전부 알고 계셨군요.
자기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라곤 하지만,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죽여도 되나?
자네 요즘 소문이 좋질 않아.
뭐 버릴 것까지야…. 아까우니까.
불만 끌 수 있다면 보석 따윈 버리라면 버리겠습니다.
정말 면목 없습니다. 그만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건 그렇고…. 저 정도 불이라면 간단하지….
아니, 우마왕이 쩔쩔매고 있잖아….
오공!
너….
아까 한 약속….
엥?
탁 탁
아, 그거 말야?

잠깐만 이리 와봐.
다른 사람은 거기
그대로 있고.

?

무슨
일이지?

뭐,
나한테?

저기, 있잖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부탁이 있대.

콜록

콜록

뭐?

?

?

저, 그러니까 말야.
할아버지가
네 가슴을 한번….

저…, 저….
꼬마야,
네가 말해라,
응?

불이 꺼지지
않으면 그 뭣이냐.
무슨 불인지
뭔지도 찾을 수가
없잖아.

아니, 뭐라구!?
무슨 소리하는 거야!
내가 왜 그런 당치도
않은 짓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불은 끌 수
없을 것만
같아서….

난 여자 가슴을
만져야 힘이 나는
체질이야.

저 손오공 너석,
대체 무슨 소릴
했길래
저 모양
이지…?

우웃~.
우우우~.
우우~.

조, 좋아!

다~ 만….

넌 닥치고 있어!

그게 어때서 그래? 난 아무렇지도 않은걸.

그럼 그냥 돌아가 버릴까?

아무리 당신이 무천도사이고 굉장한 분이라도 저 불을 끌 때까지는 난 믿을 수 없어.

좋아! 그럼 꼭 약속하는 거야, 응? 거짓말 하면 알지?

새끼 손가락까지 걸었는데 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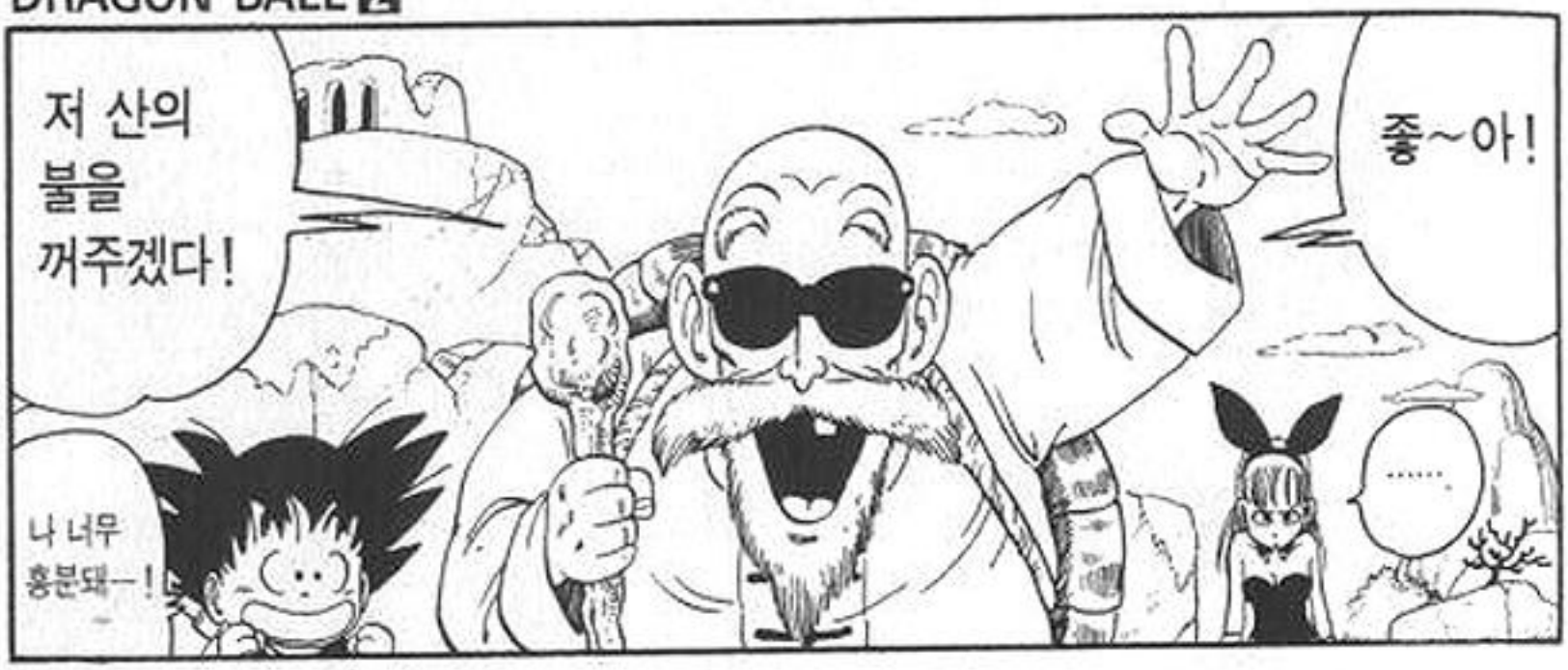
정말 엉큼한 노인네야!

그러니까 저 불을 끈 다음에 허락할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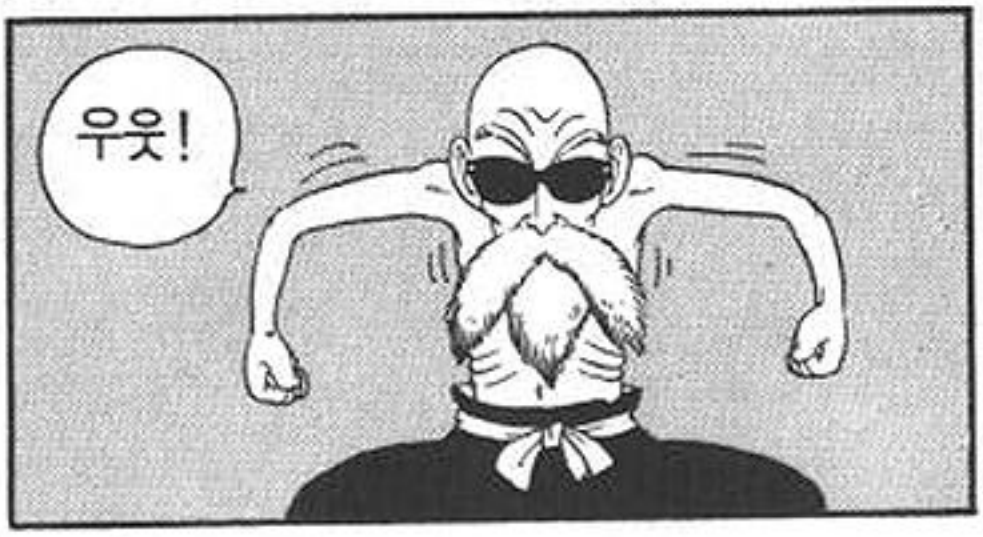
무언가 얘기가 끝난 것 같다. 그치?

… ?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 산의 불을 꺼주겠다!
좋~아!
나 너무 흥분돼—!
.....


진짜 끌 수 있을까?
으음!
잘 부탁해용.
사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웃!


시작해 볼까?
턱?.....


내 골체미 어때?
네, 꼽 좋네요

앗차차!

조마, 조마.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몰라…

으랏차차차! 끼잉~!

조심해, 할아버지.

시작이다!

자, 그럼….

하앗!!!

우우~.


ワナだ…!!

흐애~액!

저건?
나왔다!
에네르기
파다!

몸 속에
잠재해 있던
에네르기를
응축해서…,
한꺼번에 방출해 내는
무천도사만의
특기야!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볼 수가
있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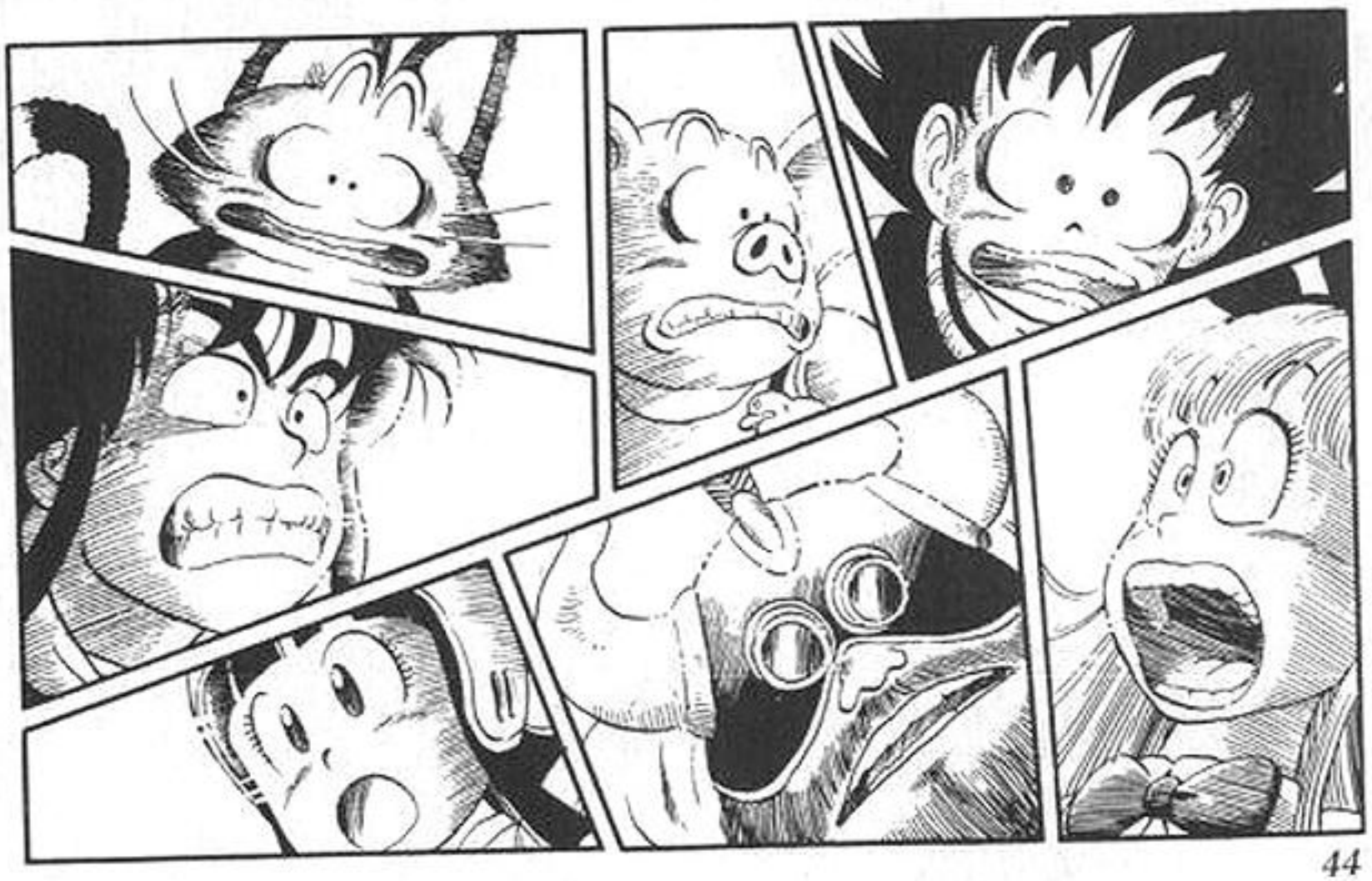
「에…
에네르기파」
…!

굉장하다!
야, 야무치 님!
「에네르기파」란 게
대체 뭐죠?

에….
네….


ㄹ….
기….
ㅈㅇㅇㅇ
ㅍㅏ





휴우~.

끄긴 껐구나,
그쟈?

우와!
정말 괴…,
굉장하다!

또 무슨 얘기야?

부, 불은 꺼졌지만….

저…, 사부님.

앗! 없어졌다!

으잉!

그만 산도…, 성도….

…….

거북나라 신선의 굉장한 힘으로 후라이팬 산은 사라져버렸다. 성안에 있던 드래곤 볼은 과연…!

헤헷!

내가 너무 무리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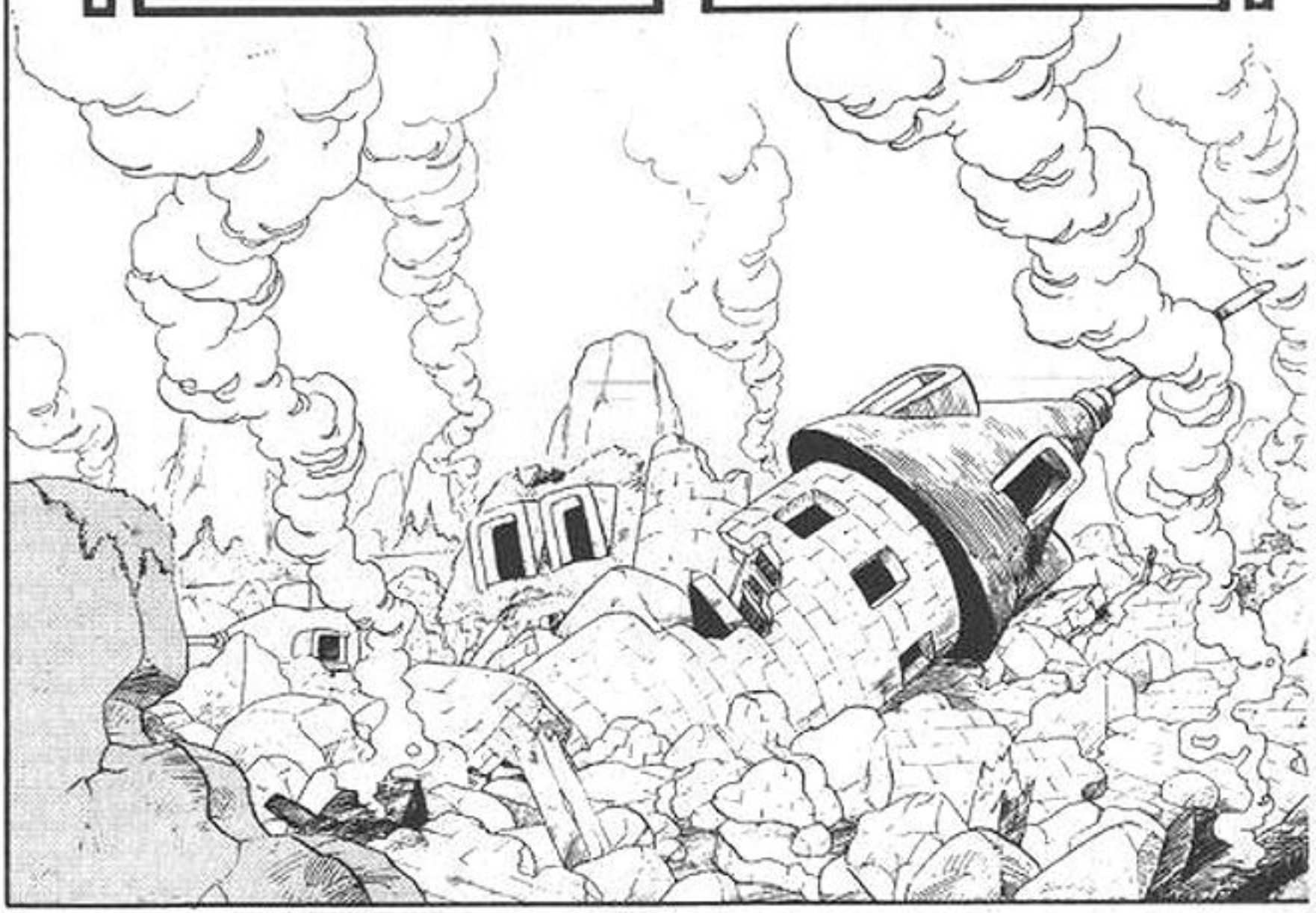
…….

←다음은, 제15화 칠성구 발견



제15화
칠성구

후라이팬 산의 불을 끄기 위해 온 무천도사는
에네르기파로 멋지게 불을 끄는데 성공했지만, 너무 위력이 강해서
산마저도 날려버렸다.
과연 성안에 있던 6개 째의 드래곤 볼은?









무슨 말씀이세요.
성은 다시
지으면 돼요!

정말 미안하네.
성까지
부숴버렸으니….

불이 꺼져
시원해졌다.
여기도 다시 살기
좋아질 거야.

할아버지,
나도
가르쳐줘!
응?

굉장한
기술이네!

……

무천도사라 했지?
정말 무서운
영감이야.
도저히 상대가
안 돼.

으—음.
그러니까….

50년
이나….

후후훗!
그건
무리다.

에네르기파를
습득하려면
50년은
수련해야
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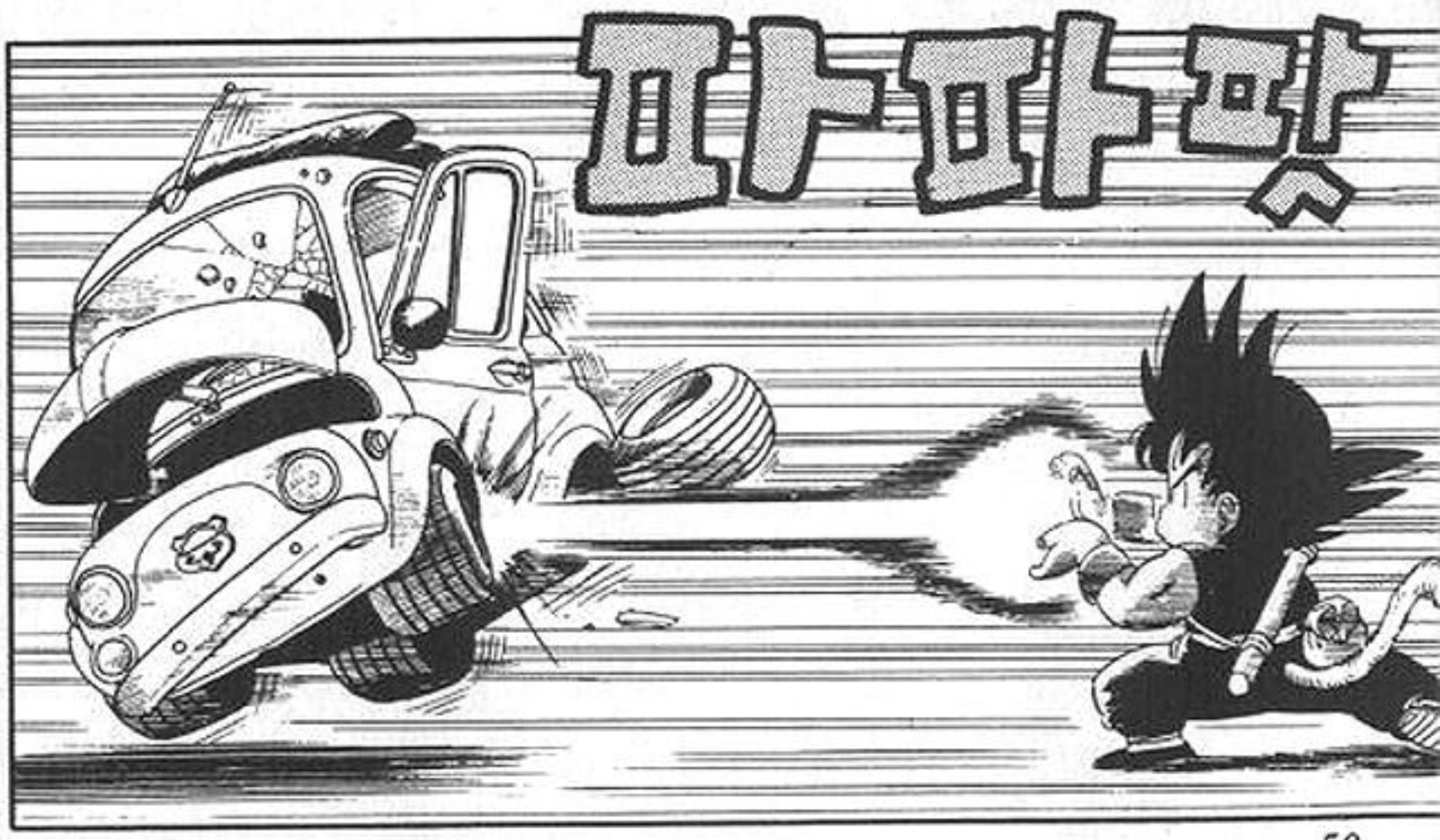
아니다.
난 혼자
사는 편이
더 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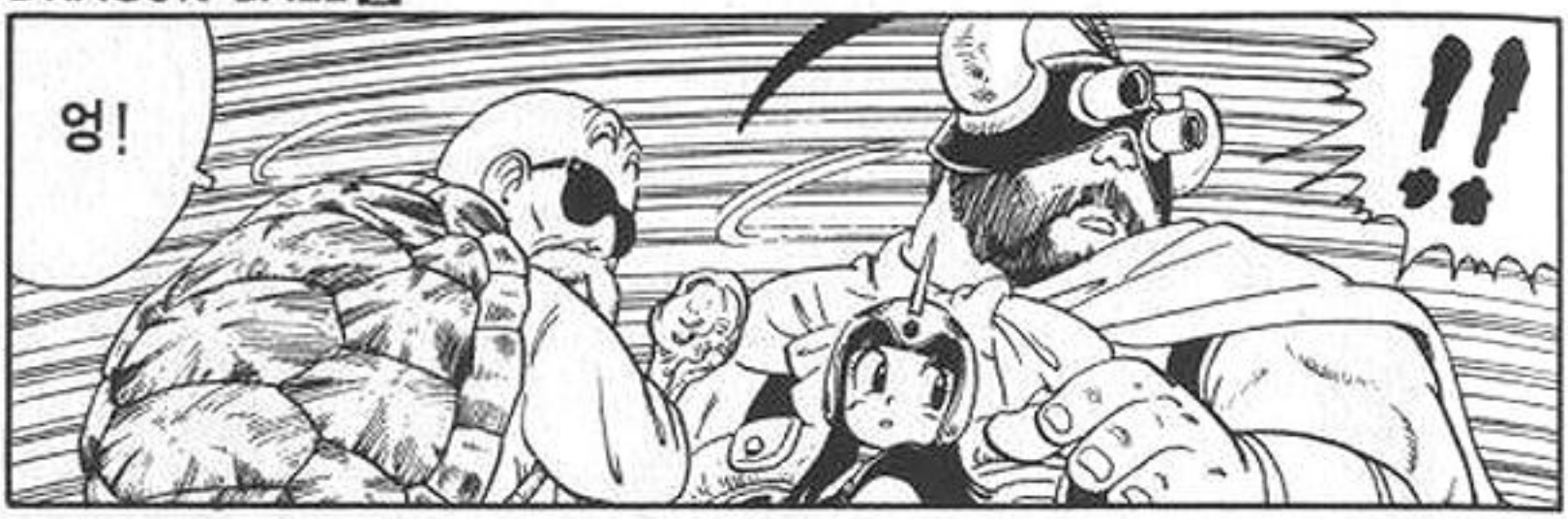
사부님.
저희와 여기서
같이 사시지
않겠습니까?

야-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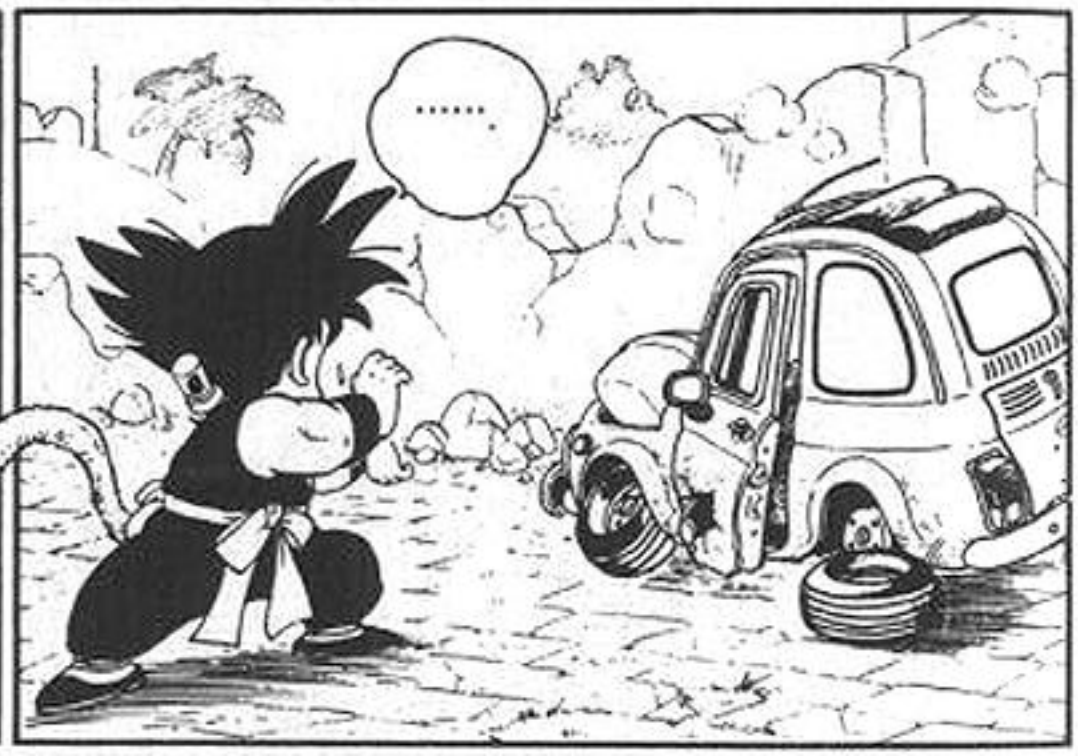
핫!

우~.




엉!
!!


나왔다…!
나….


……


그럼 사부님은 모르고 계셨단 말예요?
그랬군….


과, 과연 오반의 손자답군….
괭장하다.
그렇지만 할아버질 따라 가려면 아직 멀었는걸—!
뭣이? 오반이라면 손오반 말이냐?

상당히 수련을 한 폼이군.

후후후…. 저 모습을 보니….

그러고 보니 예전에….

오반한테서 꼬리 달린 아이를 주워서 키운다고 들은 적이 있어.

어떡하지? 차를 못쓰게 했으니….

애야, 오반 할아버지 안녕하시냐?

할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어.

아니, 뭐라꼬? 도, 돌아 가셨다고? 아까운 인재를 잃었구나….

애야, 우리집에 나랑 같이 가지 않으련? 잘만 수행하면 날 능가할 수도 있겠는걸.

정말?

그렇담 드래곤 볼을 전부 찾으면 곧 갈게.

저 꼬마, 역시 굉장한 녀석이었네요….

무천도사는 웬만한 자가 아니면 제자로 삼질 않는데…. 저 녀석을 제자로 삼으려 하다니….

그렇지만 녀석들에게 준 무선차는 부서져 버렸는걸요!

들키지 않도록 살짝 미행하면 돼.

야무치 님, 이제 드래곤 볼은 포기해야 겠는데요?

어림없는 말씀…. 저 녀석은 꼬리를 세게 잡으면 힘이 빠져버리는 걸 몰라서 그래? 그게 약점이란 말야.

1, 2, 3, 4, 5… 6….

야! 칠성구다! 별이 일곱개야!

야호! 있다!

허허! 칠성구를 찾은 모양이다.

만세!

만세!

앞으로 어떡하지?

엉망이 되었잖아?

이, 이거 왜 이래?

미안해.

호이포이

호이!

정말요?

자동차라면 내 걸 줄게.

BOOM!

우와!!

찌끔 낡았지만 상당히 빠른 거야.

이제 마지막 드래곤 볼만 찾으면….

나도 여기 타고 가야지.

삑

정말 고마워요.

아, 멋져!

서쪽이다! 좀 멀긴 하지만….

이야!

이 근처는 아니고…. 좀 더 확대시켜 보자.

삐삐삑

가만 있자….

엑!?

야!!

잠깐!

혜혜혜…. 안 까먹고 있었구나…?

중요한 약속인데.

뭐 잊어버린 거 없수?

자, 여러분! 고마웠어요.

그럼 안녕히….

바이! 바이!

오홍! 잠깐만….

나?

조, 좀만 기다려줘.

끄덕

잠깐이면 돼.

뭔데?

?

실은 말야….

후라이팬 산의 불을 꺼주고 드래곤 볼을 찾게 되면 가슴을 만지게 해주겠다고 저 영감한테 약속했거든.

뭐?

무슨 그런 끔찍한 농담을….

나하곤 상관없는 일이잖아. 나한테 시키는 건 정말 너무해.

으잉!!

너, 나로 변신해서 대신 좀 해줘야겠어.

그래~?

그렇담 삐-, 삐- 알지?

……

넌 아마 편하게 죽진 못할 거야.


뭐 하는데 이렇게 늦냐…?
두근 두근 안절 부절 꾸악 꾸악 꿀꺽…
저~. 대체 무슨 일이죠?
엉? 아… 아냐! 아무것도….
?
BOMB!
자, 어때?
야, 내가 이렇게 호박이냐? 잘 봐, 날…!
정말 귀찮게 구는군!
자, 그럼 이건 어때?
이젠 완벽 하지?
아, 정말 놀랍다. 웬 여배우가 여기 또 하나 있나 했어.
잘도 지껄이는 군.
됐어요!
까딱 까딱

미안 해용~♡

이렇게 애태울 수가 있어?

아휴~, 저렇게 늙은 할아버지가 니보다 더 이해.

사사~~~ 삭!!

빨리 이리 와봐…!

헤헤헤헷…

자…, 자아….

투근 투근

아이~. 순진하시긴~. 만져보는 것만으로 돼용?

잉?

뭐… 뭐…? 얼굴을? 가슴에?

얼굴을 대보는 건 어때요?

이 두 가슴에 얼굴을 묻고….

휴

으~ 으왓-! 가슴에….

뭉게 뭉게 뭉게 뭉게 뭉게 뭉게 뭉게 뭉게

어때요?


파앗!
빼꼼
자!
바보같은 녀석!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가만가만~
중얼중얼
에이 모르겠다!
우웃!
우웃!
우와앗!
다시 한번만 더!
우웃!
어리둥절
바보야, 정도가 너무 지나쳤어!
이상한 여자로 오해 받잖아.
아…. 난…. 너무 행복해.
살아있는 게 다행이야.
퍽
끝났나?
저~. 있잖아, 오공!
우리들 좀 더 크면….
날 신부로 달라고 올 거지?
엉? 뭘 얻으러 오는데?
아잉~! 잘 알면서 그러네.
무슨 소린지 잘은 모르겠지만.
준다면 얻으러 올게.

꼭 와야 해.

또 오게나!

부앙앙앙

안녕히 계세요!

자, 그럼!

음냐~. 음냐~.

끼끼끽...!!

아닛!

자-. 우리도 출발이다!

피융---%



◀ 다음은, 제16화 토끼의 귀

이제 남은 드래곤 볼은
앞으로 하나!!
오공, 부르마, 오룡 일행은
마지막 하나를 위해
서쪽으로 향했다….










그아——…읏
푸알! 절대 저 녀석들을 놓치면 안 돼. 알겠지?
알았어요.
후훗!
이제 마지막 남은 드래곤 볼이렸다?
와글
와글
와글
20

야~.
살았다!
마을이 있어!

와-!
이젠 연료를
넣을 수 있게
됐다!

DRAG STORE

까~아악!

왜
그러지?

안녕?

寿

이곳 사람들이
널 보고 무서워
하고 있어.

뭐?
왜?

기름
가득 채워
주세요.

예?
옛!
예….

寿


나 쇼핑 좀 하고 올게. 기다려!
네, 맞아요.


사삭
……


여기서도 호이포이 캡슐을 팔까?


아, 여기다!
캡슐 파는 곳이야!
CAPSULE


여긴 나 같은 미인이 귀한가….


가득 채웠습니다.
좀 기다려요. 지갑 갖고 있는 사람이 곧 올 거예요.
무, 무슨 말씀을! 도, 돈은 필요 없습니다.
?
CAPSULE
별로 좋은 건 없네요.
죄… 죄송합니다.
CAPSULE
좋아요. 그럼 이걸 5개 살게요.
번호를 붙여서 케이스에 넣어 주세요.
얼마죠?
예? 아… 아녜요. 돈은 물론 필요없어요!


역시 미인은
어딜 가나
유리하다니까!
좋아!
그렇다면 옷도
한 벌 공짜로
얻어볼까?
헤헤.
돈 벌었네.
집 캡슐만 해도
50만원은 넘는데….




여자는
쇼핑하러 간
모양이야.


맞아.
근사한 여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으니….
펫!
언제 와봐도
여긴 시시한
곳이야.

혹시…. 토끼단의 멤버 아녜요?

저…. 저기…. 손님.

이런 거밖에 없어요?

하긴…. 좀 전의 토끼 모습보다는 낫지만….

…….

그게 뭔데요?

토끼단?

머리에 토끼 장식을 하는 게 뭐 어쨌다는 거지?

나름 봐도 이젠 별로 신경 안 쓰네….

예? 뭐요?

헷갈리게 머리에 장식 붙이고 다니지 마!


으휴-.
이제 오면 어떡해.
하여튼 여자는
시장가면
알아줘야 해.
먹을 것도
사왔어?
난 배가 고파.
미안해!
이것저것
사느라고 조금
늦었어.
여자가
돌아왔다.


뭐야, 넌?
불만이라도
있다는 거냐?
에잇!
사과 한번
맛없다.
콰앙
아…,
아녜요.
그럴 리가….


기분
나쁘게
생겼어.
저 녀석
들은
뭐야?

시끄럽게 떠들지 마!

꺄~ 아악!

퍼퍼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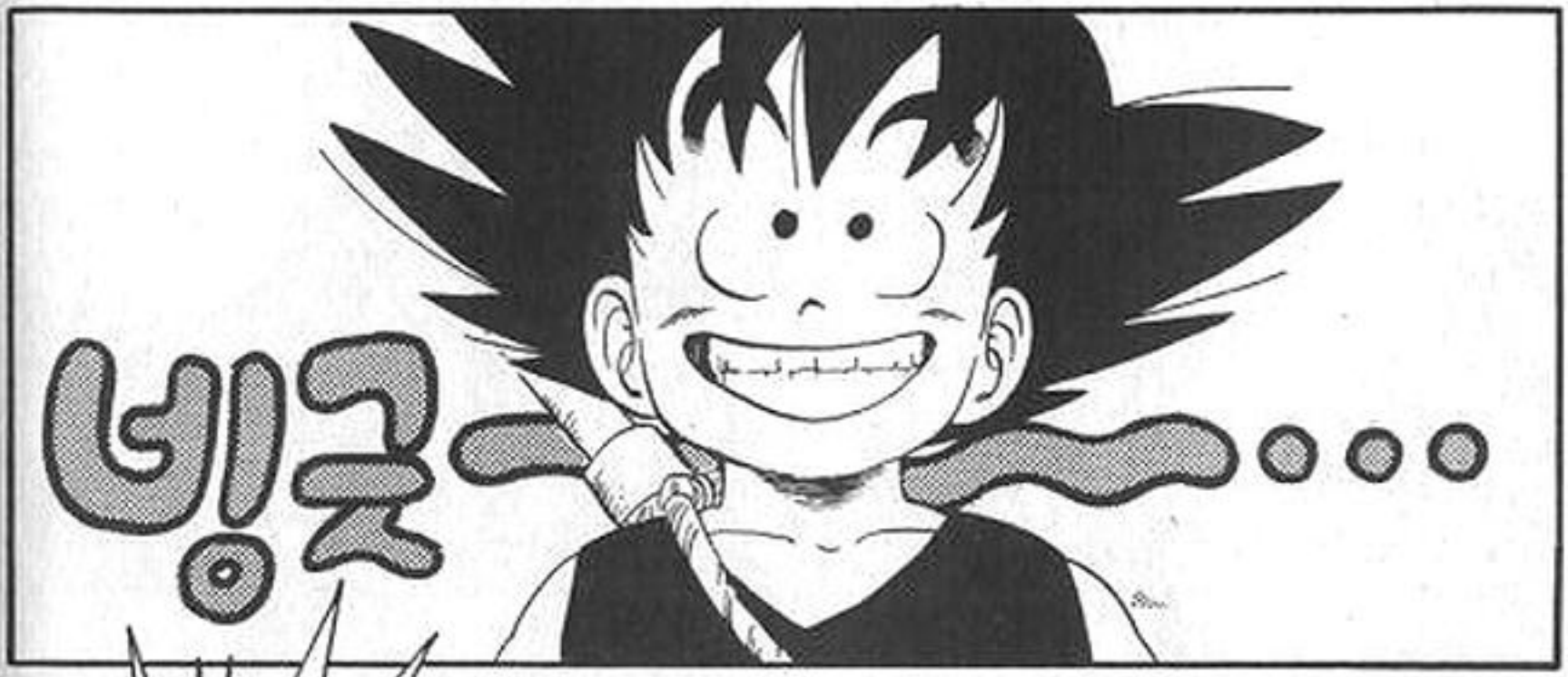

미안하지만
당신들과 얘기할
시간 없어.
자,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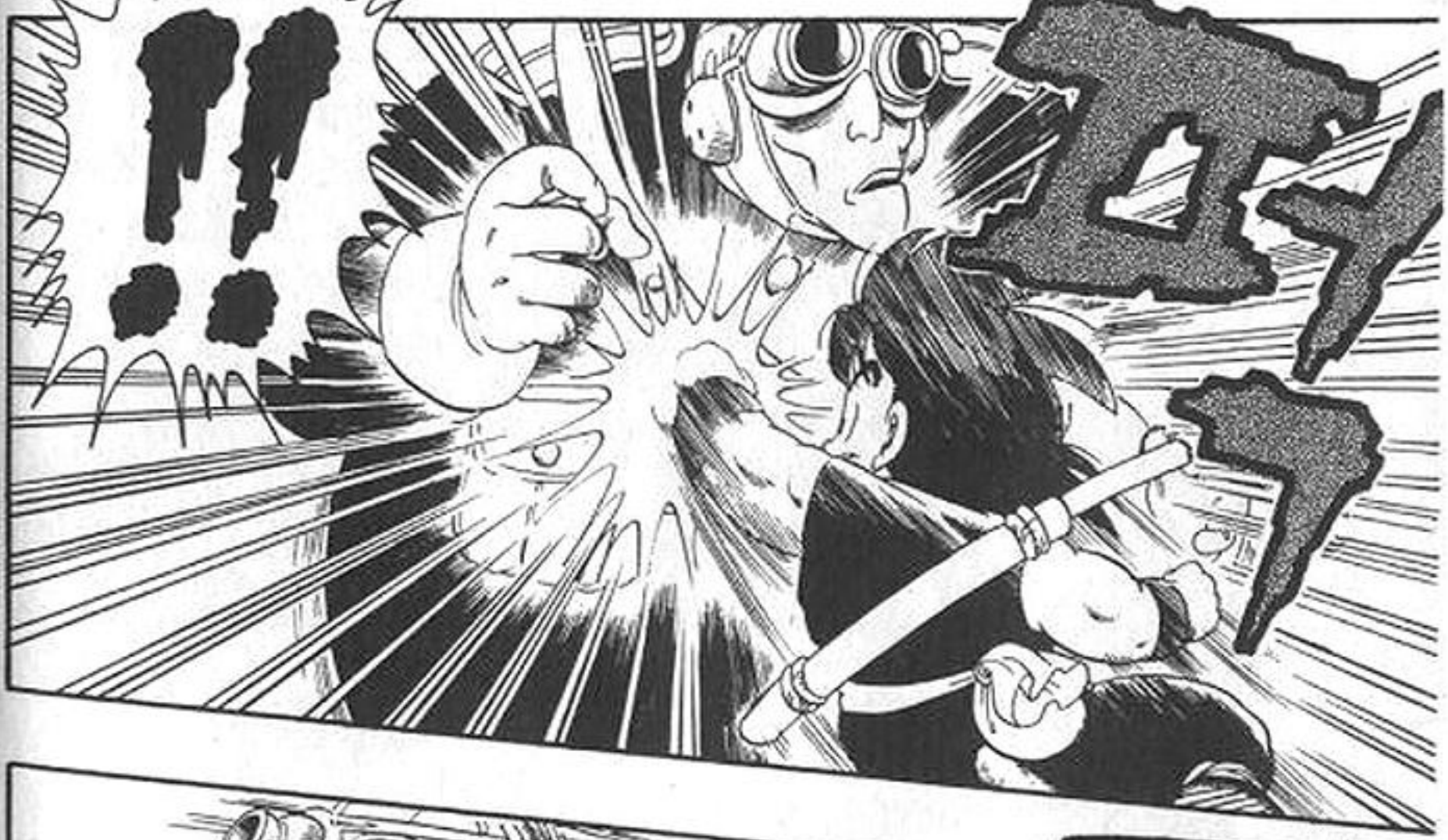

왜 모두
우릴 보고
도망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너희들,
다른 데서
왔니보지?
우리 어
그천
兎


오공!
나쁜 사람들
같으니 혼 좀
내줘라.
兎
알았어.


오래 살고
싶지 않단
말이지?


뭐야?
우릴 혼내
주겠다고?


잉?...


!!!
퍽


퍼퍽!!


탁...
한방 더 먹여라.
쬐끄만 녀석이!
이!
휘익

핫!!

얍!

퍽

정말 위험한 애야….

수고했어. 그만 가자!

아—! 오랜만에 힘 좀 썼더니 기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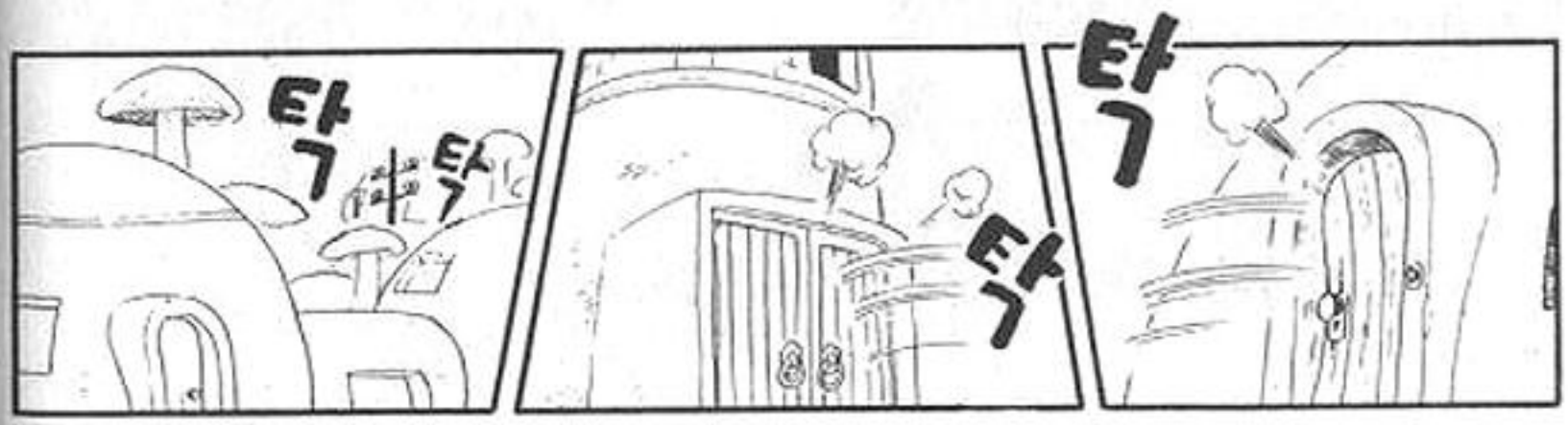
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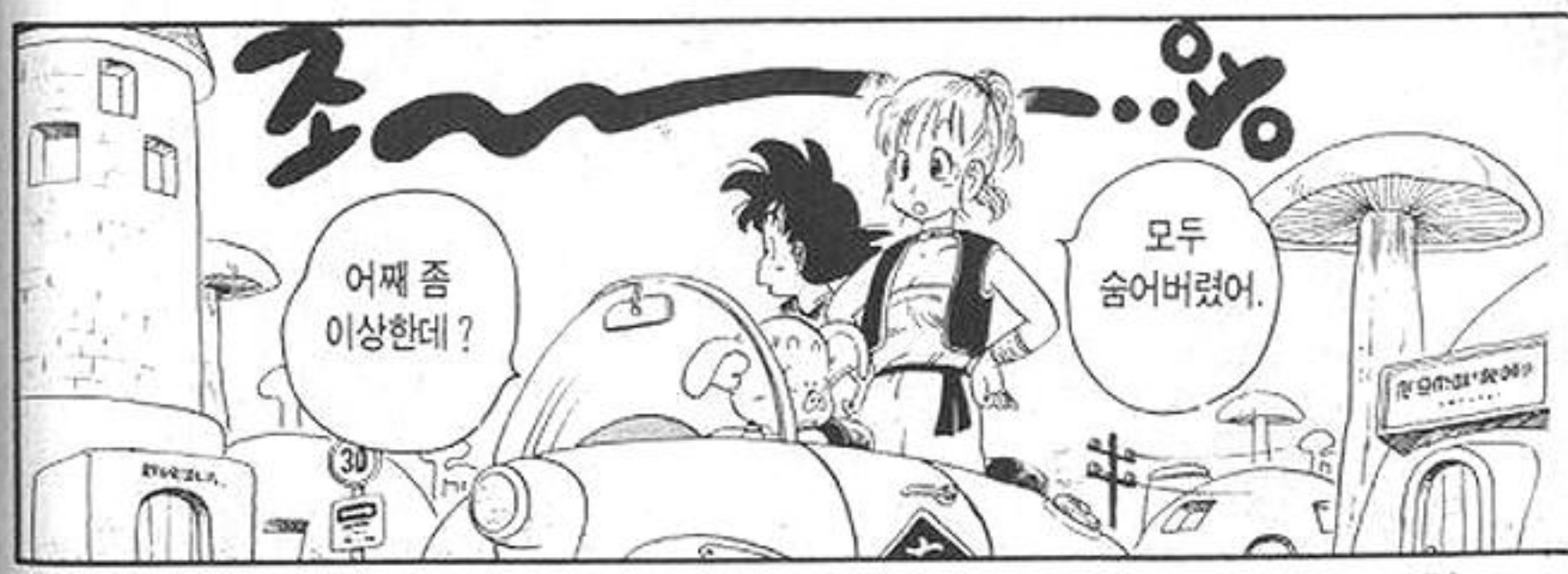


➡ 다음은, 제17화 두목의 주특기

손오공은 동네에서 나쁜 짓만 골라 하는 토끼단의 일당 2명을 혼내주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기뻐하기는 커녕 모두 다 파랗게 질린
얼굴로 너도나도 도망치는 것이었다. 그런데….








괜찮아? 정신차려!
우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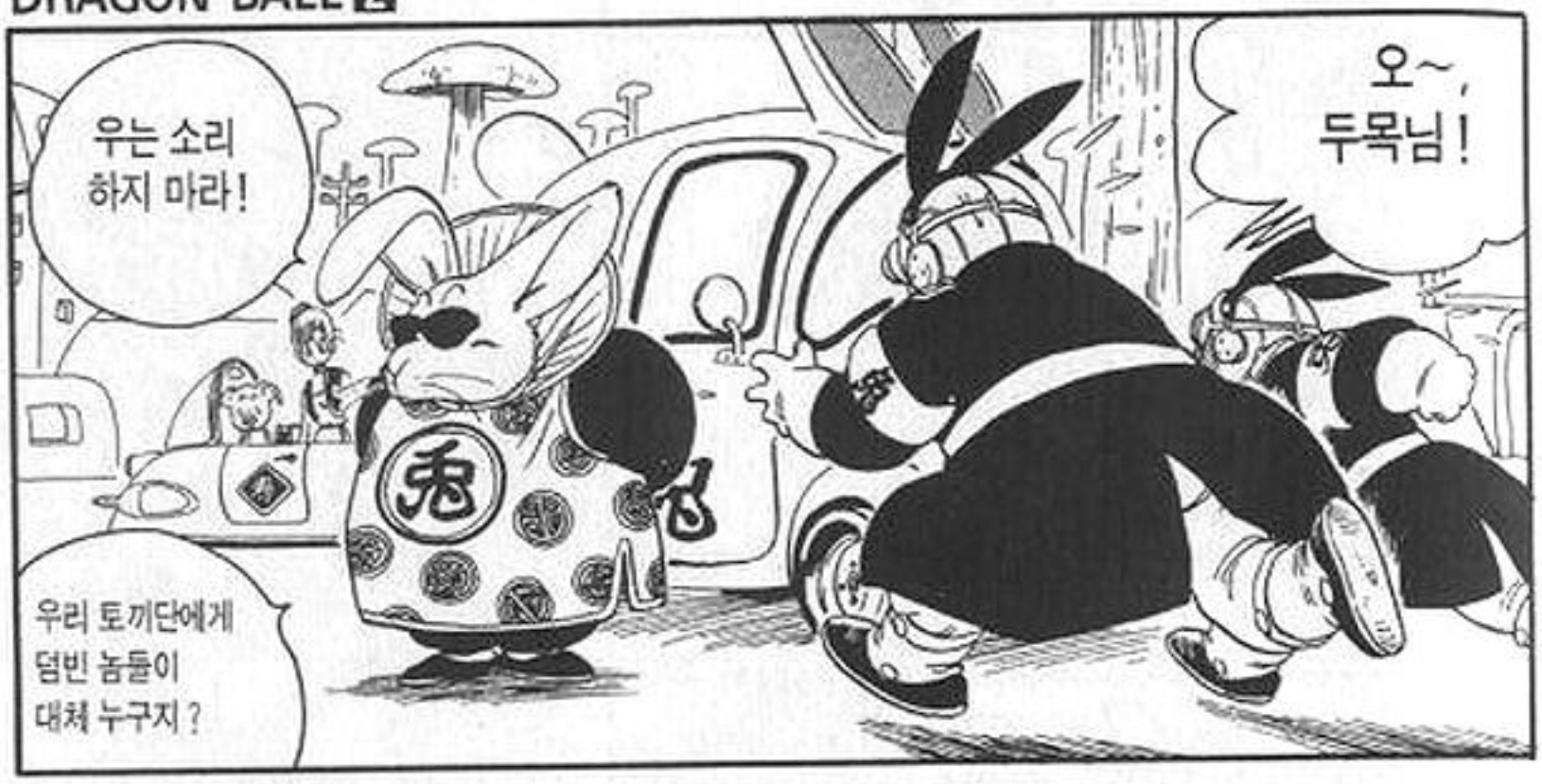

고맙다고 절을 해도 시원찮은데.
양심도 없군!


두목?
조금만 참아. 두목을 불렀으니까.
제… 제길….


당근…?


헤헤헷. 너희들은 이제 끝장이다.
두목이란 게 대체 언놈이야?
너희들을 당근으로 만들어 통째로 먹어버리겠다.


오공! 심상치 않아! 도망가자!
왜 도망쳐?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부아아 부아아…아
엇?
야호! 두목이닷!
부아…아
두목님! 여기예요!
부아아…
부아아…
끼익
찰칵
찬…


우는 소리 하지 마라!
오~, 두목님!
우리 토끼단에게 덤빈 놈들이 대체 누구지?


뭐야? 웃기지도 않는군! 괜히 무서워 했잖아.
풋! 저게 토끼단의 두목?


바로…. 저, 저 녀석들 입니다!


한심한 녀석들! 저런 애송이들한테 당했단 말야?
며, 면목 없습니다.


저 녀석… 어디서 본 듯한데….


이 녀석! 호잇—!!
휘익
빙그르르
아이, 깜짝이야.
우리 악수 합시다.
으잉?
정말 이상하게 생겼네?
알았다! 저 녀석은 토끼단 두목, 당근토끼야!
저 녀석을 만지면 안 돼!


메롱-.
누가 너 같은
녀석과
악수한대?
탁
만졌지?
풋!
오!
펑
하하하
역시 두목님이셔
후후후.
악!
부르마가
당근이
돼버렸어!
틀렸어.
저 녀석 몸에
닿기만 하면
당근으로
변해버려.

이 녀석이!

호오~.
나에게
덤비시겠다?

해보시지!
내 몸에 닿기만 하면
너도 당근이
돼버릴 테니까.

으윽.
분해….

이봐,
손오공!

그 여의봉으로
저 녀석을
공격해라!

아!
그렇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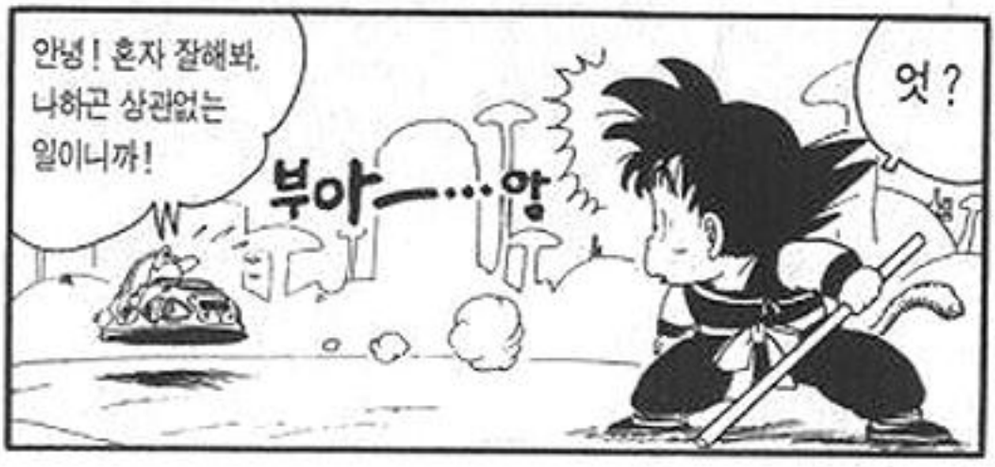
퍼

왓!


이 당근이
어떻게 돼도
상관 없단 말야?
내가 먹어도?
자,
잠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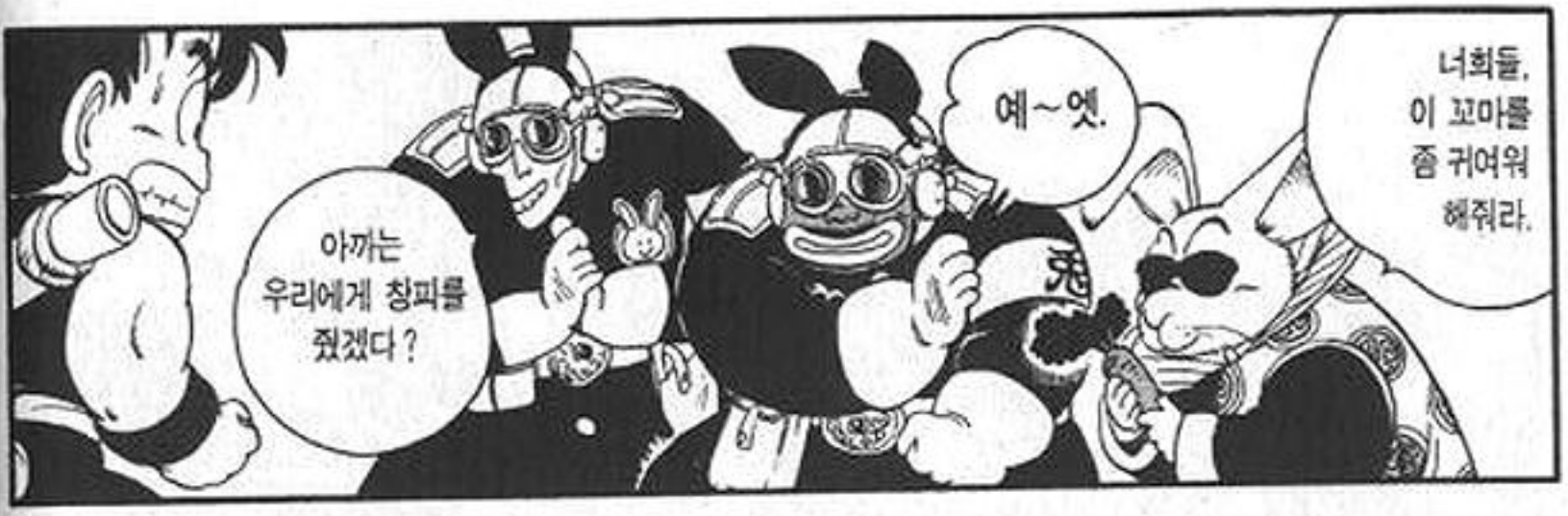

치사한
녀석!
저걸
그냥!


후후후…


안녕! 혼자 잘해봐.
나하곤 상관없는
일이니까!
부아—…앙
엇?




의리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이군.
저런
나쁜 녀석.
또 도망가?


너희들,
이 꼬마를
좀 귀여워
해줘라.
예~엣.
아까는
우리에게 창피를
줬겠다?


어떡하지?
오공이 당하면
드래곤 볼도
끝장이야!
퍽
파
툭
툭탁
툭탁


BOM!


네!
할 수 없이
도와줘야겠다.
푸알!
새로 변해서
저 당근을
뺏어라!


휘—익
토끼단이 얼마나
우섭다는 걸
철저하게
보여줘라.
FUEL STAND
암마!
암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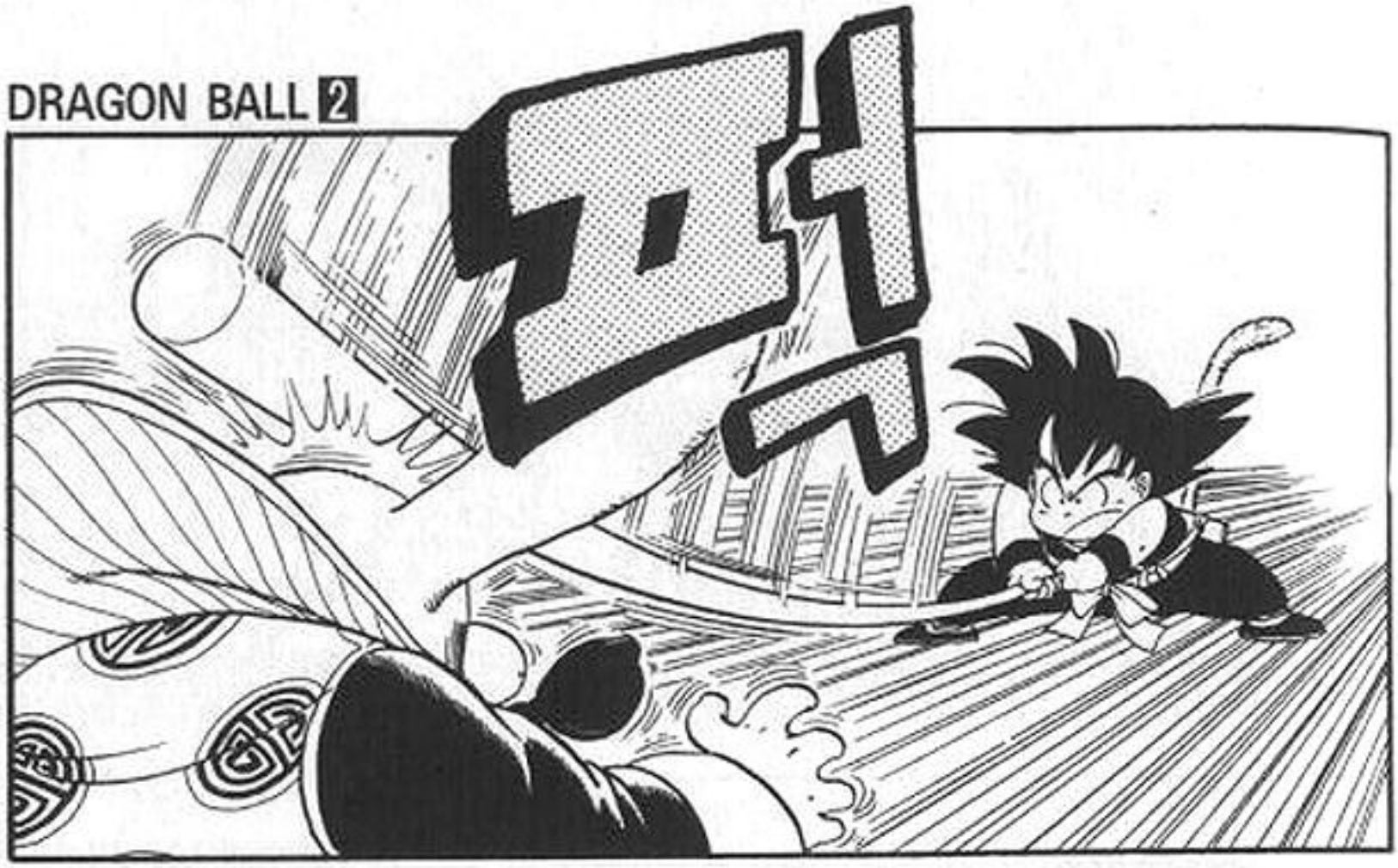

앗!!
콱
파닥
파닥
앗—!!
쩍
윽!!
파파


음냐…
손오공!
당근을
뺏었다!
여의봉으로
녀석을
빨리 내리쳐!
아아~.
아니….


좋아!


어라?
너, 오랜만이다!
그런데 왜 여기에
왔니?
야,
빨리
치라니까!


날 죽이면
그 여잔 영원히
사람이 될 수
없어!
흥!
아깐 내가
맞았지만~.
잠깐!
말로 하자,
말로!


ㄱㅓ


오~!
땡큐!
자,
당근!


우웃!
오~!


펑
엥?


탁
탁
헤이-.


저, 정말요!?
예, 예!
당연히
해드려야죠!!
야!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까
이 당근을 사람으로
되돌려!

어? 내가 어떻게 된 거지?

아무치가 도와줬어.

아… 아얏.

두, 두목님! 만지지 마세요! 당근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뭣? 그 잘생긴 남자가? 어디, 어디?

엇? 어디로 갔지?

빌어먹을…! 난 여자가 옆에 있으면 기절해 버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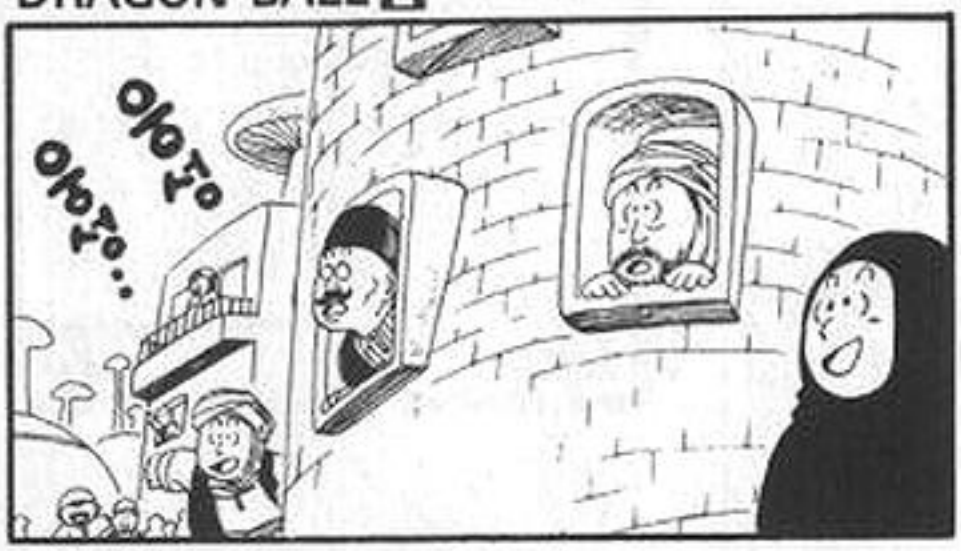
헤엣! 너무 아프지 않게….

이전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이나? 이것이 문제로다!

탁

히이익!!

여의봉아, 하늘까지 늘어나랏!











⬅ 다음은, 제18화 드래곤 볼을 도둑맞다!!

휘 ~~~…웅

으~음.
꽤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으~휴.
아깐 정말
무서웠단 말야.

넌 남자애가 왜 그래?
조금만 위험하면
쥐새끼처럼
도망가고….

드래곤 볼이
다 모아지면
어떤 소원을
말할 거니?

근데 전부터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애인이야!
멋진 애인!!
멋있는
소원이지?

호호홋.
너한텐
아직 말하지
않았던가?

이제 남은 드래곤 볼은
마지막 하나!!
그 일성구도 드래곤 레이더에
의하면 정말 가까운 곳에
있음이 틀림
없는데….


엉뚱한 소원이라니! 그래, 꼬마에겐 이해가 안 갈지도 몰라.
우리들이 목숨 걸고 도와주는데 그런 엉뚱한 소원을 빌겠다고!?
뭐? 애인?


지금 막 자동차 1대가 통과했습니다.
피라후 님! 여긴 제15번 지점입니다.


좋~아! 그 녀석들임에 틀림없다. 작전대로 하라.
알겠습니다!


소바! 차가 보이나?
그래, 보인다!



저 녀석들이 갖고 있다!

드래곤 볼은….

정말 자꾸 시끄럽게 굴 거야?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주제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모으고 있는데, 좀더 뜻있는 일에 쓸 수 없어?

BAKOOO...M

%

아~,
아이고~.

우우~.
뭐야….

으이구,
깜짝이야!

저, 저건 뭐지…!?

까악!

터…

뒤 뒤 적 적

있다!

뭣?

미안하지만 드래곤 볼은 내가 실례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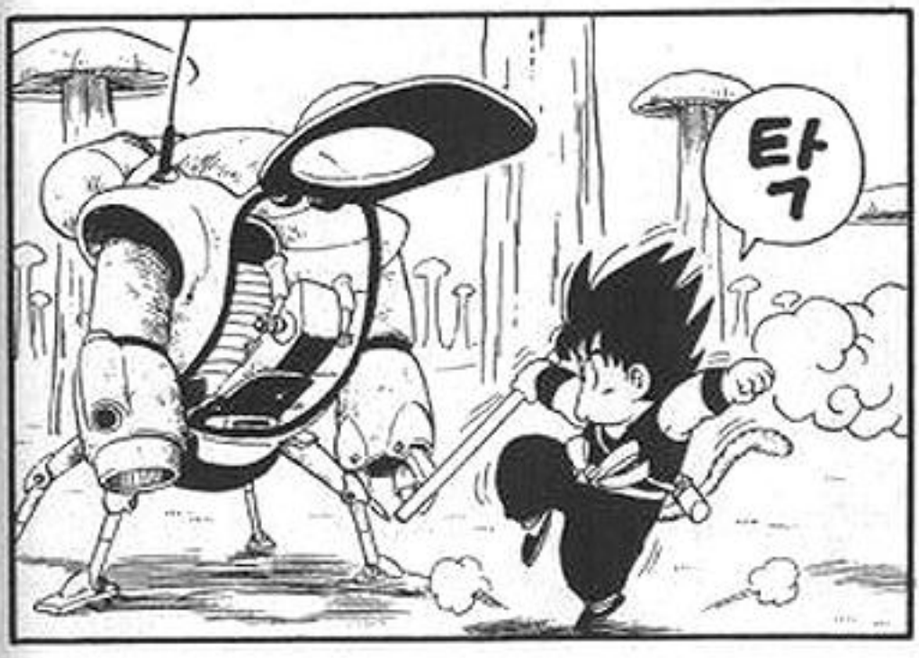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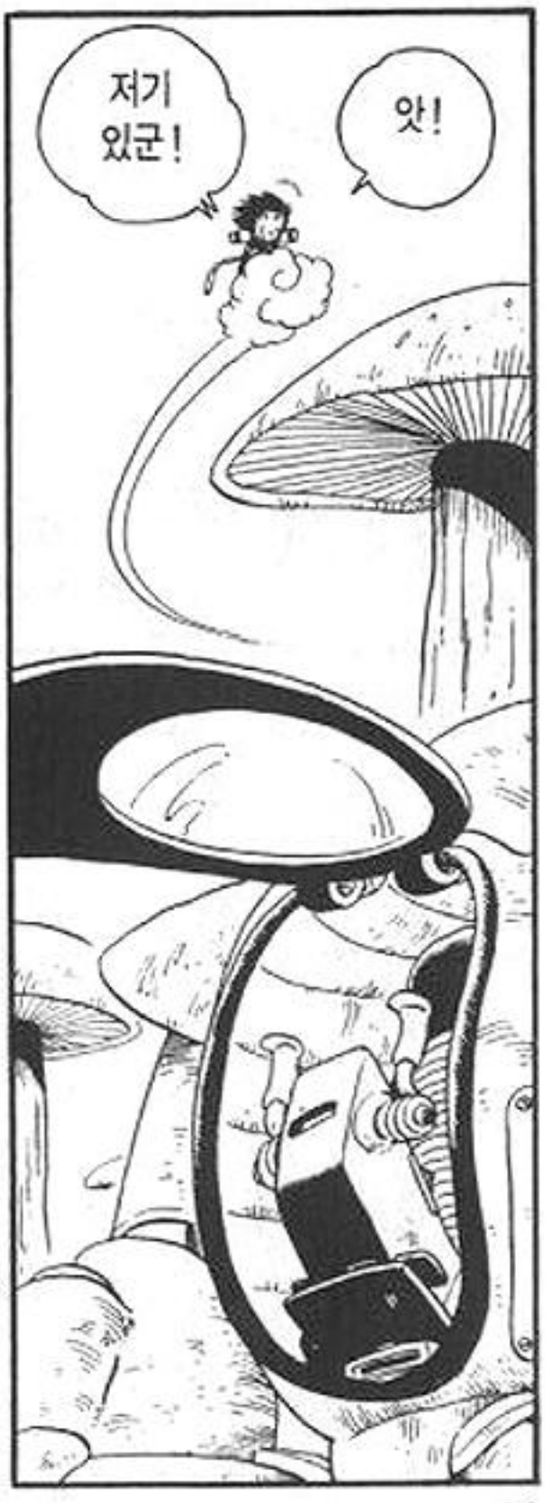


11




어디로 갔지?
어라?


탁


저기 있군!
앗!


……


남의 물건 훔쳐가면 안 되지!
이 나쁜 녀석!


풀썩…


뭐라고
말 좀 해봐!
탁!


드래곤 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모르지….
그래,
맞아.
옛 문헌에
정확히 실려
있으니까.


죽어
버렸네….
뭐가
이렇게
약해?


까악!
잊어줬음
좋겠어!
그렇담 내가
애인이 돼줄게,
응?
그러면 되지?


이번엔 정말
위험한 것 같으니
우리 포기하자….
응?
그건
안 돼!


어떻게
됐니?
찾았어?
앗!
얏호!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야?

없던데?

그래? 그럼 볼은?

응, 해치웠어!

하나는 내게 있잖아.

맞아!

아아~. 이젠 끝장이다. 분명 그 녀석들은 마지막 드래곤 볼을 갖고 있을 거야.

흠쳐간 볼까지 모으면 7개 전부가 모이는 건데…! 어쩜 좋아.

야, 이 도둑놈들아! 나머지 한개는 우리 손에 있다! 바보 같이!

크하 하하!

자아, 가자! 7개 전부 차지할 사람은 바로 나란 말야!

드래곤 레이더라면 그 도둑들이 있는 곳을 알 수 있어.


앗!
캡슐도
드래곤 볼과 함께
가방 속에….


가자니….
어떻게 간단 말야?
차는
부서지고….
걱정 마.
저번
마을에서
캡슐을
사뒀으니까.


이런 제길~.
내 드래곤
볼인데….
역시
빼앗긴 것
같아요.
아 아
ㅣ /
앙 앙


까~악!
야…
야무치 님!
아!
야무치!
어랏! 이거 정말
묘한 우연인데?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할 수 없다.
다시 도와줄
수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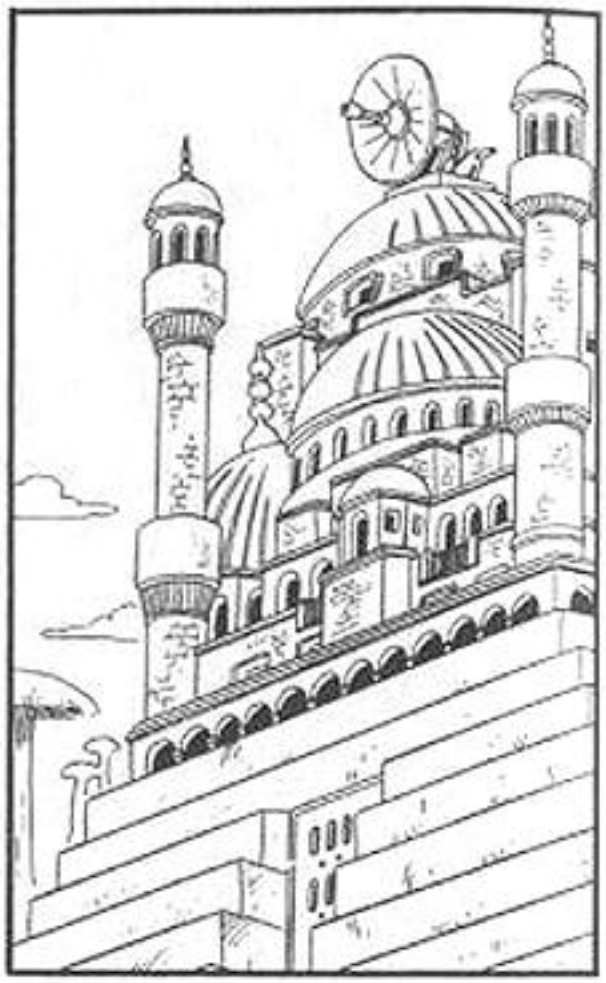

부르르……
모든 게 잘 됐다.
하하하. 이제 이 세상은 전부 피라후 님의 지배하에 들어간다.
정말 고마워.
아니…. 뭘…. 이 정도 갖고…. 너무 우연이네….
정말 고마워요.
우아아아 앗!!!
야무치 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확하게 숫자를 조사했어야지….

정말 죄송합니다.

전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炒飯



근데 이렇게 빨리 모아지리라고는….

흐흐흐.

다행히 7개째 볼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

삐삣 삐삣 삐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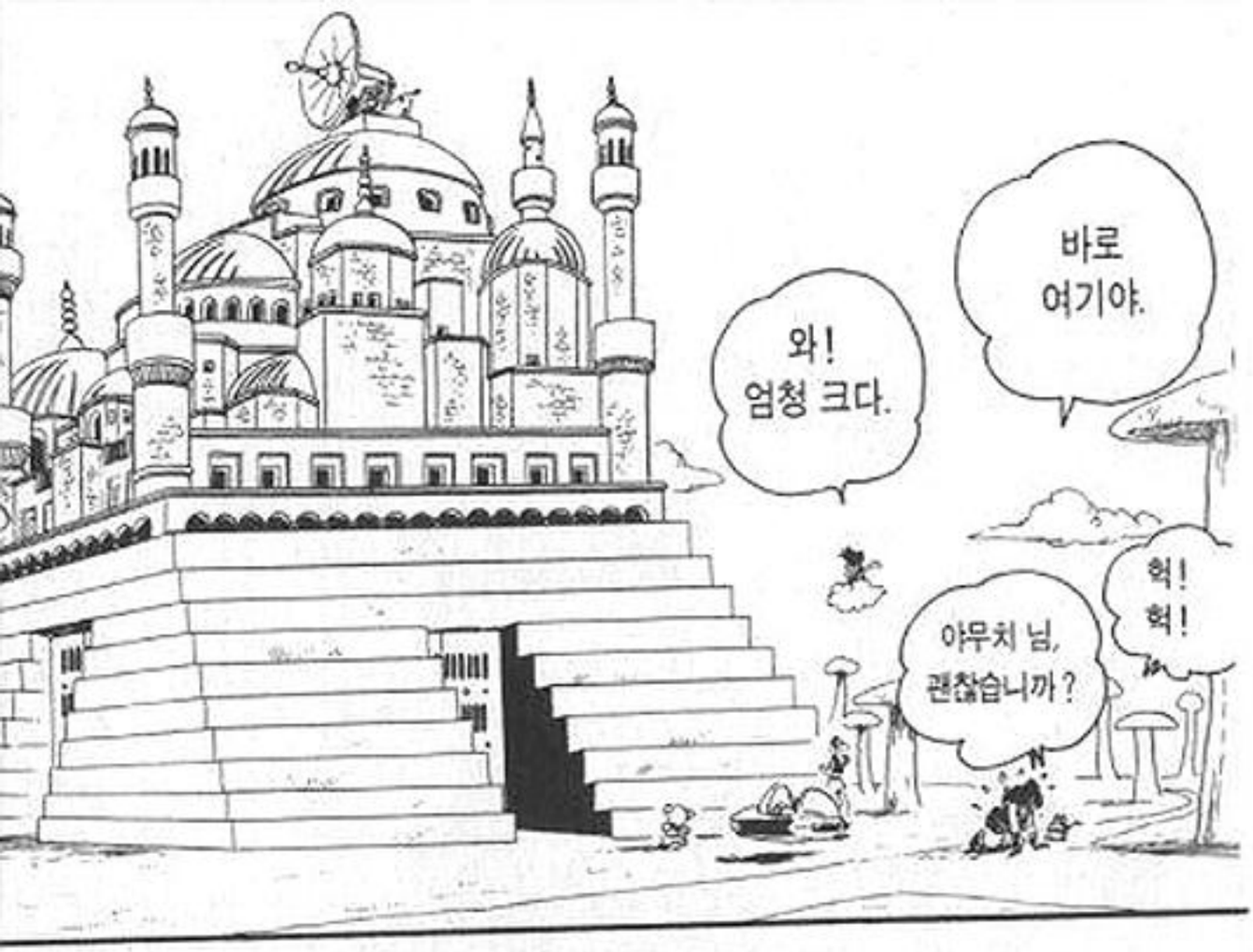
뭐, 괜찮아.

음, 빠르군! 역시 녀석들도 레이더를 갖고 있는 모양이다.

피라후 님! 그 녀석들이 왔습니다!

으흐흐…. 드래곤 볼이란 게 정말 좋구나!

이제 세계는 모두 내 거다!!


바로 여기야.
와! 엄청 크다.
헉! 헉!
야무치 님, 괜찮습니까?


조심해! 적은 만만치 않은 놈 같아.
그… 그래…요.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있는 거지…?
어! 이건 화살표?


엉?
뭐야, 이건?











⬅ 다음은, 제19화 마침내 용이 나타나다!!

DRAGON BALL

제19화

마침내 용이 나타나다!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는
피라후 일당에게
드래곤 볼을 빼앗겨버린 오공 일행은
과감히 적지에 들어갔으나
보기좋게 함정에
빠져버렸다….

흐흐흐….
드디어 내가
세계의 왕이 되는
순간이
가까워졌다.

으휴—!
빌어먹을.
완전히 갇혀
버렸어!

내 주먹으로도
열리질
않아

그래서
들어오지 말자고
했잖아!

피라후 님!
차 안에는
드래곤 볼이
없습니다.

뭣이?
그렇다면 녀석들 중
누군가 갖고
있단 말이냐?

저 녀석 가랑이 사이에 있을 지도 모르죠.

보기엔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저질 농담은 싫어한다는 거 다 알 텐데…?

……

……

모처럼 작가가 이 만화만큼은 우아하게 만들고 싶다는 기분을 넌 이해 못하겠니?

죄… 죄송.

바로 이런 게 싫다는 거야, 이런 게!

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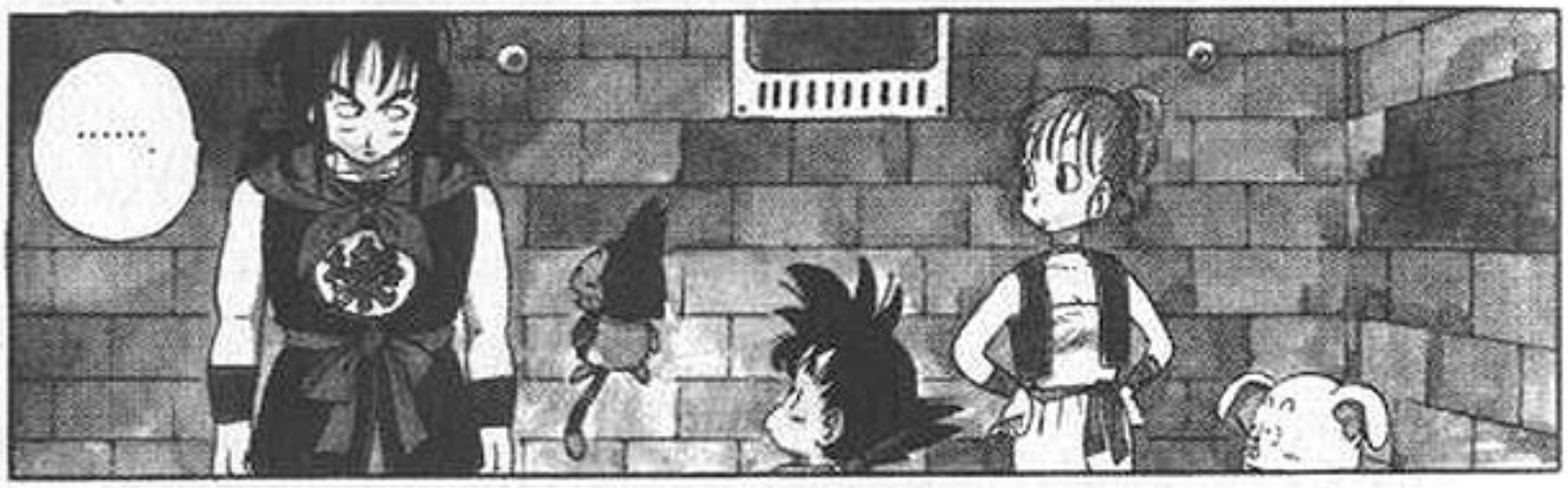
알겠습니다.

부—웅

앞으로 쓸데없는 행동은 피하길 바란다. 알겠지?

드래곤 볼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단 말씀이야.


무섭쥐~이!
이봐, 여기서 쥐 나올 거 같지 않냐?


……


닥쳐!
이 유머 만큼은 자신있었단 말야!
철딱서니 없긴….
여기서 어떡하면 빠져 나갈까 궁리나 해봐!


아무처 님…. 지금 그게 무슨 소리죠…?
응? 그냥~.


나는 피라후 대왕이다.
앗!
어이~! 포로 친구들!


분위기 좀 띄우려고 열심히 생각해서 한 유언데 그런 소리밖에 안 나와!?
….

그 드래곤 볼 중에 하나가 부족하다.

야무치! 저 창문을 부수면 빠져나갈 수 있잖아!

바보야, 저건 텔레비전이야.

당신, 내 드래곤 볼 뺏은 사람 맞지? 빨리 내놔!

너희들은 사성구를 갖고 있다! 그렇지?

지금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메롱~! 누가 너 따위한테 드래곤 볼을 주기나 한대!

크으~.

좋다! 순순히 내놓지 않겠다 이거지?

그럼 어디 맛 좀 봐라. 내가 얼마나 야한지 모르지?

엉!?

살려줘!

꽈앙

엄마!!

크,
큰일났다!

야한 게
어떤 건데?

두근…
두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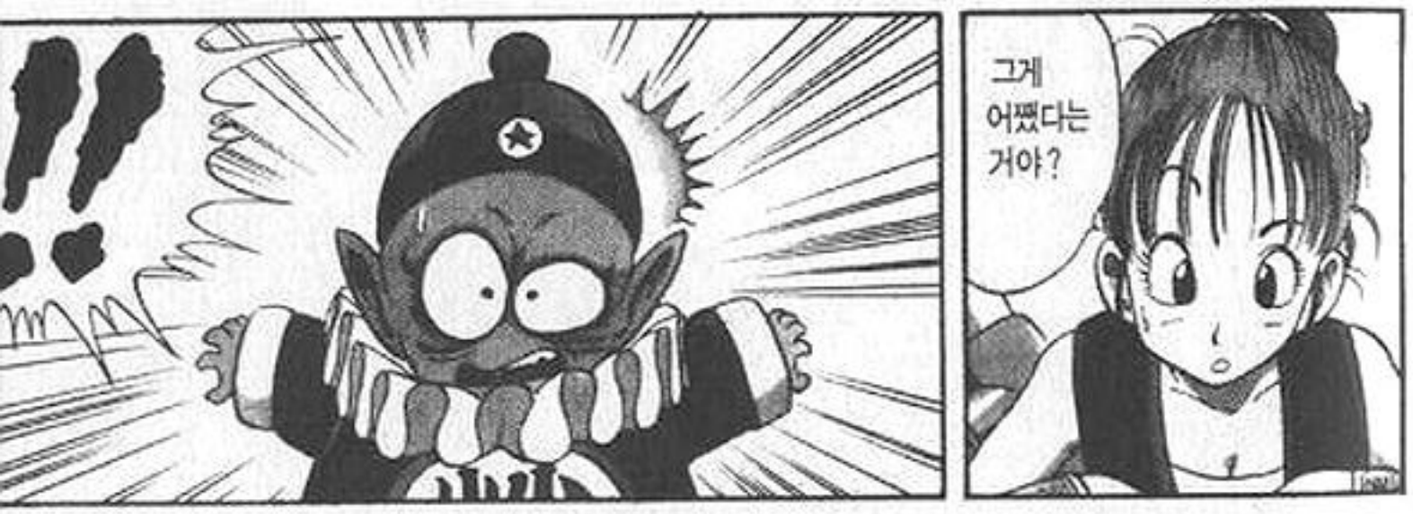
흐흐흐!
자백하려면 지금 해라.
마지막 남은
드래곤 볼은 어딨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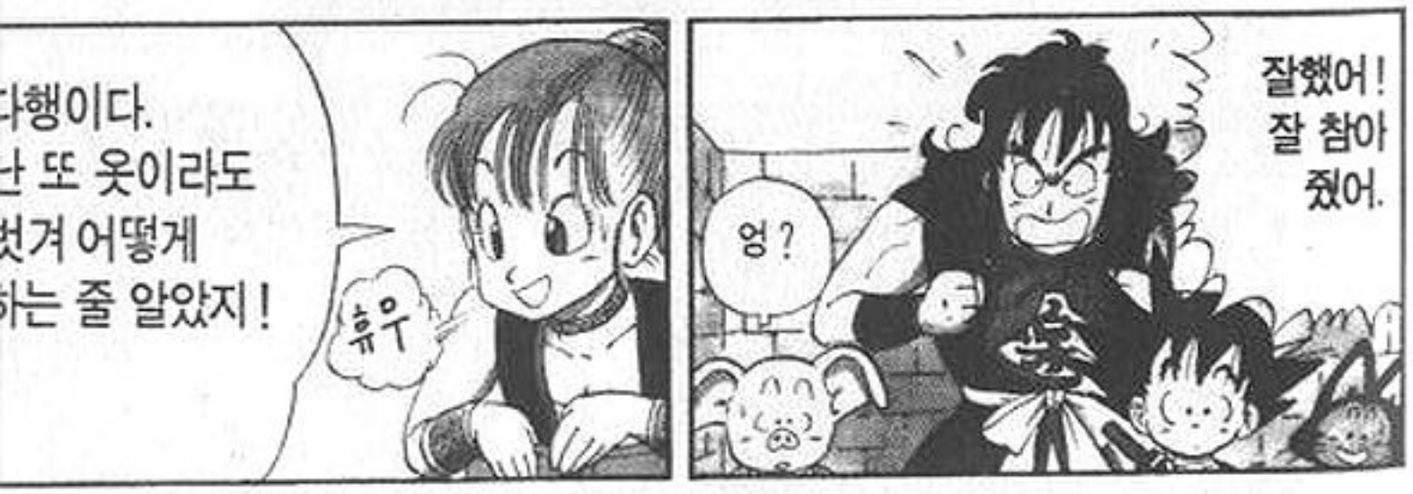
이거 놔,
이 도둑놈
들아!

대체 날
어쩔
셈이야?


그래? 그럼 그 창피한 꼴을 끝내 보고 싶단 거지?
누가 그걸 알려준대!?
차…, 참아야 돼. 꾹!
그럼 원하는 대로….
쭉~.
어머
엉?


야해
야악!
간접 키스를 보냈는데….
지금 뭐한 건데…?
어, 어떠냐?
이젠 말하고 싶어졌지?


그게 어쨌다는 거야?


다행이다.
난 또 옷이라도
벗겨 어떻게
하는 줄 알았지!
휴우
엉?
잘했어!
잘 참아
줬어.


어떻게 그런 야한 생각을 할 수 있담?
으아~악! 나보다 더 야한 애잖아?

피라후 님,
그렇담
수면가스로
잠재운 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제길~!
야한 공격에도
입을 열지 않다니,
끈질긴 놈….

으앗!

퍼엉

그렇지!
바로 그 방법
이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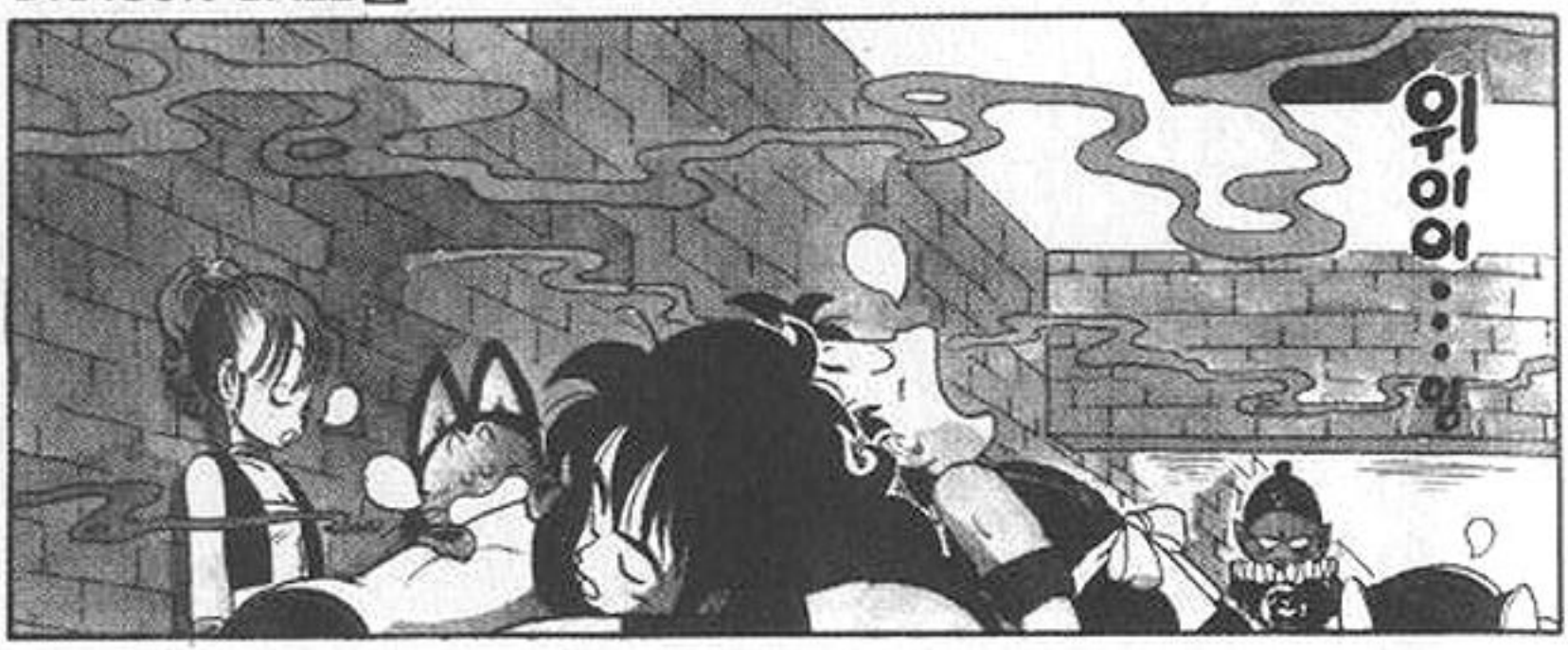
빨리 가스로
잠들게 해라!

콜록!
콜록!

뭐야,
이
연기는….

앗!!

이건
또 뭐지?


윙이이…윙


보~.
드래곤 보~.


그렇다면 빨리 드래곤 볼을….
핫핫핫! 잘도 자는군.


아이구 성가셔.
볼은 내가 찾을 테니 너는 피라후 님을….


음….


꼬르르…
앗! 피라후 님!
아차! 가스 마스크를 안 드렸어.

있다!!

엉?

아직도
머리가
띠~잉하다.

후우…,

옛!

니들 참 잘했어!
이제 드디어
7개가 전부
모아진 거군!

키히히히~!
드디어 세계는
이 피라후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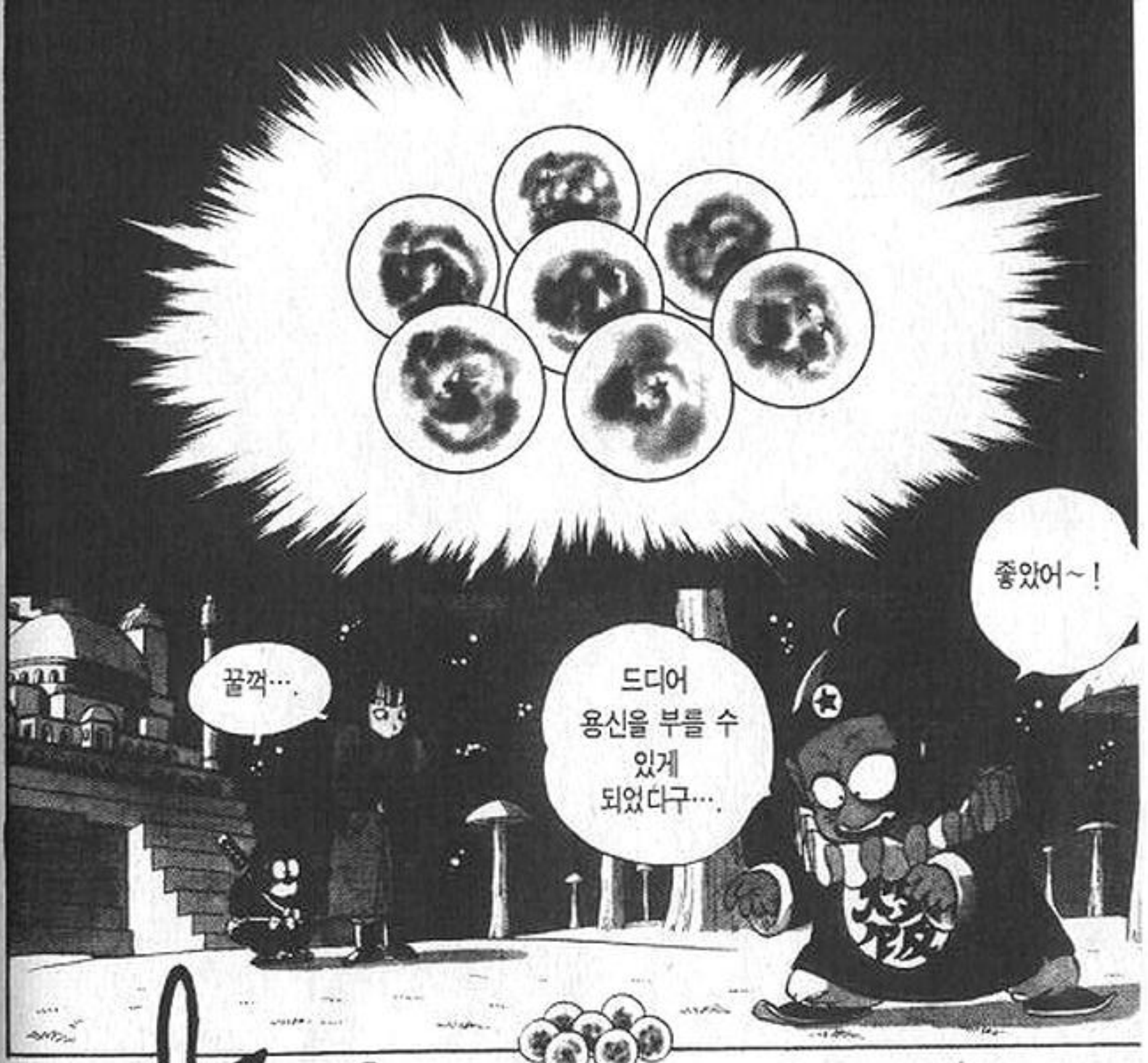

합!


이젠 끝났어.
모두 잠들어
있을 때 저 녀석들이
소원을
말해버렸을지
몰라.
발로 차도
꿈쩍도
안 하네.
아, 안 돼!
이 벽은 너무
강해서
부술 수가
없어.


그, 그런 거
상관 없잖아!
시간이 없어!
빨리!
어?
근데 야무치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있지?


에네르기파를
써봐!
무천도사가
쓴 거 말야!
맞다,
손오공!
아참!
그렇지!


좋아!
그래!


좋았어~!
드디어 용신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구….
꿀꺽….


파!


에… 네…
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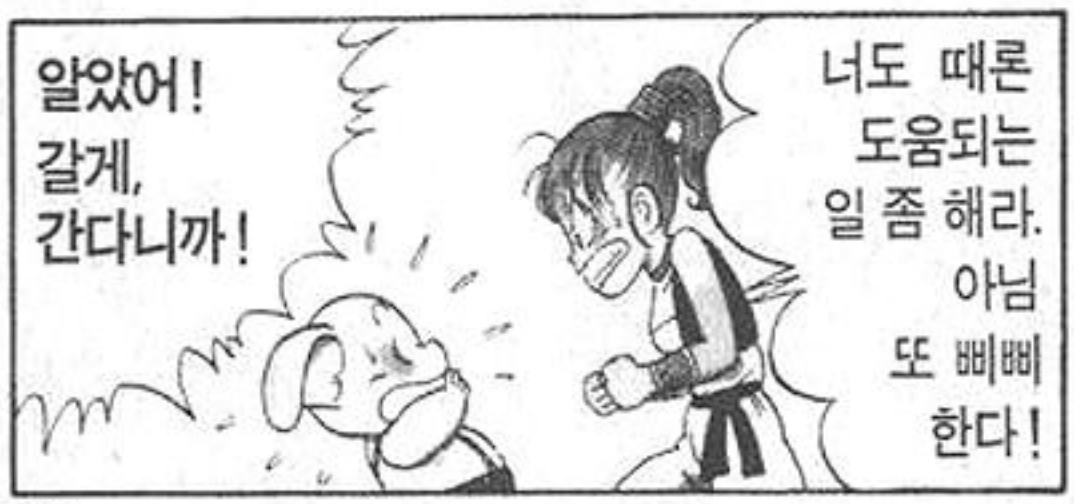

파!


앗! 녀석들이 밖에 있어!
다행이다! 용은 아직 안 나타난 것 같은데!
뭐!?


안 되겠다.
수련이 부족해서 이 정도밖에 안 돼. 겨우 구멍 하나 뚫렸는걸!


지금 빨리 가서 녀석들의 드래곤 볼을 차지하는 거야!
푸알! 빨리 박쥐로 변해서 이 구멍으로 나가!
머리 좋고~!
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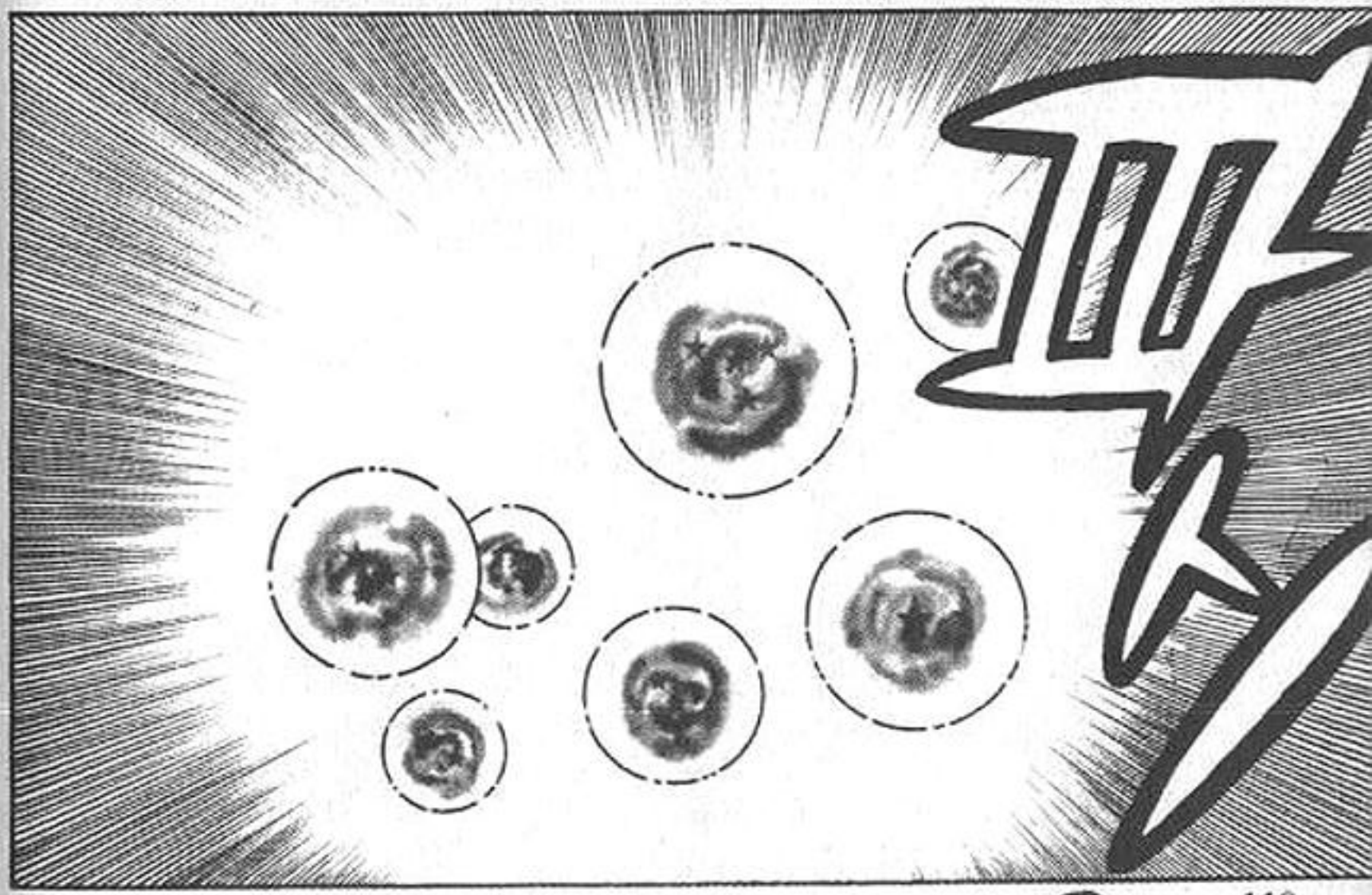

내, 내가…?
응?
오룡! 지금 멍청히 있을 때가 아냐! 너도 빨리 가!


알았어! 갈게, 간다니까!
너도 때론 도움되는 일 좀 해라. 아님 또 삐삐 한다!


BOM!


파닥파닥
빨리 가지 않으면….


나와서 나의 소원을 들어다오!!
나와라, 드래곤!!



드디어 용신이 나타났다.
과연 이 세계가 피라후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될 것인지!?

⬅ 다음은, 제20화 용신에게 소원을!!


피오나


파
파
세계 정복을 꿈꾸는 피라후 일당은 부르마 일행에게 뺏은 6개의 드래곤 볼을 자신이 갖고 있던 한 개와 합쳐서, 마침내 용신을 불러버렸다. 아, 이제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발 늦었다!

우악! 무서워!

용신이 나타났어!!

악어보다도 흉한 커!

괴…, 굉장하다!

아이쿠, 난 망했다, 망했어!

큰일났다. 벌써 드래곤이 나타났어!

나도 좀 보여줘.

자—. 이젠 소원을 말해라.

명심할 것은, 어떤 소원이라도 하나만 들어준다.

으앙!
고생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야!
크다-!
저게
드래곤이야?

으휴!
제길!

이 세상이
저 녀석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다니!!

그, 그럼
소원을….

그,
그렇지!

…앗!

저 녀석
보다 먼저
소원을
말하면…,

이, 이제 틀렸어.
도망치는 게
상책이야.

정말…,
그런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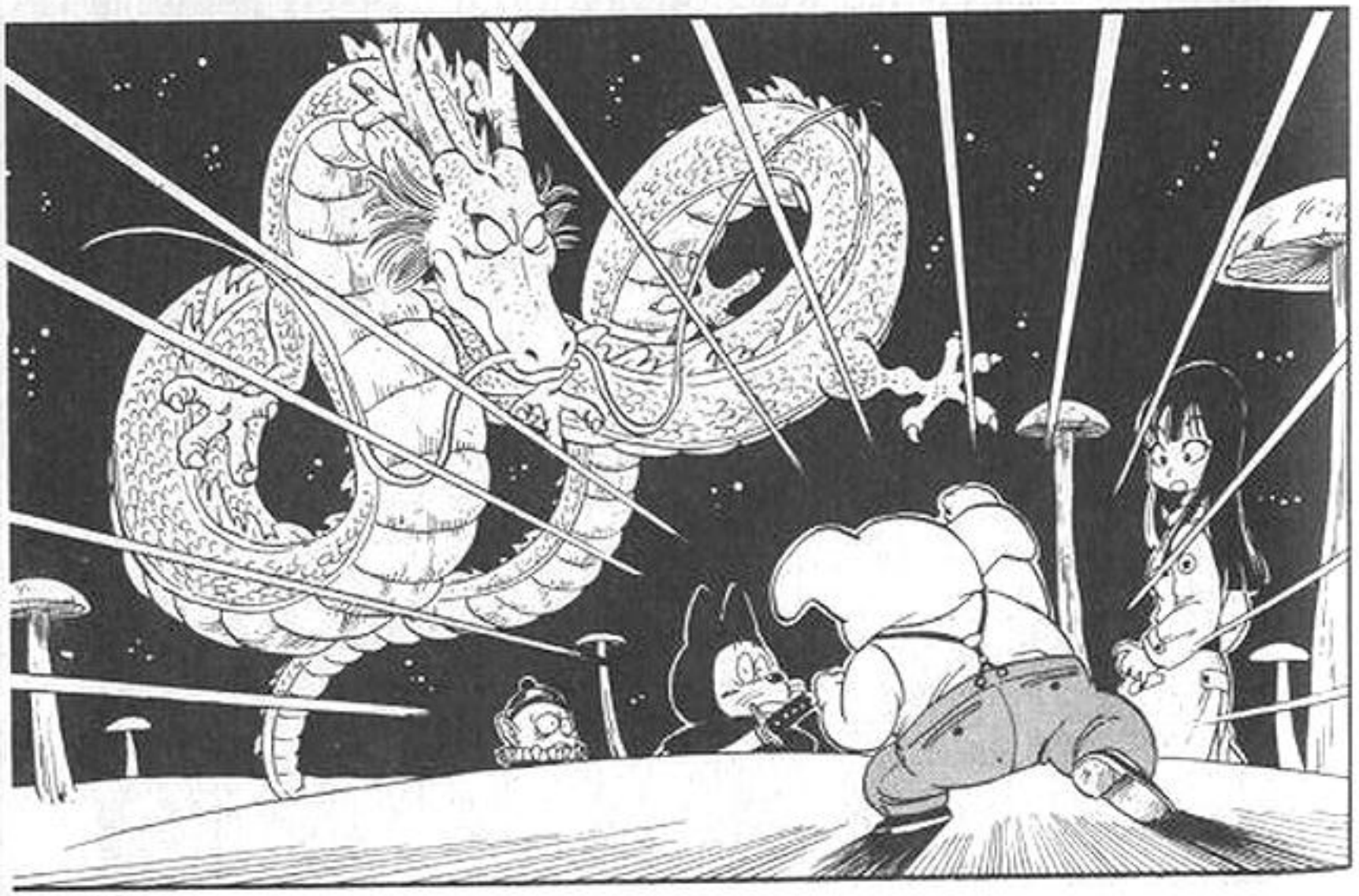
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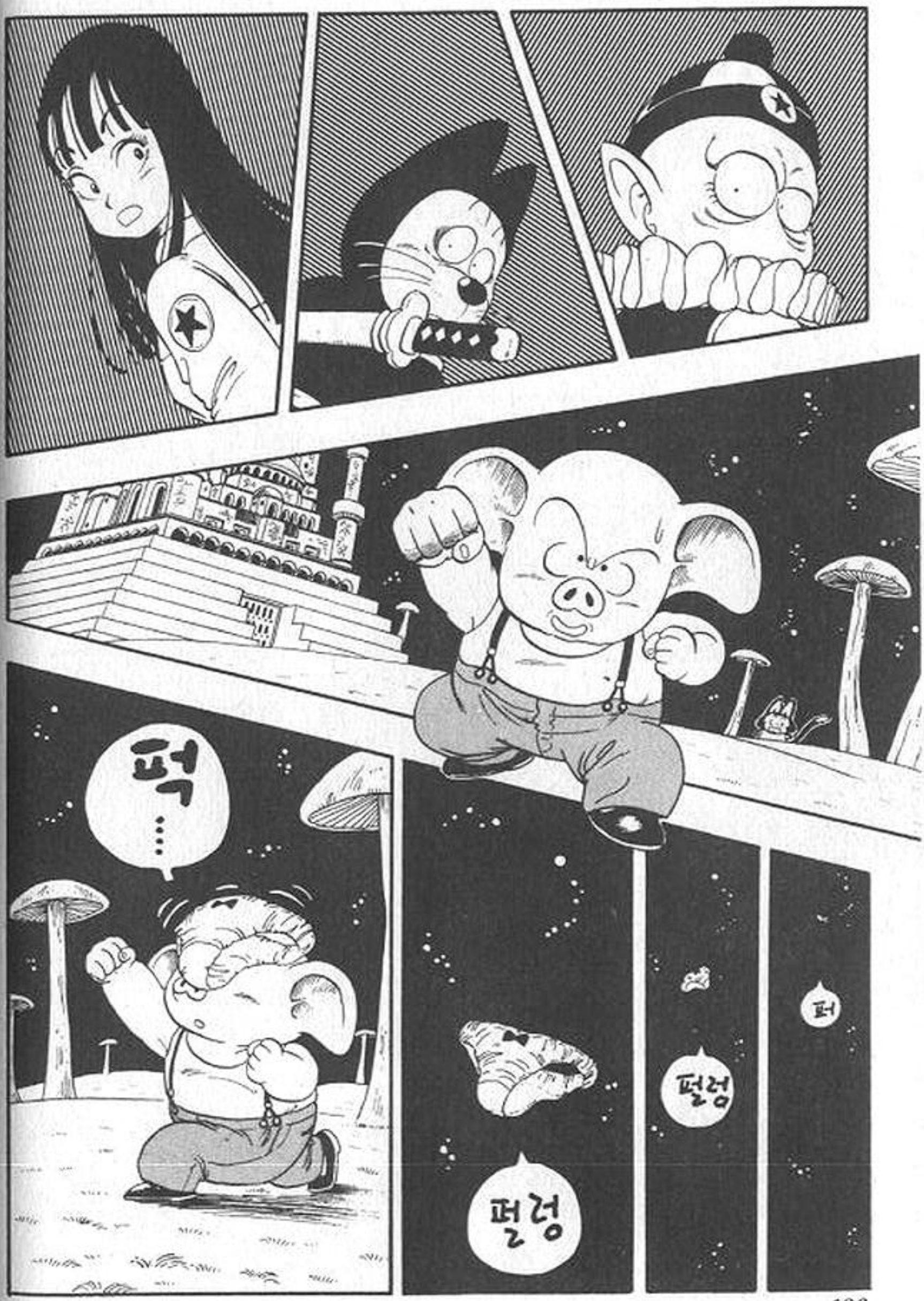
타타타타

나…
나는!

세계를…,


여자…,
팬티를 갖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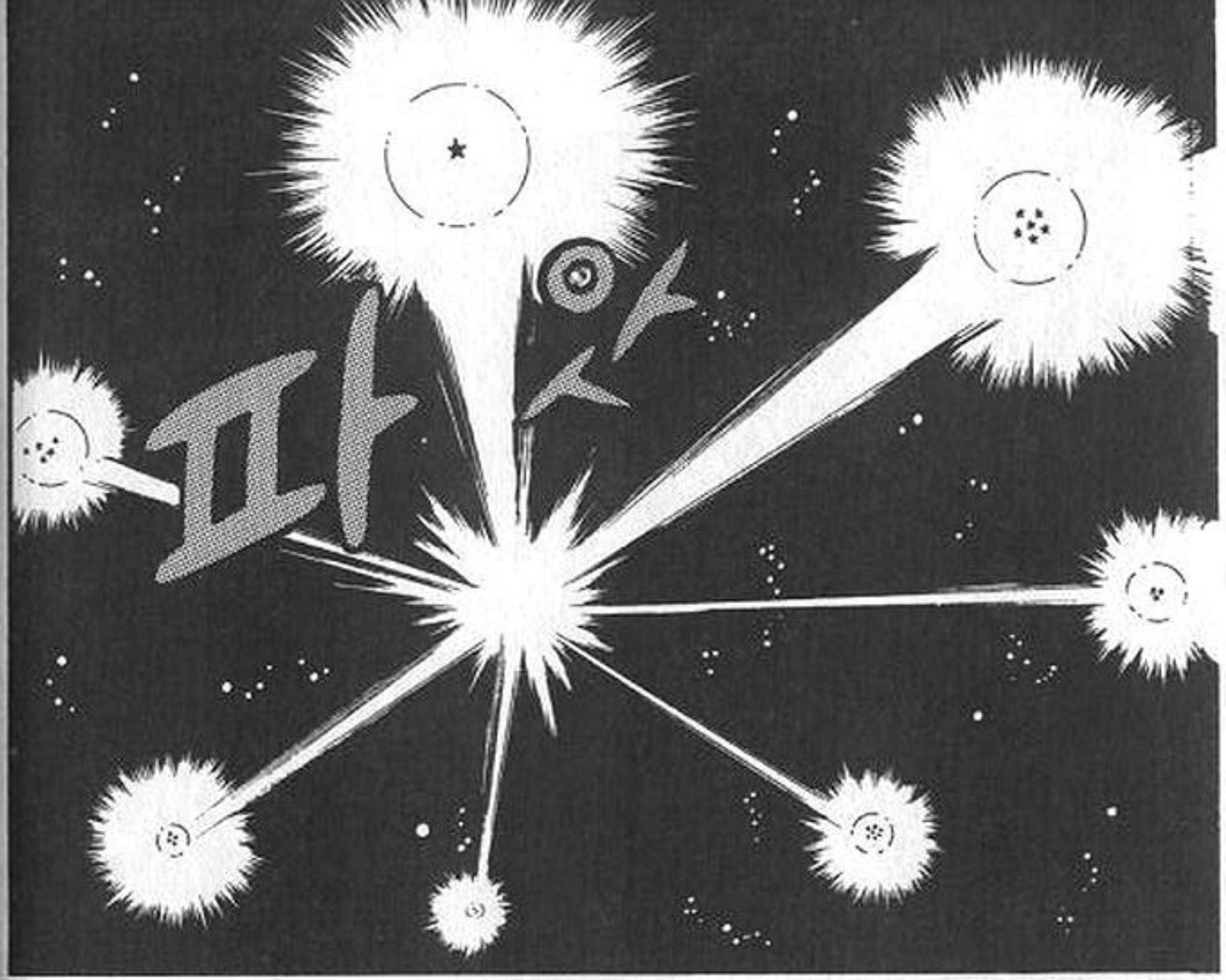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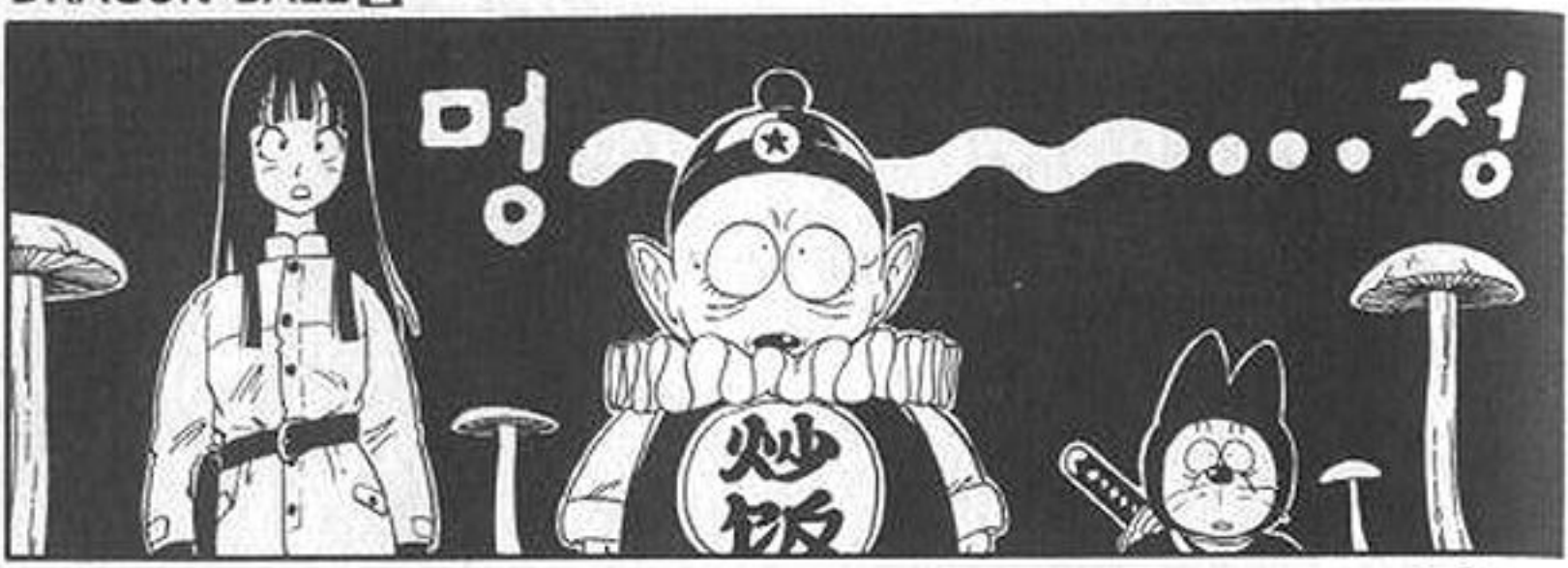

퍽…
펄렁
펄렁
퍼


파!
워!


슈
앙


소원은
들어주었다.
그럼,
안녕!


피융
피융
아…,
아아…!
아니?


멍…청
炒飯


와~!
멋지게
해냈어!!
옳지!
잘했다,
잘했어!
오룡의
발험증이
우릴
도왔어.


야,
멋있다.
에헤헤…


드래곤 볼은
소원을 들어주곤
다시 흩어져 날아가
버리는 거야.


드래곤 볼이
팍하고 모두
날아가
버렸어.


그렇게
돼버렸어.
안
됐지만…
그럼 우리 할아버지
형상 구슬도
어디론가
가버린 거야!?

예—옛!

저 녀석들 모두 처형이다! 없애버리겠어!

저 돼지놈과, 고양이 비슷한 놈을 빨리 잡아들엿!

정말 한심하구나. 또 잡혀들어 왔어?

어쩔 수 없었어. 광선총도 있었는걸.

심드렁

이번 감옥은 벽에 구멍도 못뚫겠다.

탕 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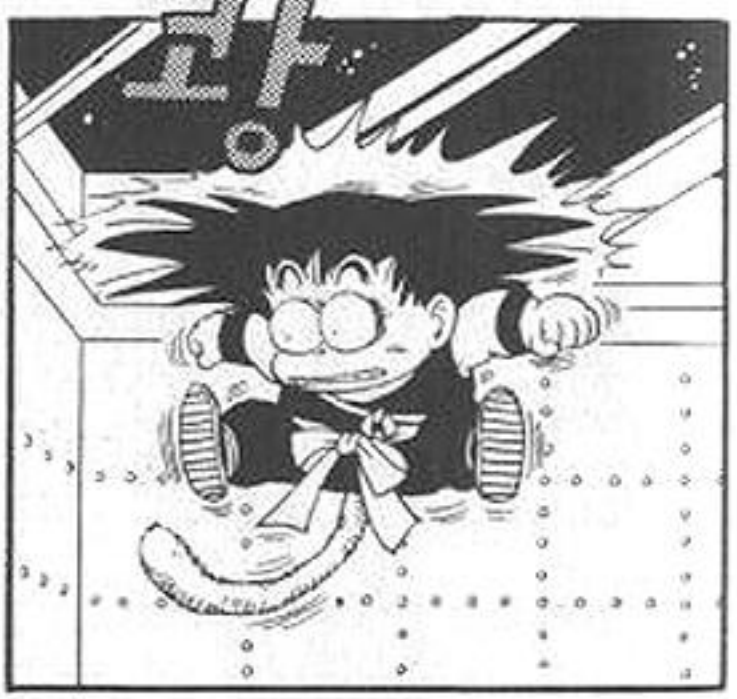
모두가 강철로 만들어졌어.




하잇!!
휙


무슨 소리야? 천정이 뚫려 있잖아?
아냐! 저건 초강화유리로 돼있어.


그것 봐! 안 된다고 했잖아.
아이고~. 내 머리 안 깨졌어?


쾅


뭣이?
당분간 드래곤 볼은 다시 모을 수 없어….


드래곤 볼을 다시 모으기는 커녕, 우린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
어떻게 해서든 여길 빠져나가지 않으면….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단순한 돌멩이일
뿐이라구….
그러니 찾을
수가 없어….

7개의 드래곤 볼은
한번 소원을 들어주면
1년 이상 지나야
제모습을
갖춘다는 거야….

이…,
일 년!?

그럴 순
없지.

일년이나
여자한테
약한 모습
보이며
지내야
하다니….

그럼
이 만화제목은
어떡하지?

니들이 감히
나 피라후의
세계 정복을
방해했겠다!!

너희들 모두들
처형시켜
버리겠어!

크하하하!
그렇지만
안심해라. 나는
야만적인 것은
싫어한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죽여주겠어!

이곳은 낮에 뜨는 태양이 강해서 뜨거울 것이다. 그럼 그 속은 마치 오븐 토스터기처럼…. 충분히 상상이 되시겠지? 크하하하!

천정이 유리로 돼 있는 걸 보았겠지?

어머, 어떡해!

썬 오일도 없는데. 내 피부는…, 어쩌지…?

넌 못말릴 애구나.

마른 오징어로 만들어 주마.

크하하하! 내일의 그 광경이 기대되는걸!

이 치사한 놈. 그런 야비한….

절대절명의 위기에 싸인 손오공 일행! 그런데 다음 회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생긴다. 과연…!?

결혼의 꿈은?

돼지 바비큐는 더욱 싫어. 앙~!

이 꽃같은 청춘으로 오징어가 되는 건 싫어~.

아, 갑자기 오줌마려!

난 배가 고파.

다음은, 제21화 보름달

무시무시한 유리 천정 감옥에
갇힌 손오공 일행.
내일 낮이면 태양지옥이
닥쳐온다. 과연 오공일행은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탕 탕

플레이! 손오공!
플레이! 야무치!

파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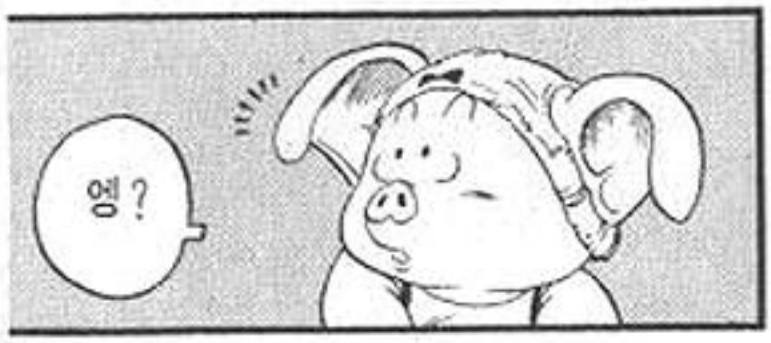



예!
자, 밤도 깊었는데 잠이나 잘까?


내일 낮이 기다려지는군.
흐흐!




우린 이대로 죽는 걸까.
배가 고파. 이젠 힘도 없어.
어쩔 수가 없어.
학
학


엥?


나도 돼지 바비큐는 싫어!
난 솔직히 말해서 죽는 건 싫어!


넌 지금
이 마당에
여유부릴
틈이 있니?
달님을
보고
있었어.


푸알!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보름달?


재수없는
소리
작작해!
죽기 전에
아름다운 것을
봐두려고.
오늘은
멋진
보름달이야.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고,
탈출한
방법이나
생각해봐.
후후,
설마 늑대인간은
아닐 테고….


보름달 밤이면
엄청난 괴물이
나타나는데….


거짓말 아냐!
우리 할아버진
그 괴물에게 밟혀서
돌아가셨어.

난 자고 있었으니까 본 적은 없지.

대체 어떤 괴물이었어. 그 녀석?

응. 집이랑 나무랑 모두 부숴버리는 녀석이야.

아니, 뭐? 무술이라면 이 세상 최고의 손오반이…? 그 괴물 굉장하구나!

보름달 저녁밤은 달을 보면 안 된다고 하셨어.

할아버지가 항상 말했는걸~.

네 무신경 알 만하다.

' 아니? 집이 부서져도 자고 있었단 말야?

난 달 따위 구경하는 거 별 상관 없다고 생각하지만~.

왜 그래?

엇?

……

이 근처에도 보름달밤에 괴물이 나올까?

하,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너도 보름달을 봤어?

하…, 한 가지 물어봐도 돼…?

서, 설마…?

아냐…. 그럴 리가 없어.

그렇다면 혹시 그 괴물이 바로 오공?

보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오줌이 마려워서 밖에 나갔을 때 그만 봐 버렸어.

응!

저 꼬마가 괴물로 변했을라구…. 아, 아니겠지!

그렇지만…. 설마.

저 녀석…, 보통 꼬마가 아닌 것 같긴 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엉? 뭐가?

그,
그렇지….

부, 분명
그렇긴
해도….

뭐가?

보름달을
보여주면
확실해질 거
아냐….

한번
시험해
볼까?

그치만,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들이
위험하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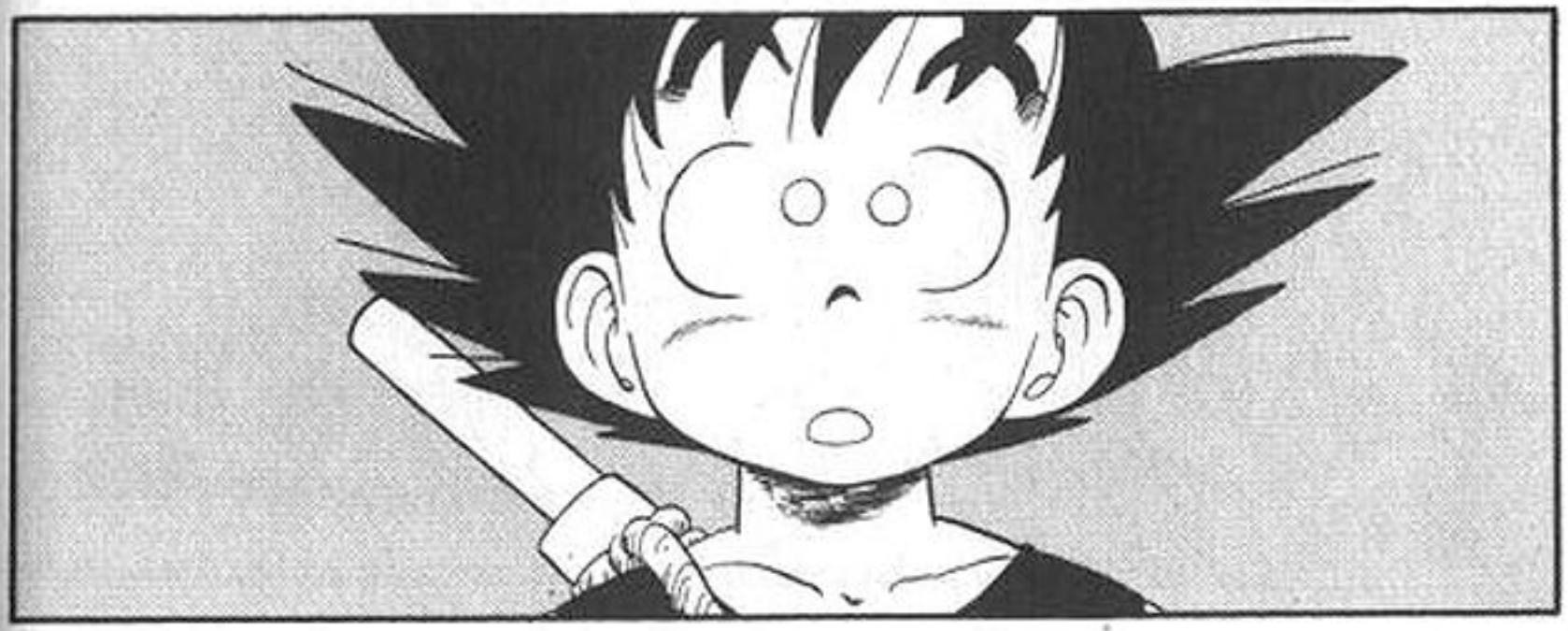
그래!
그건 맞는 얘기야!

잠깐만, 손오공.
넌 역시 보름달
보면 안 돼…!
큰일날 뻔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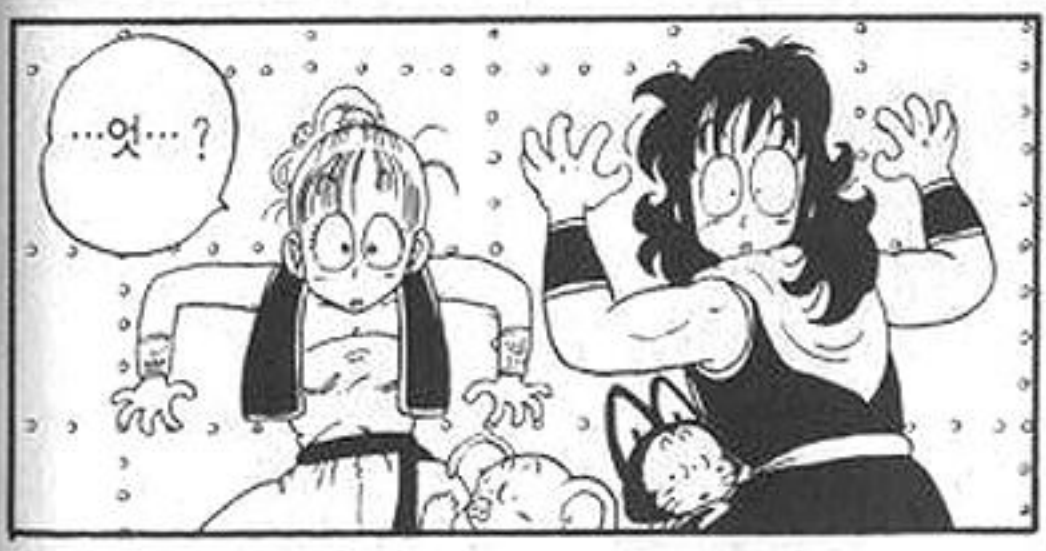
오공에게
보름달을
보여주면
안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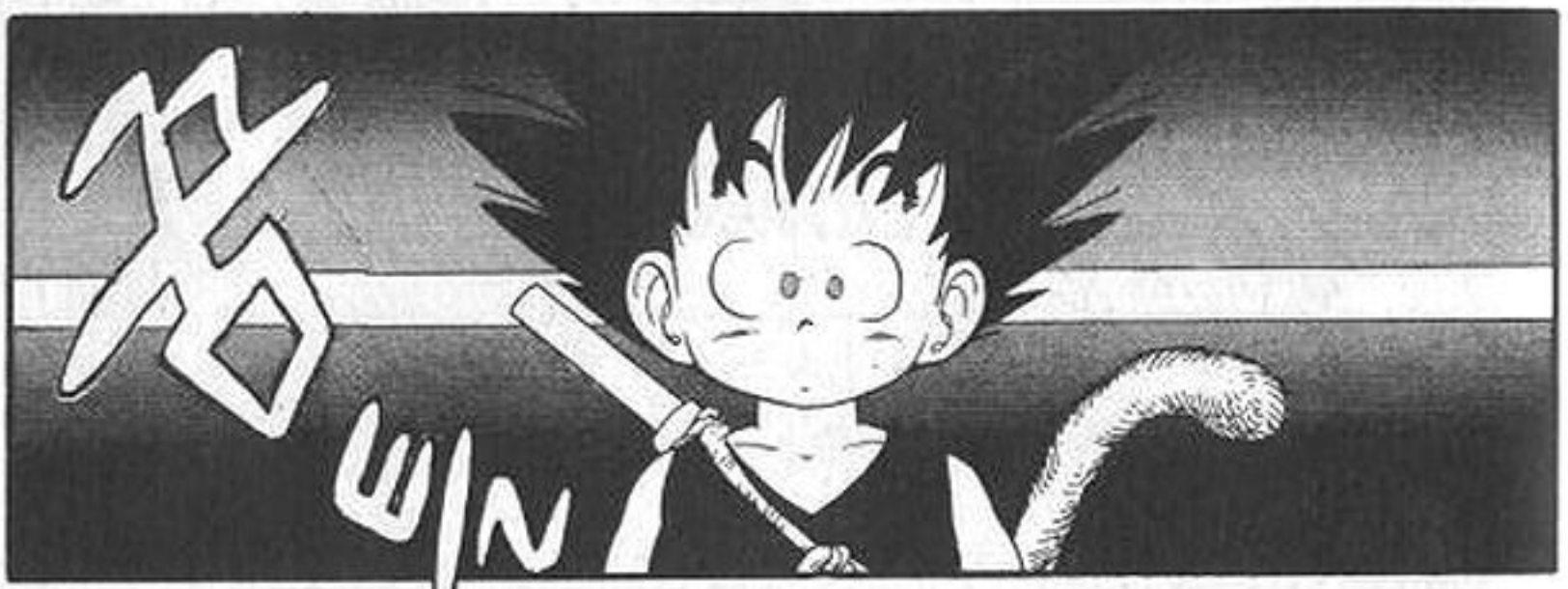

엄마!
오줌 마려!
우아아 ~악!
보고
말았어!


…엇… ?


아차~.
또 봐
버렸네.


너… 너,
아… 아무렇지도
않아?
뭐가?


내가 말했지? 그럴리 없다고.
휴-! 간 떨어질 뻔 했네!
후유!


WIN


ドロドロ
ドロドロ
ドロド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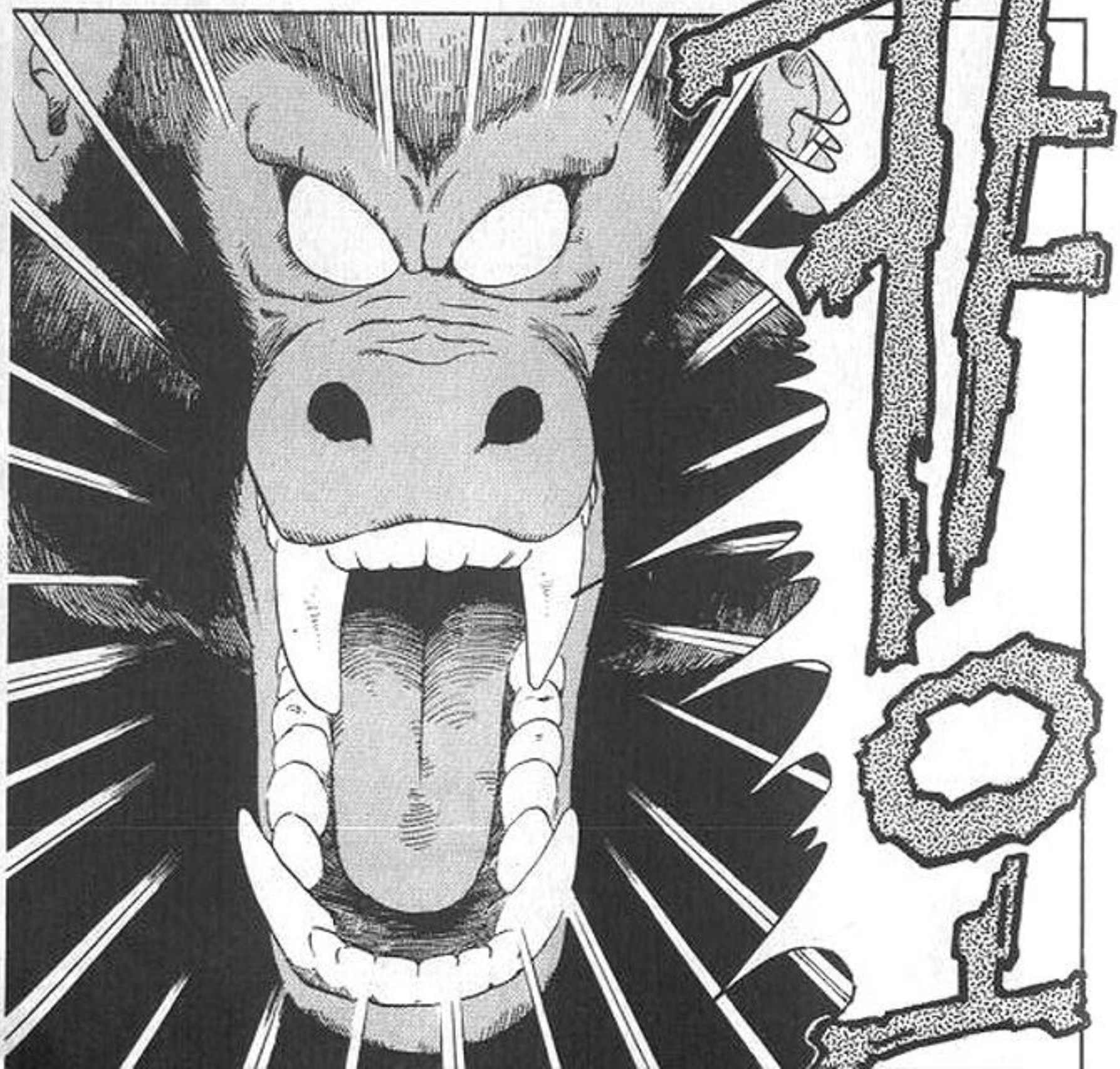


그런 이상한 표정은 싫어!!
이… 이봐! 손오공! 왜 그래?


오공!
손오공!
꺄아~
악!


으아~악!!


이 녀석들 왜 이렇게 시끄럽지?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네…
뭐지? 지금 이 소리?
끄으으~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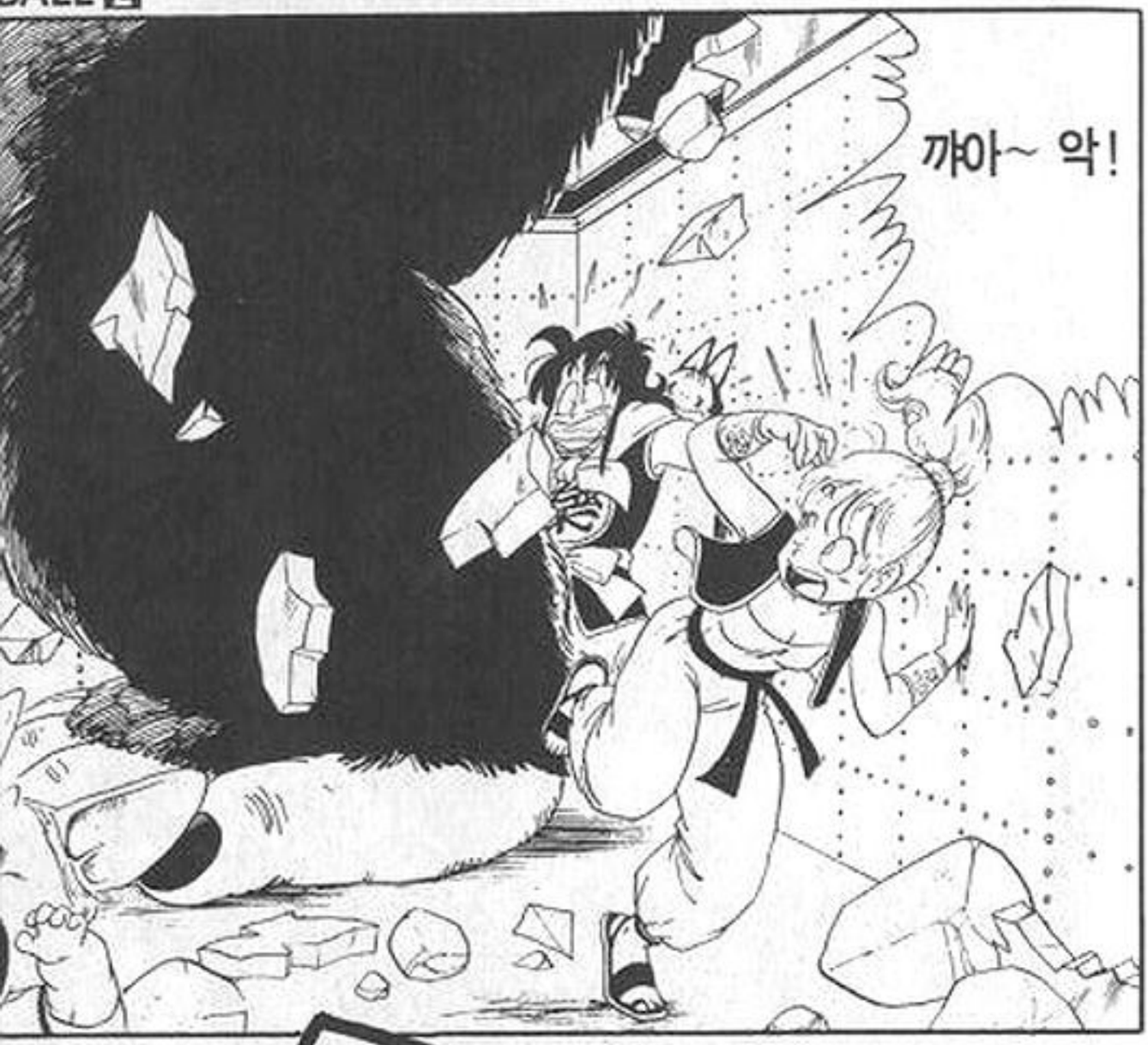

드르렁



보름달을 본 손오공은
괴물 원숭이로 대변신!!
애독자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겠지만 작가도
깜짝 놀라버렸다!

다음은, 제22화 손오공의 대변신

정말 우연스럽게도 보름달을
봐버린 손오공은 거대한 괴물로
변해 버렸다. 이제 함께
갇혀 있었던 부르마 일행의
운명은 과연….


까아~ 악!


퍽 퍼
손오공!
이걸로 됐어!
이젠 원래대로
돌아와,
응?
우왓!
그렇지만 감옥은
부서졌으니까
이젠 탈출할 수
있다!



까지직
캬악
와-악! 이게 뭐야!
꺄아~ 악!


이, 이건
뭐야—!?
빠가가
파퍽
우~오!!
꺄아~아악!

빨리 도망가자!
죽을지도
몰라!

쿠오오

헉!
헉!

비행기를
타고
탈출하자!


빨리 서둘러! 출발이다!
부부
끼끼
끼끼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이젠 됐다.
쿠아앙...
펄렁


만세!
살았다!
턱
위이잉
빠지지
까아악!
앗!
키악-!


앗! 위험하다!
으아~악! 떨어진다! 부딪치겠어!
BAKOOO..M!
저, 저 녀석…. 대체 뭐야…!?

큰일날 뻔 했어.

아이구, 저 오공 녀석!

지금 오공에겐 무슨 말을 해도 소용 없어.

좀더 멀리 도망가지 않으면 위험해.

야!

으잉?

으차차!

안 돼. 꿈쩍도 하지 않아.

그 무슨 서운한 말씀을.

난 어떡하라고?


으잉?
저 녀석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
뭣!

손오공!
아직
납짝오징어가
되긴 싫단 말야!

정신차려!
부르마도
모르니?

이제
그만
하란
말야!

아!
맞다!
그렇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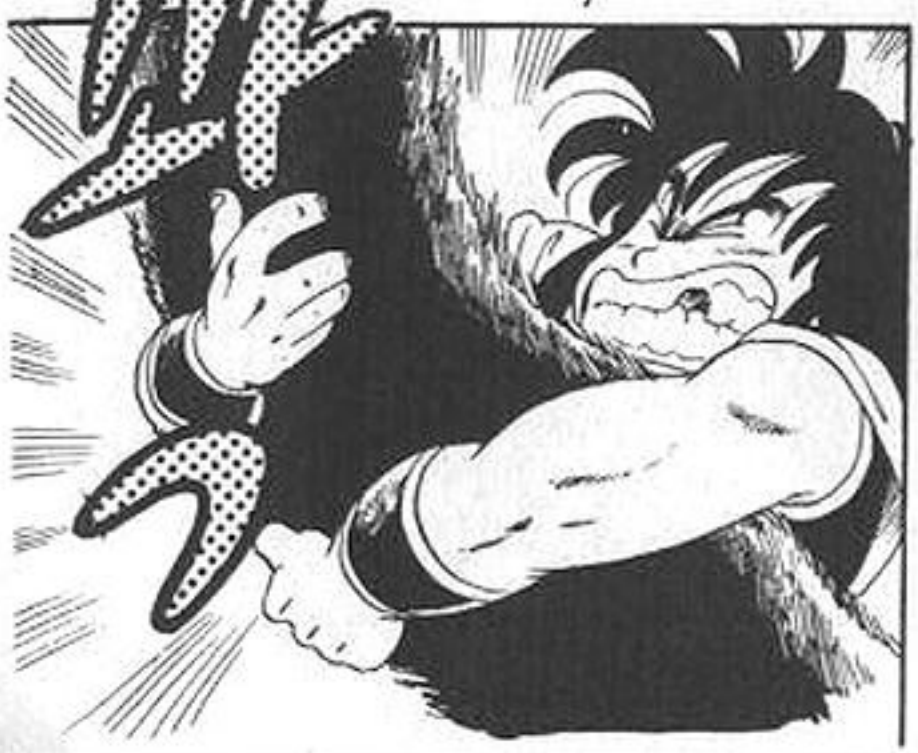
야무치 님!
저 녀석,
꼬리가 약점
이었잖아요!

응?

이런 괴물로
변해도 약점이
똑같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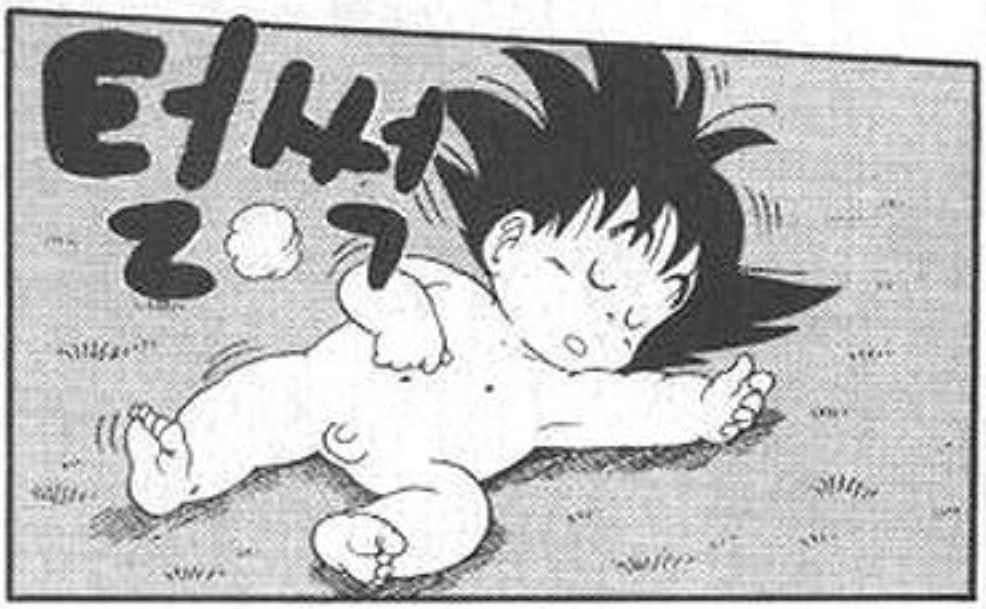



헉헉
엥!?
엥!?


퍼억


예!
지금이다, 푸알! 빨리 가위로 변신해서 꼬릴 잘라버려! 기절할지도 모르니까!!









◀ 다음은, 제23화 드래곤 팀 해산

보름달을 보고 괴물 원숭이로
변신해 버린 오공이 난동을 부렸다!
위기일발의 순간에 야무치와 푸알이
손오공의 약점인 꼬리를 잘라
무사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우씨…!
이놈 때문에
엄청 고생만
했잖아….

아휴
졸려!

아휴,
이제야
아침이 됐어.

그건 그렇고…, 이 녀석 혹시 외계인 아냐?

함아버질 밟은 것이 자신인 줄 알면…. 말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도….

손오공이 아니었으면 우린 죽은 목숨이야.

아! 눈을 떴다.

……

하지만 꼬리를 잘랐으니 두번 다시 괴물은 안 될 거야.

잘 잤니?

음냐, 음냐.

아 아 아…


내가 왜 옷을 다 벗고 있지? 옷은?
엇?
안녕. 헤헤헤.
뭐가 헤헤냐? 내 참!
뭐라고? 무슨 그런 말씀을…. 이건 용신한테 받은 귀중한 팬티야!!
너 정말 전혀 기억 안 나?
오룡! 네 머리 위의 팬티를 오공에게 줘!
뭐가?
뭣?
할 수 없군. 그럼 내 바질 주겠어.
너, 완전 숏다리 구나.
시끄러워! 그런 넌 장농 다리다!!


웬지 똑바로
설 수가 없어.
갑자기
왜 그래?


털썩..


앗!
어…,
없다!


그렇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야.
꼬리가
없어서 균형이
잘 잡히지
않는 거겠지.
엉?
꼬리?


워, 괜찮아.
고추는 남아
있으니까.

네 낙천적인 성격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두리번

두리번

꼬리는 괜찮지만 내 여의봉은 어디 있지?

팡

팡

아! 분명 저 부서진 건물 속에 있을 거야.

할아버지한테 받은 귀중한 봉이야.

찾아야 돼. 없으면 어떡하지?

풀썩

아얏!

이제부터 어떡할 거야? 반드시 1년 이상 지나야만 드래곤 볼을 찾을 수 있으니까 우선 해산할래?

그것도 맞는 말이네~.

일어나, 푸알! 집에 돌아가야지!


아~! 멋진 남자 친구도 1년 후를 기다려야겠군….
엥!?
으-음…
애인도 없이 다시 1년을 또 어떻게 보낸담. 이런 상태라면 결혼은 언제….
엥!?
ぎゅ


있다! 있어!
정말 다행이야.
풀썩
헤이! 여기 찾았다.
칫!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 바보야! 저것 좀 봐!
쿵짝짝
잘잘잘
이상한 사람들이네?

난 거북 할아버지한테 갈 거야.

좀 더 열심히 수련해서 강해지고 싶거든!

아하하 하….

아, 손오공! 우린 도시로 나가기로 했어.

함께 가지 않을래? 넌 귀여우니까 여자애들에게 인기가 있을 거야.

있구말구. 그놈의 선천성 밝힘증 때문에 인기는 없겠지만 말야.

또 쓸데없는 소릴!

정말 여자애들 많이 있어?

그래? 안 됐다, 얘. 오룡, 넌?

따라가 볼까?

여자가 많다고 했겠다?!

1년이 지나면….

또 드래곤 볼을 모을 거야?

후후후. 드래곤 볼은 이젠 필요없어!

뭐?

그-렇-지?♡

피이-. 퉤퉤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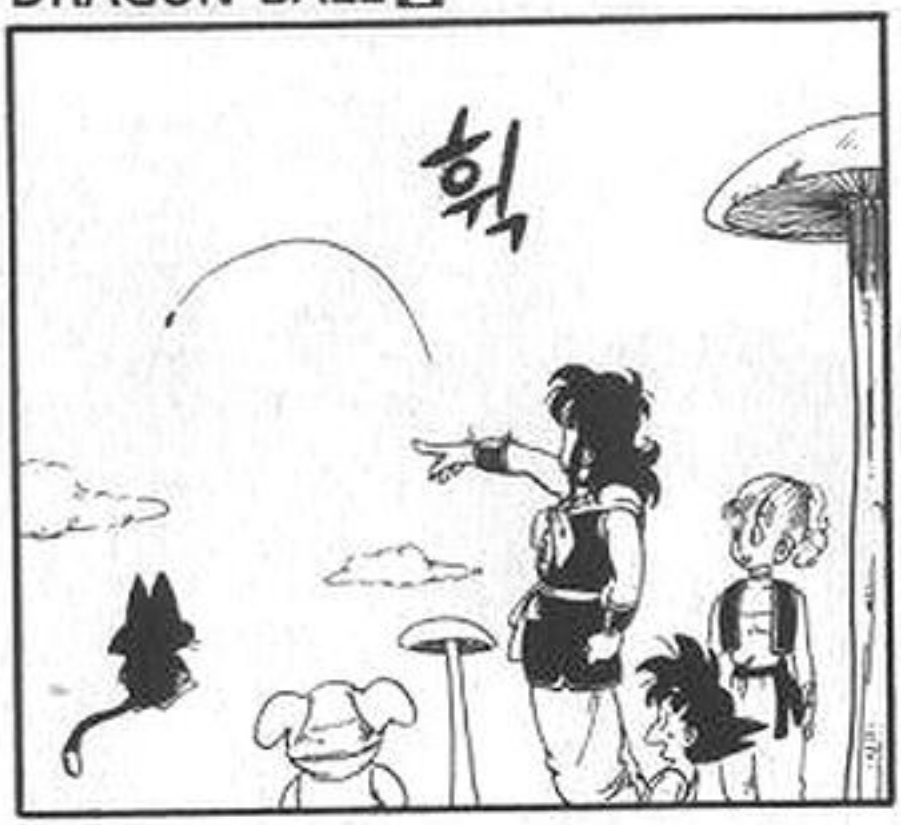
그럼 우리 할아버지 형상구는 어떻게 찾지?

찾는 방법을 모르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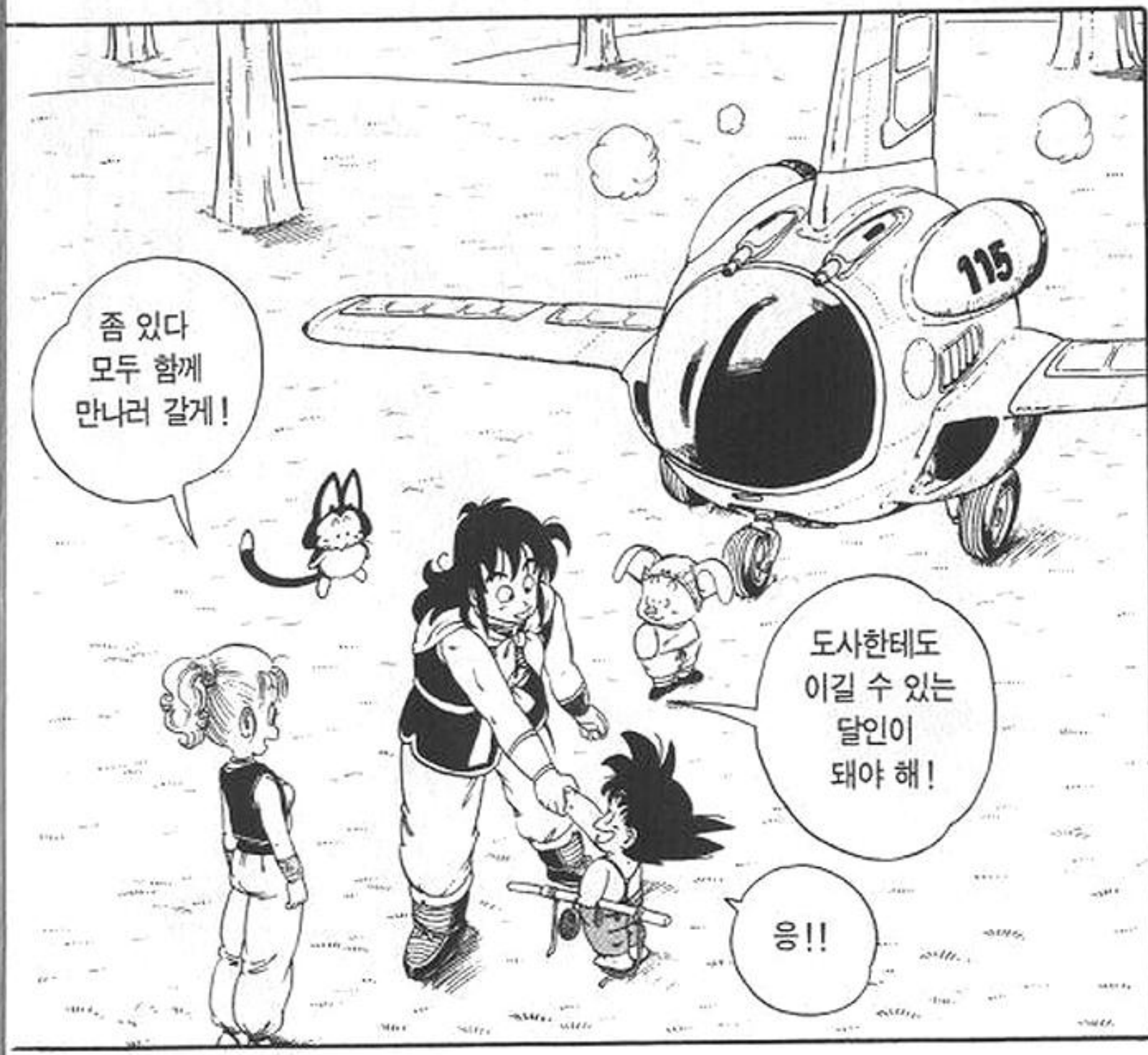
염려 마, 드래곤 레이더를 줄게!

1년이 지난 후 여기를 누르면 레이더에 반응이 올 거야!

고마워.


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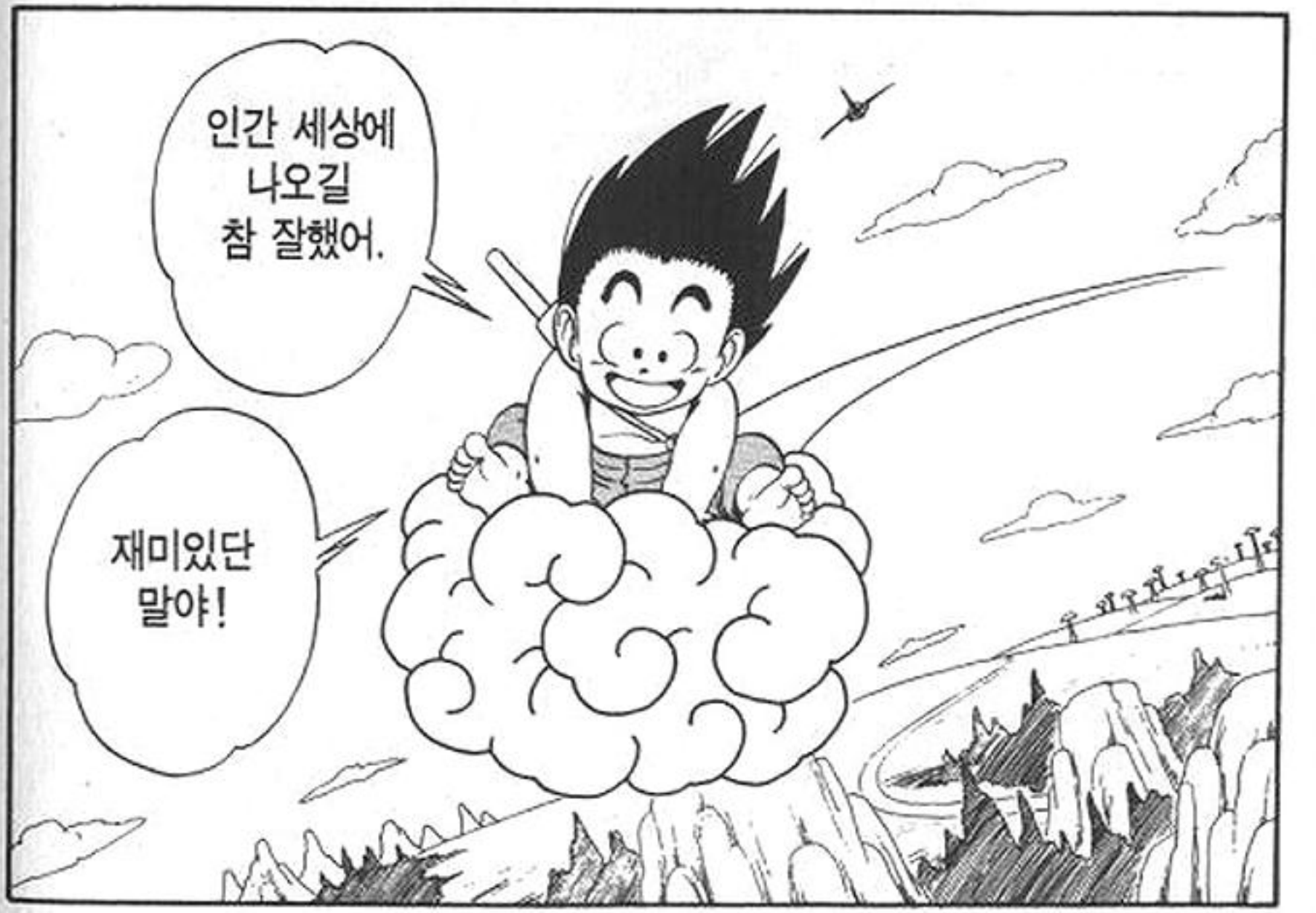

자,
갈까?


115
좀 있다
모두 함께
만나러 갈게!
도사한테도
이길 수 있는
달인이
돼야 해!
응!!


그드윤!!!
피—웅
여기야, 여기!
거북나라 신선 할아버지한테 데려다 줘!
손오공! 잘 가!
오룡, 너도 잘 가!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또 만나!


인간 세상에
나오길
참 잘했어.
재미있단
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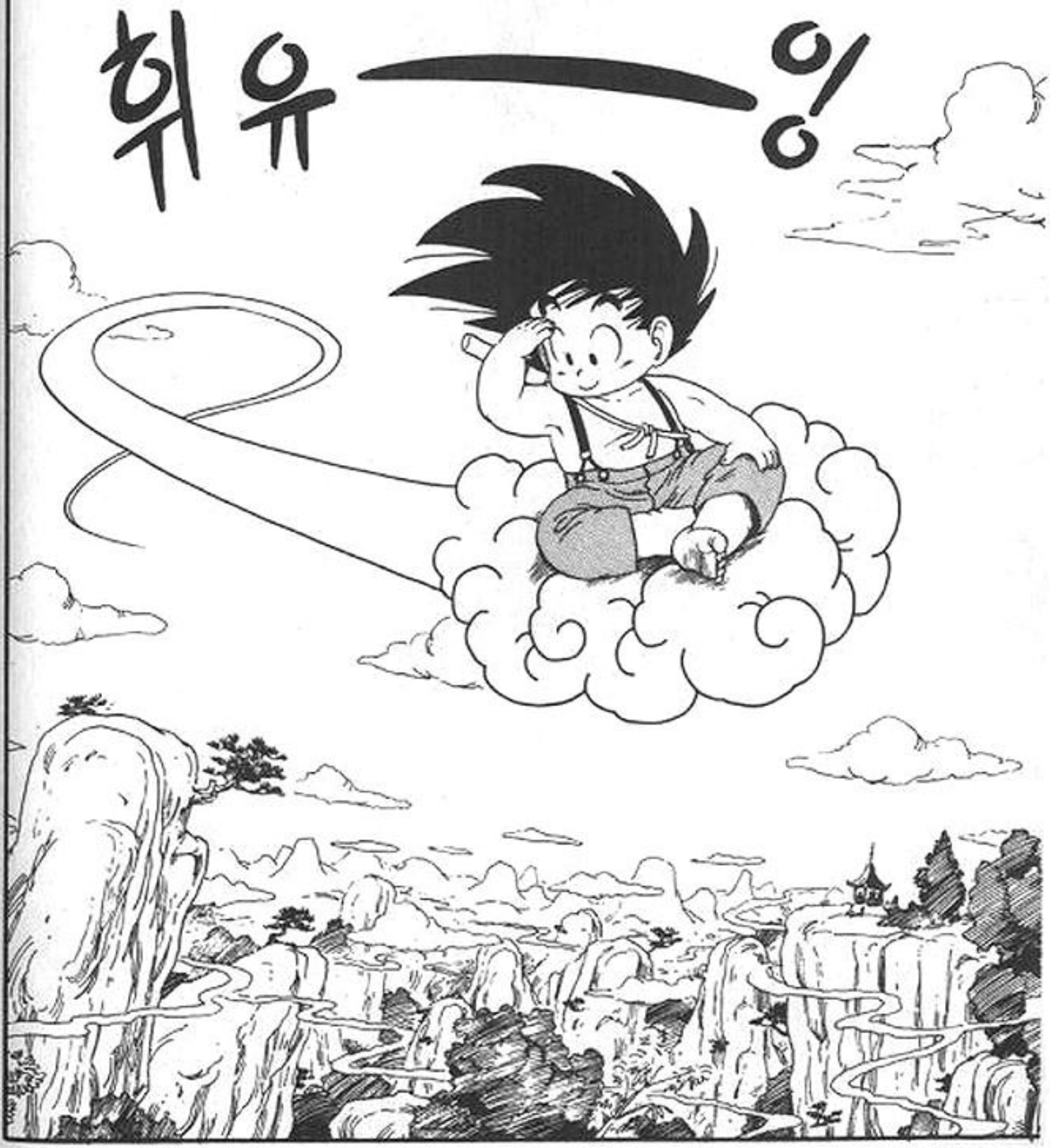
가자—!!

끝!!

드래곤 볼은 1년 후에
다시 찾기로 하고
무천도사에게로 떠나는 손오공.
부르마 일행과 헤어진
오공에겐 쓸쓸한 수행이
기다리고 있다!?

⬅ 다음은, 제24화 거북신선의 수업료

부르마 일행과 헤어진 손오공은
다시 수련을 쌓기 위해 거북신선 무천도사가
있는 곳까지 근두운을 타고 날아갔다.



하늘에서
쳐다보는 건
난생 처음이야.

여긴 우리집
근처잖아!

아~!
배고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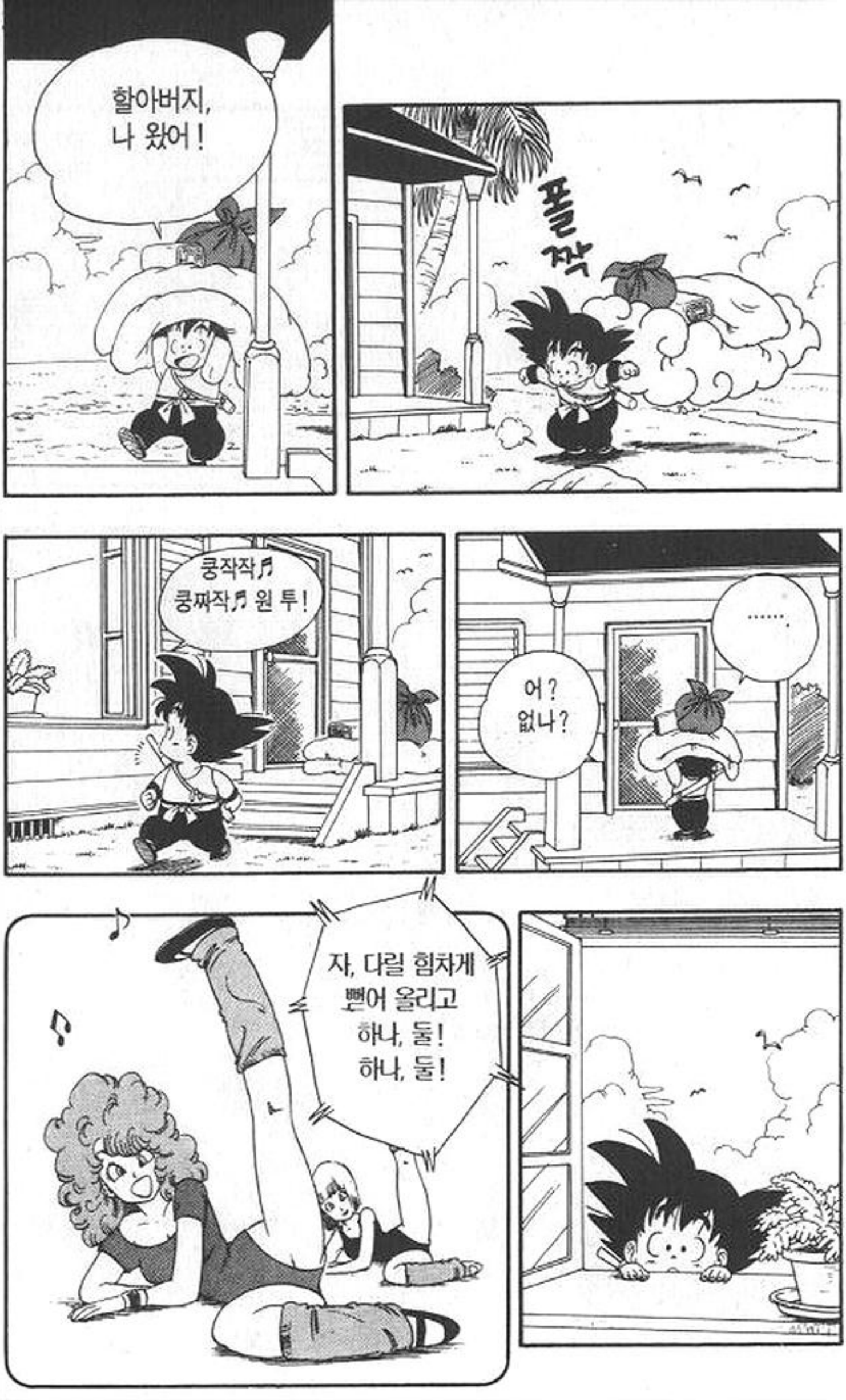
거북신선
할아버지한테
성가시지 않게 하려면
이불이라도
가져가야지.

슈웅

빨리 가서
할아버지한테
좀 얻어 먹자.

야호!
찾았다!

KAME HOUSE


할아버지,
나 왔어!
폴짝
쿵작작♬
쿵짜작♬ 원 투!
어?
없나?
.....
자, 다릴 힘차게
뻗어 올리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오,
그렇지-.

할아버지!

뭐야,
방안에
있네.

옳지~!
하나 둘~♬

까악

할아버지


다음부턴 놀라게 하지 마.
오~! 너였니?


헤헤헤.
……
어—리 석—은


호오~! 하나 둘, 하나 둘.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야!
자, 잠깐만 기다려!
할아버지! 나 수련 하러….


흐—음. 이상한 상자에 음식을 넣어두었네?
PENGUIN 3


할아버지, 나 배가 고픈데—.
저기 냉장고가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 먹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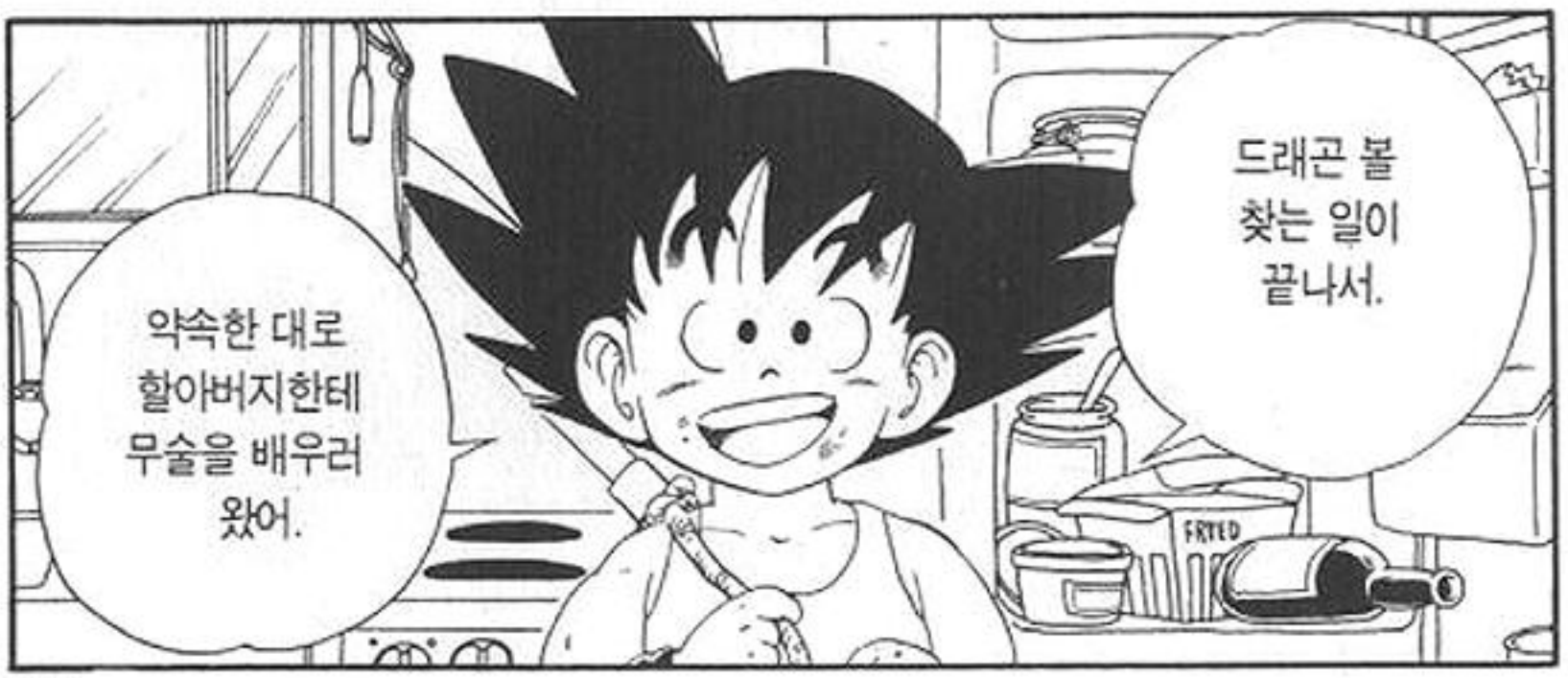
와~! 춥다. 이 속은 겨울인가봐.
아그작
헤헤헤! 맛있다!
쿵자작
쿵자작
사각
사각
아작
아작
뭐야, 이거. 얼음 이잖아?
아얏
자,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 바이 바이.
후아-! 언제 봐도 재미있단 말이야!


푸하!


으랏차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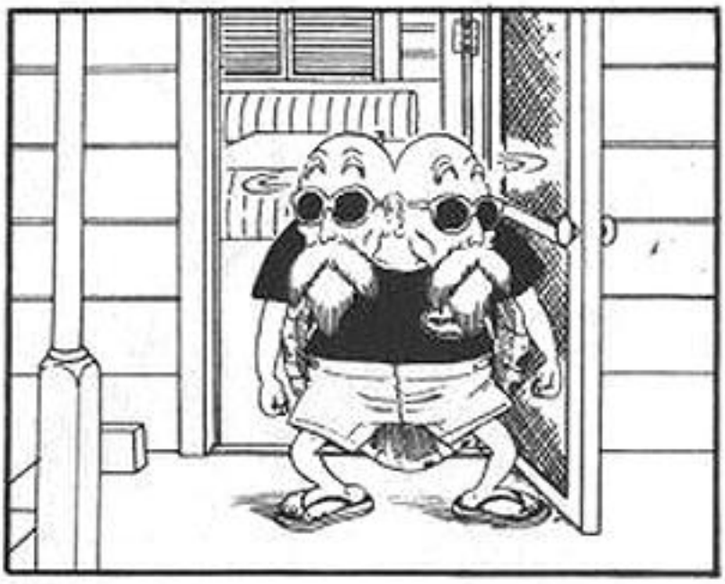

넌 대체 뭐 하러 왔니?
내 일주일 식량을… 먹어치웠어.
PENNZOIL


버터까지….
터, 텅비었잖아? 전부 먹어 버렸어!


드래곤 볼 찾는 일이 끝나서.
약속한 대로 할아버지한테 무술을 배우러 왔어.
FRYED


여기
이불까지 확실히
준비해 왔는걸.
뭐, 무술?
아참, 그랬었지.


부르마 말이야?
걘 도시로
돌아갔어.
얘! 같이 있던
여자앤 어딨지?
함께 안 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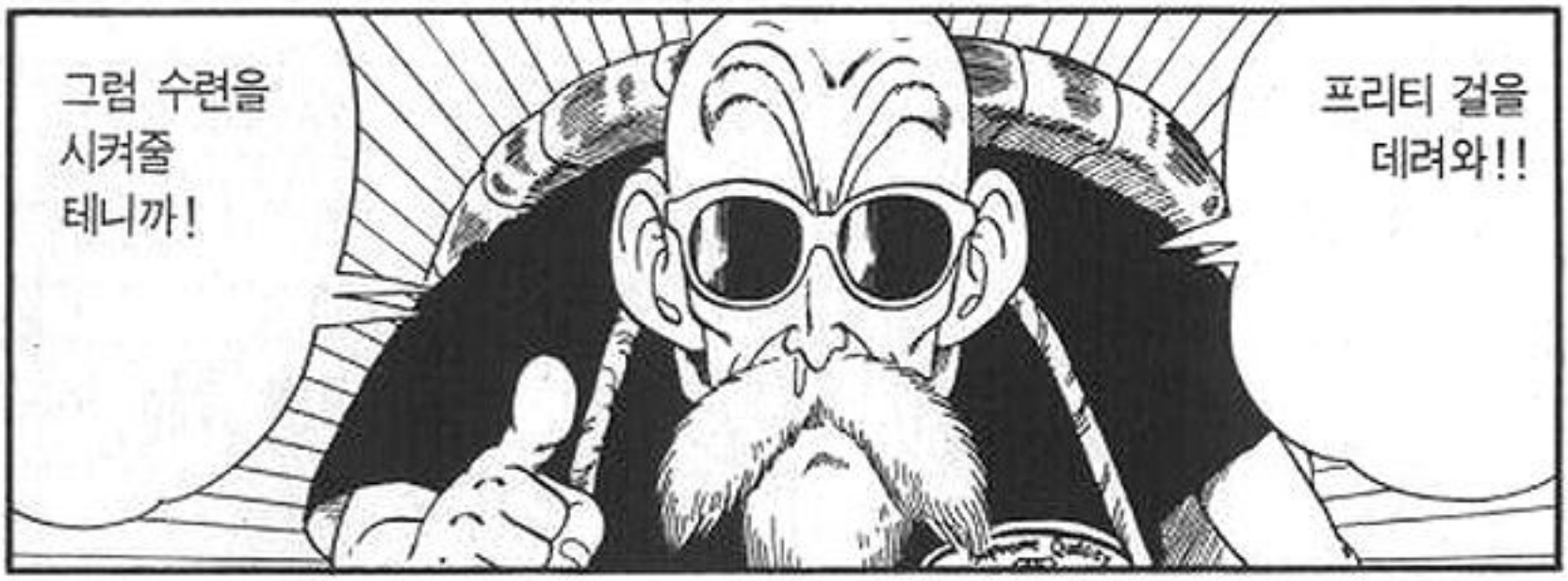



상관없어.
난 할아버지보다
강해지고 싶걸랑.
내 수련은
좀 엄한데….
그래도 괜찮니?


아까비—!
쳇!


난 공짜로 가르쳐 주지 않아.
그러나….
엥?


호호호, 그래.
뭐라고? 나보다 강해지고 싶다고?


그럼 수련을 시켜줄 테니까!
프리티 걸을 데려와!!


프리티 걸이라….
흠?


귀엽고 발랄한 여자애 말야.
프·리·티·걸!
브리지개그가 뭔데?


예스, 굿!
그거 데리고 오면 무술 수련 시켜줄 거야?

자,
잠깐!

난 또 뭐라고!
그딴 거 간단하지.

뭐,
그렇긴
한데~.

고추가 없는
발랄한 애
말이잖아.

다시 말해 두겠는데,
프리티 걸이란 뜻
잘 이해하고 있지?

따지기는….
건강미 넘친다는 게
무슨 뜻인데?

너, 우선
일반상식부터
공부하는 게
좋겠다.

발랄하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야.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너무 늙어도 안 돼….
귀여우면서 가능하면
건강미 넘치는 여자애가
제일이야.

아니? 네 꼬린 어디 갔니?

응. 있었는데 어디론가 가버렸어.

기대할게!

우선 데리고 올게!

어쨌든 알았어!

갔다 올게!

자, 그럼….

정말 이상한 녀석이야.

피—…융



사사
사
주섬
주섬
흠♬
뚜루뚜뚜♬
두근
두근
딸깍
어떤 옷을 입을까?
♪
랄라~~~ 랄라
♪
찰칵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나타남
나타남

할아버지!
데리고 왔어!
빨리 나와봐,
빨리!

호,
그래?
어서 옵쇼!

나한테 용무가
있다는 분이
이 할아버지냐?

건강미
넘치죠?

아…, 안…,
안녕하세요….

IQ JUMP COMICS

DRAGON BALL



살아있는 만화의 전설 〈드래곤 볼〉,
무삭제 오리지널판 완벽 부활!!

scanned by raprnb